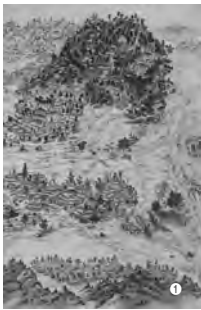


『무성서원원지』 (1884)

上

박정민·권이선 옮김

『무성서원원지』 상
(1884)



① 칠광도

② 최치원 초상화

사진출처 | 정읍시립박물관

『무성서원원지』 (1884) 上

박정민·권이선 옮김

발간사

『무성서원원지』 상
(1884)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9개 서원 중 전라북도에는 정읍의 '무성서원'이 유일합니다. 무성서원은 사액서원이자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전북의 도원(道院)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성서원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와 연구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전북연구원에서는 무성서원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고 유네스코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2020년부터 1884년 판본의 『무성서원원지』 번역과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판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서원지 가운데 가장 먼저 편찬되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풍광 좋은 곳에 위치한 다른 서원들과 달리 무성서원은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향촌 교육과 연계돼 학문을 권장하며 마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무성서원이 소재한 정읍은 전통적으로 숭의(崇義)와 유풍(儒風)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정읍 출신 선비 손홍록과 안의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지켜냈고, 최익현과 임병찬은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무성서원에서 항일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무성서원원지』 번역을 계기로 예로부터 무성서원이 수행해온 기능과 가치가 현대에서도 재창출되어 우리 전북의 소중한 문화자산의 가치가 확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12.

전북연구원장 권혁남

일러두기

- 원문은 정읍시립박물관 소장 『무성서원원지』를 대상으로 한다.
- 인명, 지명, 관직명, 건물명 등의 고유명사 및 중간점 사용이 필요한 일반명사가 나열 되는 경우 중간점(·) 사용. 유니코드 318D를 사용한다.
예) 第一義先生名號·事實·文章·道德
- 번역문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문을 정서할 때 항수(行數)에 맞추어 입력한다.
 - 고유명사는 한자와 한글을 병기한다. 다만 한 번 나온 글자는 뒤에 한자를 병기하지 않는다. 첫 번째 나온 단어는 ()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한글로만 작성한다.
 - 원문의 고유명사·인명·지명 등은 ()로 표기한다.
 - 의역한 부분은 []로 표기한다.
- 예)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院誌]의 전후 사정은 옛 서문에 갖추어져 있으니 어찌 감히 다시 덧붙이겠는가.
- 세주(細註)는 【 】로 표기한다.
- 예) 현우 3칸【성종조 계묘년(1583)에 이건】
- 연도는 간지 등을 먼저 쓰고, 연도를 ()로 병기한다.
- 각주는 연도를 먼저 쓰고 간지, 왕력을 ()로 병기한다.
- 예) 본문 : 1554년(갑인) 12월 30일에 돌아가시니 연세가 64세였다.
각주 : 김성근(1835-1919)은 안동(安東) 김씨이다. 1861년(철종 12)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 각주를 단 본문 내용과 하단의 각주 표제어는 일치하도록 한다.
- 각주에서 인물 설명시 성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호(號)나 자(字)의 사용에 한해서 다시 설명해준다.
- 예) 소요부(邵堯夫)는 송대(宋代)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 원문에 차자(借字)로 표기된 물명(物名) 등은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하고 별도의 주석은 않는다. 단,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석을 달거나 단어를 풀 때 (○○ ;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예) 최치원 선생 영정이 이모(移摹 ; 본떠서 그림) 되어 봉안(奉安 ; 신주나 화상을 모심)된 뒤에는 ~

-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른다.
-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아래의 부호를 사용한다.

※ 부호

『 』:책명 및 각주의 전거(典據)를 묶는다.

「 」:편명, 작품명 논문 제목을 묶는다.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 외국어를 묶는다

[]:번역문과 뜻은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글 안에서 대화를 표시할 때, 남의 말이나 서책 또는 시문 등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한다.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부분을 묶는다.

【 】:원주(原註)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음과 끝에 사용한다.

■ :원문이 누락된 부분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 :판독 불가인 경우에 사용한다.

● 역주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역주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바탕으로 한다.
- 난해한 용어, 인물에 대한 해설 등에 역주를 하고, 인물 등은 현감 이상을 역주로 실시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통합정보시스템, 한국고전종합DB,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 연도 등에 부족한 점이나 다른 학설이 있을 경우 상세 내용을 표기한다.

예) 각주 123 : 원문에는 “癸卯以主簿出補 泰仁創建五學宮”이라고 주부에 보임된 후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문맥만 보면 중앙 관직에 있던 신잠이 갑자기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면, 1543년(중종 38)에 신료들은 다시 신잠의 문예가 뛰어나니 명 사신을 맞이할 때 크게 쓰일 것이라면서 그를 추천하였고, 중종은 이를 허락하여 종6품의 사옹원 주부에 제수하였다.(『중종실록』 권 101, 38년 11월 26일 병인 ; 29일 기사) 며칠 후 중종은 “신잠은 주부가 됨은 무익하니 고쳐 守宰(수령)에 임명하여 치적을 살펴보려 한다.”하고, 태인 현감에 보임하였다.(『옥계선생문집(玉溪先生文集)』 권3, 행장) 즉, 1543년에 신잠은 사옹원 주부에서 새롭게 태인 현감으로 임명되었고, 태인에 와서 5개의 학당을 건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점은 원문 입력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목차

『무성서원원지』상 (1884)

발간사		5
일러두기		6
■ 『무성서원원지』 상 해제		11
1. 개요		13
2. 편찬 배경		15
3. 체제 및 내용		16
	국역	원문
■ 『무성서원원지』 상 역주	25	
• 무성서원원지 목록	26	118
• 서문(序文)	27	119
무성서원원지 서문[武城書院院誌序]	27	119
원지 서문[院誌序]	29	120
• 발문(跋文)	32	121
기양연(奇亮衍) 발문(跋文)	32	121
신기조(申岐朝) 발문(跋文)	34	122
•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36	124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1	36	124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2	39	125
• 유상대비문(流觴臺碑文)	43	127
• 유상대 중수기(流觴臺重修記)	46	128
• 원지(院誌)	48	129
•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	49	129
• 칠현사적(七賢事蹟)	51	131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	51	131
영천(靈川) 신 선생	52	131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선생	55	132
눌암(訥庵) 송 선생	57	133

묵재(默齋) 정 선생	59	133
성재(誠齋) 김 선생	61	134
명천(鳴川) 김 선생	62	134
• 청액소(請額疏)	64	135
• 청액사적(請額事蹟)	71	139
• 연액례(延額禮)	73	140
• 제문(祭文)	76	141
• 각읍예부기(各邑例賻記)	78	142
• 축문기(祝文記)	80	143
• 원생 관문(院生關文)	81	144
• 흘기(笏記)	82	144
• 문창후 최 선생 영정 봉안 사적(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84	145
• 영정 봉안시 정장(影幀奉安時呈狀)	87	147
• 영정 봉안일기(影幀奉安日記)	89	148
• 영정 봉안축문(影幀奉安祝文)	90	149
• 원우단확중수기(院宇丹牖重修記)	91	149
• 이안축문(移安祝文)	93	151
• 환안축문(還安祝文) 위와 같음	93	151
• 중수기(重修記)	93	151
• 계원필경집개간기(桂苑筆耕集開刊記)	95	152
• 품장(稟狀)	96	153
•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99	154
• 지산 처사(芝山處士) 안재호(安在簾) 장서기(藏書記)	114	162
■ 『무성서원원지』 상 원문	117	
■ 『무성서원원지』 상 원문 이미지		165

『무성서원원지』 상 해제

1. 개요

무성서원은 신라말에 태산태수로 부임한 최치원과 조선 명종대 부임한 신잠, 그리고 향(鄕)선비인 정극인, 송세립, 정언충, 김약묵, 김관 등을 배향한 곳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최치원이 이임한 뒤부터 생사당을 짓고 그를 기렸으며, 그 전통은 태인에서 학교를 크게 일으키고 선정을 베푼 신잠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정극인이 건립한 향숙(鄕塾)을 기반으로 송세립이 학교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정언충, 김약묵 등이 계승하였다.

그 결과 성종대인 1483년에 월연대 위에 있던 태산사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1615년(광해 7)에 제향기능의 태산사와 강학 기능의 강당 등이 갖추어진 태산서원이 되었다. 무성서원은 1696년(숙종 22)에 사액서원으로 공인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이 되었다. 이후 최치원의 영정을 모셔와 명실상부한 최치원 서원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1868년(고종 5)에 전국의 47개 서원을 제외한 모든 서원과 사우가 철폐될 때, 무성서원은 존치되어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예를 들어, 1871년부터 무성서원의 원장을 태인현 감 김인근이 겸임하였고, 1887년부터는 관찰사 김성근이 겸임하였다. 또한, 1873년에 시작된 강습례는 서원철폐령 이후 강학을 통해 도(道)를 밝히고자하는 서원의 본질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최익현이 무성서원에서 병오창의를 일으킨 배경으로 작



무성서원 (제공: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용하였다.¹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무성서원은 1968년에 사적 제166호로 지정되었고, 2019년에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무성서원의 연혁과 특징을 기재한 『무성서원원지』(이하 원지)가 처음 편찬된 것은 1884년(고종 21) 6월이었다. 그리고 현전하는 판본은 크게 7종이다.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² 국립중앙도서관본과 uc버클리대본은 목판본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목활자본이다. 여기에서는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중인 자료를 번역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원지는 도유사(都有司)에 최성재를 필두로 서사(書寫), 발문(發文), 감인(監印), 청서(請序), 교정(校正), 장재(掌財) 등의 업무를 맡은 21명의 유사들이 참여하였고, 무성서원에서 개간되었다.

1884년 판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다른 서원원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만

1 이해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 『2020년도 전북학 도민강좌 교재집』, 2020, 36~37쪽.

2 전북학연구센터, 「무성서원 관련 자료 현황」, 『무성서원 역사·문화 자원화 방안』, 2020, 용계서원본은 하권만 현전하고 있으나 이로 미루어 실상 2권 2책일 가능성이 크다.

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³ 아울러 서원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어 비단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보고이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훌륭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번역을 통해 전문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편찬 배경

원지의 편찬 배경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1868년의 서원 철폐 이후 복호와 보노의 복구와 관련된 지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무성서원의 임원들은 원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서원에는 예부터 원지가 없었고, 수 백 년 동안 전해 오는 원중 사적(院中事蹟)을 베낀 것도 오래되어 쉽게 이지러져 마침내 다 없어질 것을 염려하였다. 원생(院儒) 송정순(宋程淳)·김형식(金亨植)·우재호(禹在鎬)·장석배(張碩培)가 단연코 자신들의 임무로 여겨 끊어지고 흩어져 남은 것들을 수습하였다. 옛것은 보존시키고 새 것은 보태 널리 헤아려 보고 넓게 실어 모아서 한 책을 만들고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도모하였다.(기양연 발문)

당시 정읍현감으로 재직 중이던 기양연의 발문을 보면 원생 송정순과 김형식 등은 원지가 없어서 수 백 년 간 전해 내려오는 무성서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책으로 만들어 간행하였다. 실제로 원지 내용의 상당수는 이미 이전에 작성된 것을 베껴 적은 부분이 많고, 새롭게 작성한 내용 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 상권을 예로 들면, 서문과 발문, 원지, 칠현사적, 중수기, 복호보노환복기, 지산처사 장서기 정도만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즉, 원지에는 제향위(祭享位)의 실적과 서원의 흥망성쇠를 쉽게 이해할 수

3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서원지가 만들어진 시기는 다음과 같다. 즉, 남계서원(1935:1962), 도동서원(1997), 도산서원(1958), 돈암서원(1958), 소수서원(2007), 옥산서원(1993), 필암서원(1975)이다.(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표 1> 참조)

있도록 서원의 역사적 사실을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무성서원은 최치원과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도관찰사 김성근과 태인현감 정이원은 서문의 상당부분을 최치원에 대한 내용에 할애하였다. 예를 들어, 정이원은 “원지 가운데 조항이 구절마다 하나라도 선생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당 공경하고 삼가는 데 겨를이 없고 원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거듭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며 여기에서 최치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성근은 한 발 더 나아가 “무성서원의 성쇠는 선생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지만, 우리 도의 운수와 성쇠는 무성서원의 보존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다. 이 원지를 저술하여 간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선생의 문장과 도덕에 대해서 숭상할 바를 알게 하여 선생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듯이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 사문(斯文)을 일으켜 바로 세우고 무성서원에 귀의(歸依)한다면 무성서원의 다행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의 다행이고 만세(萬世)의 다행이 아니겠는가?”라며 무성서원의 보존여부를 전라도의 운수와 성쇠로 연결시키고, 국가의 다행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김성근은 최치원의 정통성을 보유한 무성서원의 중요성을 거시적 차원으로 치환한 것이다.

이처럼 원지의 편찬 배경은 그동안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정리하고, 후대에 이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문묘에 배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종(儒宗)이라고 손꼽히는 최치원과 관련성을 강조하여 무성서원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상권은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최치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체제 및 내용

원지는 크게 상(乾)·하(坤)권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본고에서 살펴볼 상권은 서와 발을

4 정읍시립박물관 본의 표지에는 건(乾)과 곤(坤)으로 구별되었지만, 목차에는 각각 원지 상(上)·하(下)로 표기되어 있다.

포함하여 31개의 항목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목차의 순서와 실제 내용의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본문의 순서에 맞추어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원지 상권의 목차

무성서원원지 목록(武城書院院誌目錄)	
서문[序]	발문[跋]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유상대 비문(流觴臺碑文)
유상대 중수기(流觴臺重修記)	원지(院誌)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	칠현사적(七賢事蹟)
청액소(請額疏)	청액사적(請額事蹟)
연액례(延額禮)	제문(祭文)
각읍예부기(各邑例賻記)	축문기(祝文記)
원생 관문(院生關文)	홀기(笏記)
영정봉안사적(影幀奉安事蹟)	영정봉안시정장(影幀奉安時呈狀)
영정봉안일기(影幀奉安日記)	영정봉안축문(影幀奉安祝文)
원우단확중수기(院宇丹牘重修記)	이안축문(移安祝文)
환안축문(還安祝文)	중수기(重修記)
계원필경 개간기(桂苑筆耕開刊記)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지산처사 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상권은 조목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고, 관련 그 내용으로 묶으면 〈표 2〉와 같이 9개 정도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 원지 상의 편목과 주요내용

편목	내용	건수
서발	서문[序](김성근, 정이원), 발문[跋](기양연, 신기조)	2
최치원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유상대 비문(流觴臺碑文), 유상대 중수기(流觴臺重修記)	3
개요와 제향인물	원지(院誌),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 칠현사적(七賢事蹟)	3

연액기사	청액소(請額疏), 청액사적(請額事蹟), 연액례(延額禮), 제문(祭文), 각읍예부기(各邑例賻記), 축문기(祝文記), 원생 관문(院生關文), 홀기(笏記)	8
중수일기	영정봉안사적(影幀奉安事蹟), 영정봉안시정장(影幀奉安時呈狀), 영정봉안일기(影幀奉安日記), 영정봉안축문(影幀奉安祝文), 원우단확중수기(院宇丹牘重修記), 이안축문(移安祝文), 환안축문(還安祝文)	7
중수기	중수기(重修記), 계원필경 개간기(桂苑筆耕開刊記)	2
서원 운영 관련 정장(呈狀)	읍품(邑稟), 유장(儒狀)	4
복호보노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1
장서기	지산처사 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	1

책의 머리말이라고 볼 수 있는 서문과 발문에 관한 내용은 각 2개씩 있다. 유생들이 서원지의 서문을 받은 것이 1884년(고종 21) 여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 이전에 이를 편찬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동년 5월 단오에 관찰사 김성근에게 먼저 받고, 하순에 정읍현감 기양연에게 발문을 받았다. 이후 6월 초에 태인현감 정이원의 서문과 홍덕현감 신기조의 발문을 추가로 받았다. 다만 원지의 순서는 김성근, 정이원의 서문, 기양현, 신기조의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최치원과 관련된 내용도 3개나 되는데 그가 남긴 책인 『계원필경』의 서문, 그리고 그가 현재의 동진강 가에서 노닐었다고 알려진 유상대와 관련된 유상대 비문과 유상대 중수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무성서원이 위치한 고현내 지역이 최치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당시 유상대의 모습과 유상곡수를 재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5 김성근의 서문에 기재된 순서는 원지의 목록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서문에는 최치원, 칠현사적, 청액소와 허가를 받은 사적, 치제문, 연액의절, 영정 봉안시의 통관과 일기, 『계원필경』을 재간행한 일, 서원의 뒤에 투장을 금지한 것과 읍품, 유장, 복호보노의 환복기까지 쓰여 있다. 하지만 장서기와 관련된 내용은 누락되었는데, 아마 지산처사 장서기는 김성근의 서문을 받은 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김성근의 분류를 참고하여 순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무성서원 자체에 대한 내용과 여기에 배향된 7현의 소개에 대한 내용도 3개가 있다. 비록 항목 자체는 원지(院誌),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 칠현사적(七賢事蹟)으로 3개지만, 특히, 칠현사적은 7명에 대한 개괄적 설명 및 개별적 소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량 자체는 상당하다. 또한, 송세림이나 정언충 등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들은 다른 사료를 통해 그의 행적을 찾기 힘들지만, 원지에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할 만큼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하권에서는 보유라는 형식으로 배향인물 7명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태산서원이 된 이듬해(1616년)에 지은 태산사사적은 당대의 문서를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서원 뒤편으로 제공한 토지의 유래와 함께 규모, 소장한 책의 목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되는 과정이 8개로 가장 많다. 여기에서는 1695년(숙종 21)에 유생들의 의견을 모아 이듬해 1월에 조정에 올린 청액소부터 관련 내용, 동년 11월에 사액을 받는 의례, 이때의 제문, 주변 읍과 서원 등지에서 기부한 물품 등 사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모았다.⁶ 이를 통해 무성서원이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는 과정과 그 후 어떠한 방식으로 의례를 진행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최치원의 영정을 맞이한 내용이다. 이는 1783년(정조 7)에 하동 쌍계사에 모셔져 있다가 후손인 최항대의 집에 있던 최치원 영정을 맞이하기 위해 사당을 중수하고, 가져오는 과정, 영정을 봉안할 때의 축문과 이안(移安), 환안(還安) 축문 등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 역시 당대의 이안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중수일기(重修日記)』에 상당수가 있다.⁷

무성서원 중수기와 관련된 내용은 2개가 있다. 서원을 관리하면서 실시한 중수 관련

6 원문과 해제 등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의 『연액기사(延額記事)』를 참고할 수 있다. (http://hnnkostma.org/emuseum/service/data/dataDetail_evo.jsp?data_group=17499)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편목을 연액기사라고 하였다.

7 원문과 해제 등은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의 『중수일기(重修日記)』를 참고할 수 있다. 원우단확중수기는 『중수일기』에서 '문창선생 영정 봉안시 사우 단확중수기(文昌先生影幀奉安時祠宇丹腹重修記)'로 기재되어 있다. 즉, 최치원의 영정을 이안하면서 사우의 단청을 중수한 내용이므로 뒤에 이어지는 중수기와는 사안이 구별된다. (http://hnnkostma.org/emuseum/service/data/dataDetail_evo.jsp?data_group=17498)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서원의 유사들은 건물 설립과 같은 외적인 자산 관리와 무성서원의 대표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최치원의 문집 발간 같은 내적 관리에 힘썼다. 우선 외적인 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1825년(순조 25)에 강당이 화재로 소실되자 유립 김민 등은 수리를 의논하였다. 이후 현감 서호순의 도움을 받아 1828년 3월에 중수를 완료하였다. 서호순은 최치원 영정을 개모할 때도 봉록을 덜었기 때문에 강당과 영정 개모의 공으로 1849년(헌종 15)에 불망비명이 세워졌다.⁸

다른 하나는 내적인 관리 부분이다. 앞서 화재로 강당 뿐 아니라 현판과 상량문도 불에 탔다. 서원 유사들은 강당 중창 이후 1831년(순조 31)에 최치원의 영정 개모를 주도하였다. 외형이 갖춰지자 최치원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서원의 중흥과 내실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1833년(순조 33)에 태인현감 심능숙과 원유 박해언 등이 『계원필경집』 간행을 도모하였고, 관찰사 서유구의 도움을 받았다. 결국 이듬해 완영에서 인쇄가 이루어지고 판은 무성서원에 보관되었다.

중수기는 공통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간행하는 등 현감과 관찰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여러 유생들의 함께 의논해야 할 대사(大事)였다. 한편, 서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사(小事)는 정장(呈狀)⁹을 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읍품(邑稟)과 유장(儒狀)이 있다.¹⁰ 당시 서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로는 무성서원 뒷편 성황산에 투총(偷塚)한 일과 원예들의 역을 감해주는 것이었다.¹¹

복호보노환복기는 1868년에 무성서원의 복호와 보노가 삭감되었는데, 필암서원의 예로 다시 복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무성서원은 다른 일반서원과 달리 최치원을

8 이 불망비는 현재도 서원 안에 모셔져 있다.

9 소장(訴狀)을 관청에다 받치는 행위이다.

10 전라도관찰사 김성근의 서문에서 '서원의 터에 투장을 금지하고 원예의 역을 덜어주는 일로 읍품과 유장이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김성근의 서문에 나오는 표현에 근거하여 용어를 사용하겠다.

11 서원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정장 부분에 함께 수록되었다. 예를 들어 강당을 중수하고 최치원의 영정을 개모한 서호순의 공을 기리기 위해 비각을 세운 비용과 서원철폐령의 결과 복호보노가 삭감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서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과 재정 부분을 묶은 부분으로 보인다.

배향한 서원이기 때문에 복호 3결과 보노 30명, 원생 30명을 획급 받았다.¹² 하지만 1868년에 전국의 서원이 철폐되면서 그 영향으로 무성서원은 복호와 보노가 삭감되었다. 이에 1872년에 유림들은 호포와 부역 등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여 현감으로부터 11호의 포와 부역을 감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호포와 부역 면제를 해결한 것도 다행이라고 여긴 것도 잠시, 1878년에 필암서원은 복호와 보노를 전처럼 회복하였다. 무성서원의 유림들은 뒤늦게 이를 알고 필암서원에 통문을 보내 일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읍현감에게 동년 12월부터 필암서원의 사례로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품장을 올렸다.

그러나 유림들의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일이 해결되지 않자 태인현→전라감영→의정부로 품장을 올렸고, 영의정 이최응으로부터 승낙의 제움을 받아냈다. 무성서원의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현감과 관찰사에게 알렸고, 관찰사에게도 좋은쪽으로 잘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 고무되어 유림들은 다시 태인현감에게 품장을 올렸고, 1880년 1월 19일에 원장으로부터 “보노 30명 또한 일체 복구할 것”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의정부와 전라감영의 허가를 바탕으로 태인현감이 두 차례에 걸쳐 완문(完文)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복호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태인현감은 보노에 대해서는 아전(都吏)들에게 신칙하여 필암서원과 포충사의 전례대로 복구하라고 하였지만, 복호 3결은 윗선에서 해결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림들은 굴하지 않고, 다시 품장을 올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1880년 6월 7일에 의정부로부터 서원이 있는데 복호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영에서 별도로 해당 읍에 엄중히 신칙하여 추급한 뒤 일의 상황을 시급히 보고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일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서리 등은 이를 해결하지 않았고, 1881년 7월에 유림들이 다시 품장을 올리자 현감은 감영으로부터 획급을 받기 전까지 할 말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다 동년 12월 사이에 감영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태인현감은 이를 토대로 복호도 회복시켜 주었다.

12 강지혜, 「남원 노봉서원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2, 2013, 214쪽.

복호와 보노의 회복을 위한 일련의 사건들을 검토하면 무성서원의 유림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은 단언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영의정이었던 이최응의 결정이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이공최응불망비(李公最應不忘碑)’는 1882년 3월에 유림들이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서원지를 집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남아 거의 모든 문서를 여기에 실었고, 분량 역시 상당하다.

결국 복호보노환복기는 항목 자체는 1개밖에 안되지만 무성서원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쟁하여 쟁취하게 되었는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산찬사 장서기는 1872년에 안재호가 남학당의 중창과 이듬해에 시작된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감복하여 개인이 소장한 책 수 백권을 서원에 기증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기증한 책의 종류이다. 이를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안재호가 기증한 책 목록

분류	내용	종수
경부(經部)	주역구언해(周易具諺解), 서전구언해(書傳具諺解), 시전구언해(詩傳具諺解), 논어구언해(論語具諺解), 맹자구언해(孟子具諺解), 중용구언해(中庸具諺解), 대학구언해(大學具諺解), 소학구언해(小學具諺解), 춘추좌전(春秋左傳), 예기(禮記), 주례(周禮), 동래박의(東萊博議), 맹자서설(孟子序說), 대상예비(大喪禮備), 효경(孝經), 옥편(玉篇)	16
사부(史部)	통감요해(通鑑要解), 사요취선(史要聚選), 회헌안선생실기(晦軒安先生實記), 사기평림(史記評林), 홍사(鴻史)	5
자부(子部)	성리대전(性理大全), 기범언의(箕範衍義), 공자가어(孔子家語), 수학계몽(數學啓蒙), 대우씨전첩(大禹氏篆帖), 왕우군필첩(王右軍筆帖), 한문(韓文), 하서김선생필첩(河西金先生筆帖)	8
집부(集部)	고문전후집(古文前後集), 염락(濂洛), 두율(杜律), 당시(唐詩), 찬부(撰賦)	5
총 합계		34

그는 사부(四部)에 해당하는 주역구언해를 비롯한 경부 16개, 통감요해를 비롯한 사부 5개, 성리대전 등 자부 8개, 고문전후집 등 집부 5개를 기증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책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이 기록을 통해 1870년대에 최소 300부 이상의 책이 무성서원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원지는 크게 서발, 최치원의 행적, 서원의 개요와 제향인물, 사액서원의 전후 과정, 영정봉안 관련 내용, 중수기, 복호와 보노의 환복과정, 안재호의 장서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항목은 연액기사와 중수일기와 관련된 것이고, 복호보노환복기는 항목은 하나이지만 당시 남아 있던 문서의 개요와 그 처분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고, 제향인물의 경우 항목은 3개에 불과하지만 분량 자체는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시에는 현전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은 원 고문서가 원지에 일부 기록되어 전함으로써 당대 서원의 모습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울러 연액기사와 중수일기, 복호보노환복기 등은 다른 8개 서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원지의 가치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내용들을 콘텐츠의 원형으로 사업화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단지 원지의 번역에 머물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성서원원지 목록(武城書院院誌目錄)

원지 상(院誌上)

서문[序]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유상대 중수기(流觴臺重修記)

원지(院誌)

칠현 사적(七賢事蹟)

청액 사적(請額事蹟)

제문(祭文)

축문기(祝文記)

홀기(笏記)

영정 봉안시 정장(影幀奉安時呈狀)

영정 봉안 축문(影幀奉安祝文)

이안 축문(移安祝文)

중수기(重修記)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발문[跋]

유상대 비문(流觴臺碑文)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

청액소(請額疏)

연액례(延額禮)

각읍예부기(各邑例賻記)

원생 관문(院生關文)

영정 봉안 사적(影幀奉安事蹟)

영정 봉안 일기(影幀奉安日記)

원우 단확 중수기(院宇丹牖重修記)

환안 축문(還安祝文)

계원필경 개간기(桂苑筆耕開刊記)

지산처사 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

무성서원원지 상 목록(武城書院院誌上目錄)

서문[序文]

무성서원원지 서문[武城書院院誌序]

내가 어릴 때부터 문창후(文昌侯) 고운 최 선생이 우리 동방 문헌의 시초가 된다고 들었다.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20책을 보니 그 문장이 온 천하(華夷)에 이름을 떨치고, 치세에는 나가시고, 혼란할 때는 들어오시는 것은 참으로 만분의 일이나마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미 시대가 멀어지고 말은 사라져 발자취와 남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가만히 생각하다 크게 한탄하며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라고 말할 뿐이었다.

1883년(계미) 봄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는데 도내(道內)¹³ 태산현에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 있었다. 원유(院儒 ; 서원의 유생) 변길용(邊吉容)과 황기환(黃基煥)이 소매에서 두루말이 1권을 꺼내 보이며 나에게 묻기를 “서원에는 원지(院誌)가 없을 수 없고 원지는 목판에 새겨 오래도록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한 마디 말씀을 서문으로 써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자세를 가다듬고 말하기를 “나는 책임자가 아니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비록 그렇더라도 선생을 옛적부터 존경하며 그리워하기를 세상을 뛰어넘는 감회가 있소. 고사한다면 정성이 없는 게 아니겠소?”라고 답하였다.

이에 손을 씻고 두루말이의 본말을 살펴보았다. 『계원필경집』의 두 서문이 첫 머리 제일의(第一義)가 되어 선생의 성함과 호, 사실(事實), 문장, 도덕이 남김없이 모두 쓰여 있었다. 유상대 비문과 중수기(重修記) 또한 아득했던 모습을 심히 다 드러나 나같은 후학이 감히 거둬들여 말할 것이 없었으며, 이하에는 『무성서원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무성서원원지』에는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모시며 영천 신 공(신잠)을 함향(含享)하고, 불우현 정 공(정극인)·눌암 송 공(송세립)·묵재 정 공(정언충)·성재 김 공(김약목)·명천 김 공(김관)이 배향된 일, 칠현(七賢)을 제향(躋享)한 축문, 서원의 편액을 요청하는 상소와 왕의 허락을 받은 사적(事蹟), 사액(賜額) 될 무렵의 치유문(致侑文 ; 致祭文)과 연액(延額) 의절, 영정을 봉안(奉安)할 때 주고받은 통장(通章 ; 통문)과 정문 일기(呈文日記),

13 원문에는 성내(省內)이라고 되어 있다. 도(道)와 같은 개념이다.

『계원필경』을 간행한 사적, 서원의 터에 투장을 금지하고 원예(院隸 ; 서원의 노비)의 역을 덜어주는 일로 읍에서 아뢴 것[邑稟]과 유장(儒狀), 의정부와 영읍(營邑)¹⁴에서 제판(題判)한 전후 문서를 짓고 베끼는 사무와 담당한 유생들의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었다.

아! 선생의 시를 읽고, 선생의 문장을 암송하며 아직도 태산과 같이 선생을 우러러보고, 홍벽(弘璧)¹⁵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하물며 이 서원은 선생이 이은(吏隱)¹⁶하신 곳이 자 술 마시고 시를 읊은 지역이니 사우(祠宇)를 세워서 선생을 배향한 것은 옛날에 지방의 이름난 선비(鄉先生)가 죽으면 서원에서 제사 지내는 것과 같고, 현가(絃歌)가 끼친 교화는 자유(子游)가 다스린 무성 지역과 같다.¹⁷ 사액의 은전(恩典)을 받아 크게 선포하니 서원의 중대함이 더욱 어떠해지겠는가? 무성서원의 성쇠는 선생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지만, 우리 도의 운수와 성쇠는 무성서원의 보존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다. 이 『무성서원원지』를 저술하여 간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선생의 문장과 도덕에 대해서 숭상할 바를 알게 하여 선생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듯이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 사문(斯文)¹⁸을 일으켜 바로 세우고 무성서원에 귀의(歸依)한다면 무성서원의 다행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의 다행이고 만세(萬世)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것으로 이후 선생의 시를 읽고 문장을 외우는 여러 군자들에게 깊이 바라는 바이다.

1884년(갑신)¹⁹ 단오절(端陽節)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안동 김성근(金聲根)²⁰

-
- 14 감영이나 병영이 있는 고을로 여기에서는 전라감영을 뜻한다. 이후 전라감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15 큰 보배로운 구슬로 최치원이 남은 글을 뜻한다.
 16 낮은 관직에 몸담고 은자(隱者)처럼 산다는 뜻으로 최치원이 태산 태수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다.
 17 공자의 제자인 자유(子游)가 다스린 곳이 무성인데 ‘공자께서 무성에서 현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子之武城 聞絃假之聲)’라는 일화가 『논어』 양화편에 나온다. 여기에서 무성이라는 단어가 유래 되었다.
 18 유교문화를 뜻한다. 앞으로 사문(斯文)은 따로 역주를 붙이지 않겠다.
 19 원문에는 알봉군탄(關逢郡灘)으로 기재되어 있다. 알봉(關逢)은 고갑자에서 ‘갑(甲)’을 가리킨다. 군탄(君灘)은 고갑자에서 ‘신(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갑신, 즉 1884년에 해당한다.
 20 김성근(1835-1919) : 안동(安東) 김씨이고, 자는 중원(仲遠)이다. 1861년(철종 12)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성균관 대사성, 예조참판, 한성부 부윤 등을 거쳐 1883년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후 이조참판,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관찰사 김성근(자료제공: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 도서관)

원지 서문[院誌序]

1882년(임오) 가을 내가 태인현에 수령으로 부임하였는데 현은 대개 고운 선생께서 인애(仁愛)를 베푼 곳이며 또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만히 스스로 다행이라 생각하니 천년 뒤에도 비록 높은 산을 우리러 보듯이 현인의 행실을 본받더라도 유생들이 공자[孔夫子]에 대해 그분의 말을 암송하고 그리워하여 존경하고 사모하며 잊을 수 없는 것은 붓과 종이 사이에 남겨진 찌꺼기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죽은 양처보(陽處父)²¹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가능하겠나만 선비란 본디 백세(百世) 뒤에도 서로 감응하는 것이 있어 사람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데도 절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것이 이따금 그 사이에 있다. 이런 것들은 또한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을진저! 매번 밤기운이 청명하여 황홀하니 마

21 양처보(陽處父) :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조 문자가 숙예(叔譽)와 함께 구원(九原)을 구경하였는데, 조 문자가 말하기를 ‘여기 죽은 이들을 만일 살릴 수 있다면 내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하니, 숙예가 말하기를 ‘아마도 양처보(陽處父)일 것이다.’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치 선생의 거처로 들어가 어렴풋하게 모습을 뵈고 (선생의) 경계하고 일깨워주시는 말씀을 들은 듯하여 자못 사람들에게 비루한 마음이 싹 띄우지 않도다. 현가루[絃歌之室]를 돌아보니 마치 자유(子遊)²²가 공자를 모시고 나눈 문답(問答)이 부지런히 끊임없는 듯하다. 청녕헌(淸寧軒)²³을 바라보니 선생과 더불어 직접 몸소 교체하는 것이 마치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이 서로 번갈아가며 재상을 맡아도 법령이 한결같이 선생의 약속과 변함이 없는 듯하다.²⁴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고 느끼는 사이에 경계하여 깨우치고 흥기한 것이 모두 선생의 은혜이다. 마침 오셔서 인애의 유풍(遺風)인 곳이 되고, 마침 떠나서서 선생의 훈령을 모신 곳이 되었으니 이 땅이 선생과 연관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이 서원은 선생을 주향으로 하여 여섯 선생을 배향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명천 김공이다. 옛날 나의 문청공(文淸公)²⁵ 선조가 전라도를 순찰하실 때에 지나는 길에 방문하여 잠깐 이야기 하는 동안 오랜 벗이 된 듯하였다.²⁶ 내가 남쪽 지방을 다스리려 마침 이 지역에 왔으니 이 또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시대는 다르나 서로 감응하여 자연히 모여서 부응하게 하는 신묘함이 은은히 그 사이에서 알선하지 않겠는가? 어찌 멀다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대개 『무성서원원지』를 간행하는 것은 도를 수호하고 현인을 존송하는 성대한 일과 관계되는데 어찌 감히 서로 탄 마음을 품는 생각이 있겠는가? 그러나 근세 이래로 선비들

22 언언(言僊) : 언언은 자유의 본명으로 공자의 제자이다. 그가 무성에서 읍재를 지내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23 청령헌(淸寧軒) : 태인 동헌의 이름이다. 이는 1816년(순조 16) 4월에 건립한 것으로, 팔작지붕이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75호이다.

24 현재 태인 수령인 자신이 마치 태산태수 최치원과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것 같다는 의미이다. 『사기(史記)』, 「조상국세가(曹相國世家)」

25 정철(1536-1593) : 연일(延日) 정씨로, 자는 계함(季涵),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1561년(명종 16)에 진사시에서 장원하였고, 이듬해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그는 1581년부터 1582년까지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으므로 정이원이 이렇게 기재한 것이다.

26 길가에서 처음 만나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랜 벗처럼 여기게 된다는 말로, 한번 만나보자마자 의기투합하여 지기(知己)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킨다.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만난 사이처럼 생소하기만 하고,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하면서도 오랜 옛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바로 상대방을 알고 모르는 차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사기(史記)』, 「추양열전(鄒陽列傳)」)

의 자취가 바르지 않아 작은 새가 매의 날개를 찢고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리는 폐단이 이처럼 끊이지 않으니 여러 군자들이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우리가 선생의 당(堂)에 축일을 드릴 때 선생의 문하에 종사하는 자들은 모두 선생의 무리이다. 거의 백세 뒤에도 염완입나(廉頑立懦)²⁷ 할 수 있으니 선생의 위풍과 운치가 영구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지(院志) 또한 장차 더불어 유구히 이어져 내려와 꺾이지 않고 스스로 간행 될 것이니 그렇지 않겠는가?

『무성서원원지』 가운데 있는 조항의 구절마다 하나라도 선생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당 공경하고 삼가는 데 겨를이 없고 『무성서원원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거듭 기록할 필요가 없다. 선생의 문장과 학술이 당세에 발휘되어 지금 후학들을 깨우쳐 후천(後天)의 수명²⁸을 헤아리는 것은 앞 사람들이 잘 갖추어 놓았으니 어찌 견해가 얕고 학문이 미천한 내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재어 만에 하나라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선생의 성은 최이며 휘는 치원(致遠)이고 그 호는 고운(孤雲)이니 문창(文昌)이 시호이다.

1884년(갑신) 음력 6월[季夏] 상순[上澣] 지현(知縣 ; 태인현감) 정이원(鄭履源)²⁹이 서문을 짓다.

27 염완입나(廉頑立懦) : 맹자가 “백이(伯夷)의 풍도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는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는 입지(立志)하게 된다.” 라는 말을 축약한 것이다.(『맹자(孟子)』, 「만장(萬章)」 하)

28 후천(後天)의 수명 : 후천(後天)의 수명은 하늘보다 수명이 길다는 뜻이다. 이백(李白)의 악부(樂府)에 “하늘보다 뒤에 늙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쇠해짐을 본다.(後天而老凋三光)”고 표현하였다.(『이태백집(李太白集)』 권2 비룡인(飛龍引))

29 정이원(1843-1899) : 연일(迎日) 정씨이고, 자는 공여(兢汝)이다. 1876년(고종 13) 진사시에 합격하고, 1885년 중광사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1882년 8월부터 1884년 7월까지 태인현감으로 재임하였다. 이정직의 후임으로 도임하였고, 1885년에 ‘현감 정후이원 영세 불망비(縣監 鄭侯履源 永世 不忘碑)’가 현재의 피향정 경내에 세워져 있다.

발문(跋文)

기양연(奇亮衍) 발문(跋文)

원지(誌)라는 것은 서원의 역사이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시간 순대로 편찬하는 취지는 제향위(諸享位)의 실적(實蹟)과 서원의 흥망성쇠를 원지(院誌)를 펼치면 환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니 그런 연후에야 원지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원에는 고운 최 선생과 여섯 선생이 배향되었는데, (고운) 선생은 신라 말에 우뚝하게 나와서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가서 학문을 밝혀 인현(仁賢)의 교화가 아직도 여윌 있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뒤에는 대개 저쪽에서 배운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 수 천리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질서정연해져 중국과 병칭(並稱)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을 비록 집집마다 제사를 받드는 것도 괜찮지만 필시 태산의 무성(서원)에 배향된 것은 까닭이 있다.

선생께서 일찍이 이 현에 읍재(邑宰)로 오셨으니 곧 옛날에 동향(桐鄉)³⁰이라고 할 만 하며, 유풍(遺風)과 좋은 풍속이 아직도 남았으니 선생의 혼령을 어찌 태인에서 간절히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선생의 유애(遺愛)가 사람들 마음에 남아 설과 삼복(三伏) 및 납향(臘享)³¹에 아직도 마을 늙은이들을 분주히 다니게 하고 하물며 멀고 가까운 유생[章甫]³²이 예법을 따라 일을 치르며, 선생의 도를 외우고 선생의 책을 읽으며 나아가고 물리감에 우러러 배례(拜禮)하여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듯 존경하고 사모하기를 하루같이 하니 선생은 필시 저승에서 빙그레 웃으실 것이다.

30 동향(桐鄉) : 중국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 북쪽의 지명으로 춘추 시대 동국(桐國)이다. 한(漢)나라의 주읍(朱邑)이 동향의 색부(耆夫)가 되어 소송과 부세를 맡아 고을을 잘 다스렸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고 사당을 세워 받든 것에서 유래한다. 이후 형벌을 행하지 않더라도 아전이 두려워하며 백성은 잘 따르는 고을을 지칭한다.

31 납향(臘享) :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를 뜻한다.

32 장보(章甫) :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먼저, 중국 은(殷) 나라 시대에 머리에 쓰던 예관(禮冠)을 가리킨다. 공자(孔子) 이후로는 유관(儒冠)으로 쓰였다. 다음으로, 유생이나 선비를 의미한다. 공자(孔子)가 장보를 쓰자 후세 선비들이 따라 쓰면서 '장보를 쓴 남자'가 명사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장보를 쓴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유생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으로 장보(章甫)는 유생으로 통칭하겠다.

서원에는 예부터 원지가 없었고, 수 백 년 동안 전해 오는 원중 사적(院中事蹟)을 베낀 것도 오래되어 쉽게 이지러져 마침내 다 없어질 것을 염려하였다. 원생(院儒) 송정순(宋程淳)·김형식(金亨植)·우재호(禹在鎬)·장석배(張碩培)가 단연코 자신들의 임무로 여겨 끊어지고 흩어져 남은 것들을 수습하였다. 옛것은 보존시키고 새 것은 보태 널리 헤아려 보고 넓게 실어 모아서 한 책을 만들고 간행하여서 오래도록 전해지도록 도모하였다. 일이 장차 끝나가므로 기문(記文)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현재 진신 집사(縉紳執事)³³로 서원에 이름을 올려 무릇 밀려드는 서원의 일로 감히 능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사양할 수가 없어 내 외람됨을 잊고는 이와 같이 말하는 바이다.

1884년(갑신)³⁴ 5월 하순[下澣]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정읍현감 기양연(奇亮衍)³⁵ 발문[跋]을 짓다.

33 진신(縉紳) : 관리(관원)을 뜻하고, 집사(執事)는 각종 의식에서 주관하거나 주관자를 도와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신집사는 관리로서 각종 의식을 주관하는 인물을 뜻한다. 무성서원은 1868년의 서원철폐령으로 전라도에서는 무성서원과 필암서원, 포충사만 남자 그 조직이 확대되었고, 1876년부터 1886년까지 현감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기양연이 바로 그 중 한명이었다.

34 원문에는 알봉군탄(閼逢涓灘)으로 기재되어 있다. 알봉(閼逢)은 고갑자에서 '갑(甲)'을 가리킨다. 군탄(涓灘)은 고갑자에서 '신(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합하면 갑신년이다.

35 기양연(1827-1895) : 행주(幸州) 기씨이고, 자는 자민(子敏)이다. 1867년(고종 4)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하였다. 이후 전적, 정언, 예조정랑, 장령, 사복시정, 부수찬 등을 거쳤다. 이후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 되자 삼정책(三政策)의 상소를 올리고 고향인 장성에 은거하였다.

신기조(申岐朝) 발문(跋文)

서원에 원지(畵)가 있는 것은 나라에 역사가 있고, 집안에 족보가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서원이 있으면서 원지가 없을 수가 있겠으며 원지를 간행하지 않고서 또한 어찌 오래도록 전할 수 있겠는가? 본원(本院)이 매우 빈궁하고 관각하는 일은 또 규모가 커서 원지를 찍지(印字) 못하자 많은 선비들이 근심하며 탄식하면서도 겨를 없이 부지런히 힘써 지금에서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아! 우리 동방의 사도(師道)가 다시금 밝아졌고 호남의 사기(士氣)가 부흥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나는 매위(靺韞)³⁶의 틈에 끼어 이미 유림과 함께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도덕과 문장의 근원을 엿보겠는가? 비록 그러하더라도 봉황과 지초(芝草)를 보면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상서로 여기고, 맑게 갠 하늘에 맑게 비친 해는 노예라도 또한 그 청명(淸明)함을 안다.³⁷ 고운 선생과 같은 이는 북쪽 중원에서 유학하여 칭송이 사방으로 퍼졌다. 동쪽 고국(故國)으로 돌아 오서는 당시에 높은 직위에 등용되었으나 도리어 용감히 물러나 몸을 깨끗이 하고 은거하여 도덕의 종장(宗匠)이 되었으므로 술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 법인데 못 알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생을) 존경하여 우러러 보았다.³⁸

올해 봄에 (내가) 남쪽 도(道)의 한 작은 현에 관리가 되었고 외람되이 서원의 임원도 되었다.³⁹ 서원은 지금 전주의 치소 남쪽의 태인현에 있는데 옛날에는 시산(詩山)으로 불리었다. 공께서 옛적 은거하던 무렵에 계시면서 신묘한 은택을 남기셨으니 (그곳은 선생이) 잔을 띄어놓고 시를 읊으며 유유히 생활하시던 곳이다. 이로부터 어느덧 비로소 사

36 매위(靺韞) : 고위 무관을 지칭한다.

37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여취군서(與崔羣書)」에 “봉황 지초를 보면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아름다운 상서(祥瑞)로 여기고, 청천백일을 보면 천한 종들도 청명하다는 것을 안다.(鳳凰芝草 賢愚皆以爲美瑞 青天白日 奴隸亦知其淸明)”라는 말이 나온다.

38 송(宋)나라 소백온(邵伯溫)의 『문견전록(聞見前錄)』 권1에 어사중승(御史中丞) 뇌덕양(雷德驥)이 남의 집을 강제로 차지하고 뇌물을 거두어들이는 조보(趙普)의 비행에 대해 탄핵하니 상이 성을 내어 꾸짖기를 “술과 냄비에도 오히려 귀가 있는데 너는 조보가 우리의 사직신(社稷臣)이란 것을 아직 못 들었는가.(鼎鑪尚有耳 汝不聞趙普吾之社稷臣乎)” 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이후로 귀가 있어도 못 알아 듣는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39 이 서문을 쓴 신기조가 흥덕현감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태인 인근의 흥덕현감으로서 무성서원의 임원이 되었다. 즉 1871년부터 1886년까지 무성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것을 뜻한다.

(祠)가 건립되고 사는 원(院)이 되었으며 원은 다시 사액의 은전[恩額]을 입었으니 어찌 선생의 도덕이 장구하면서 더욱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선생을 배향하였는데 모두 문학 안에서 뚜렷이 빛이 나며 당대 큰 인물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귀중한 원지에 실린 것은 어떠 하겠는가? 서원을 방문하는 날에 원지(院誌)를 공경히 열람하였는데 변변치 않는 등사본이 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무릇 지(誌)라는 것은 알린다는 것이다. 원지가 있어야 장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록된 것을 알아 그 서원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원지가 있지 않으면 어찌 알겠는가. 원지 때문에 전해지고 전해져 먼 후대까지 이어져 사라지지 않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비록 금석(金石)에 새기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사라질까 근심되나 고금을 고증하여 후학을 일깨워 주는 방법에 어찌 이것을 전하는 것 만하겠는가? 오호라! 도는 멀어지고 성인의 말씀은 없어져 문헌에서 고증할 수도 없는 것이 이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니 감히 삼가지 않겠는가? 한탄을 머금으며 돌아오며 다만 마음에 걸렸다. 재유(齋儒) 김영렬(金永烈)·송희옥(宋曦玉)·배기만(裴基萬)이 내가 원임(院任)이라 하여 찾아와 상의하기를 “또 그대로 두면 얼마 안 가서 원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후세의 사람들이 비록 옛 영광과 아름다운 덕행을 찾으려 해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좋은 말에 절하고 동의하며 호응하였다. 이윽고 결의하고 판각하는 공역을 시작하여 문장을 부탁해오자 두려워하며 거절하길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니 내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여러 번 요청하므로 이와 같이 짓는다. 그러나 선생의 도덕과 원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찰사[巡相閣下] 김 공(金公)⁴⁰의 서문에 갖추어 있으니 어찌 감히 만분의 하나라도 군더더기를 덧붙이겠는가? 다만 여러 분들이 어진 이를 어진 이로 대하고 일에 힘쓰는 행동에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마침내 이와 같이 쓴다.

숭정(崇禎) 기원후 다섯 번째 1884년(갑신) 윤달 든 여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行) 흥덕현감(興德縣監) 신기조(申岐朝)⁴¹가 삼가 발문을 쓰다.

40 김성근을 가리킨다.

41 신기조(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팔도총록(八道總錄)』에 의하면 1883년(고종 20)에 흥덕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1⁴²

『예기』에 이르기를 “단술[醴酒]이 맛이 좋긴 하지만 제사 때에 현주(玄酒)⁴³와 명수(明水) 같은 물을 윗자리에 놓는 것은 물이 모든 맛의 근본임을 중시하려고 해서이다. 각종 화려한 무늬의 옷감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제사 때에 거친 삼베로 동이를 덮는 것은 부녀자들이 하는 길쌈질[女功]의 시초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려 해서이다.”⁴⁴라고 하였다. 옛날의 군자(君子)가 반드시 그 근본과 시초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았다.

우리 동방에 문장이 나와서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운(孤雲) 최공(崔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우리 동방의 선비로서 북쪽으로 중국에 유학(遊學)하여 문장으로 천하에 명성을 떨친 것도 최공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최공의 글 가운데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계원필경(桂苑筆耕)』과 『중산복궐집(中山覆篋集)』 2부(部)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면 이 2부의 서책이 또한 우리 동방 문장의 근본이요 시초라고 할 것이다.

글을 숭상하는 우리 동방의 풍조가 우리 조선[我朝]에 이르러서는 더욱 빛나고 무르익어 집집마다 연허(燕許)⁴⁵와 조유(曹劉)⁴⁶가 배출되면서 시와 문으로 문집을 이룬 것이 집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최공의 글을 아는 사람은 드물기만 하였다.

내가 일찍이 근대 사람이 편찬한 『동국서목(東國書目)』을 보니 『중산복궐집』이 실려 있기에 널리 구해 보았지만 끝내 얻지 못하였다. 다만 『계원필경』 20권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소장해 왔으므로 내가 어려서부터 진귀한 글로 알고서 음미해 왔다. 그러나 간혹

42 한국고전종합DB에 『계원필경집』 원문과 해석본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윤문하여 수록하였다. (<https://db.itkc.or.kr/dir/>)

43 현주(玄酒) :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에 쓰는 맑은 찬물이다.

44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있는 내용이다.

45 연허(燕許) : 당 현종대의 명신인 연국공(燕國公) 소정(蘇頌)과 허국공(許國公) 장열(張說)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사람은 문장이 뛰어나 ‘대문장’을 일컫는 의미로 ‘연허대수필(燕許大手筆)’이 나왔다.

46 조유(曹劉) : 위대(魏代) 조식(曹植)과 유정(劉楨)을 가리키는 말이다. 두 사람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록 박아(博雅)⁴⁷하고 글을 잘하며 옛것을 좋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그 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리고 보면 이 글이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글이 동방에 전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현주(玄酒)를 태실(太室)에 진설하지 않는 것과 같고, 거친 삼베로 제사용 술동이를 덮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백성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간혹 공의 글이 모두 변려(駢儷) 사륙문(四六文)⁴⁸으로서 옛 작자(作者)의 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한 시기가 당(唐)나라 의종(懿宗)과 희종(僖宗) 연간이었는데, 당시에 중국의 글이 변려문을 전적으로 일삼았던 것을 감안할 때 공이 그 풍조를 따랐던 것은 원래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공이 지은 글을 보면 왕왕 화려하면서도 들뜨지 않은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황소(黃巢)⁴⁹에게 보낸 격문(檄文) 1편만을 보더라도 기운이 굳세고 뜻이 곧으니 결코 교묘하게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 것이 아니요, 공이 지은 시 역시 평이(平易)하고 우아(優雅)하니 만당(晩唐)의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더욱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대개 명수(明水)와 거친 삼베 같은 바탕 위에 단술의 맛과 화려한 옷감의 아름다움을 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어찌 보배로 여겨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공이 중국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군부(軍府)에 들어갔으니 이것만으로도 벌써 당시에 명성을 떨쳤다고 할 것인데, 공은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떠나오면서 마치 흰 신발을 벗어 버리듯 하였다. 그 뒤 동방에 돌아와서는 한원(翰苑)⁵⁰에 오르고 병부 시랑(兵部侍郎)을 거쳐 아찬(阿飡)에 이르렀는데, 아찬은 신라의 대관(大官)이다. 게다가 현달(顯達)할 길이

47 박아(博雅) :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하다는 뜻이다.

48 변려(駢儷) 사륙문(四六文) : 한대(漢代) 후기에 시작되어 남북조와 당나라때 유행한 문체이다. 문장이 4자와 6자를 기본으로 대구(對句)로 이어진다. 변(駢)은 한 쌍의 말이 마차를 끈다는 의미이고, 여(儷)는 부부라는 뜻이다.

49 황소(黃巢, 미상-884) : 당(唐) 나라 말기에 농민군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881년에 도성(都城)인 장안을 점령하여 스스로 황제까지 올랐다. 883년에 당은 돌궐계 유목 부족인 사타(沙陀)의 도움으로 그를 몰아내고, 이듬해 황소는 자결하였다. 고병(高駢)이 도통사(都統使)가 되어 황소를 토벌하는데 최치원이 종사관(從事官)으로 대신하여 격문(檄文)을 지어서 보냈다.

50 한원(翰苑) : 한림원이나 예문관 등 임금의 말과 명령, 외교문서를 짓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문장에 능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담당하였다.

바야흐로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은 또 스스로 산림(山林)의 적막한 곳으로 나아가 배회하며 그 몸을 마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그 시대가 모두 뜻있는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군자(士君子)가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는데 출처(出處)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출처에서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은 현자(賢者)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자가 지은 글이라면 당연히 세상에 전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인데, 더군다나 그 글이 저토록 걸출하고 또 동국(東國) 문장의 근본과 시초가 되는 데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전라도 관찰사(湖南觀察使) 서유구(徐有渠)⁵¹은 바로 내가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하며[博雅] 글을 잘하며 옛것을 좋아하는 자라고 칭한 그 사람이다. 내가 이 글을 소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얼른 가져다가 교열(校閱)한 뒤에 자기 봉록(俸祿)을 내어 활자로 인쇄해서 수십 백 본(本)을 만들어 널리 전파하려 하면서 “이 글이 동국(東國)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아! 근본과 시초를 잊지 않는 것은 백성에게 후덕함을 가르치는 것이요, 현인(賢人)을 표장(表彰)하는 것 이야말로 백성에게 착한 일을 권면하는 것이다. 서공(徐公)의 마음 씀이 이와 같으니, 그가 호남에서 행하는 정사(政事)가 어떠할지를 또한 알 수가 있다.

역(役)이 완료된 뒤에 서공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그대가 바로 이 글을 전하였으니, 지금 한마디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에 내가 사양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최공 행적의 본말(本末)과 이 글의 고증(攷證) 자료 등에 대해서는 서공의 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

1834년(갑오) 9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풍산(豐山) 홍석주(洪奭周)⁵²가 서문을 짓다.

51 서유구(1764-1845) : 대구(大丘) 서씨이고, 자가 준평(準平)이다. 1790년(정조 14)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순창군수, 부제학, 이조판서, 대제학, 전라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가학을 이어 농학(農學)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가 저술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는 농업서에 대한 집대성으로 평가 받는다.

52 홍석주(1774-1842) : 풍산(豐山) 홍씨이고, 자가 성백(成伯)이다. 1795년(정조 19)의 전강(殿講)에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그 해 춘당대문과에 급제해 사옹원직장, 정언, 이조참의, 병조참판, 충청도관찰사,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계원필경 서문[桂苑筆耕序] 2⁵³

『계원필경집』 20권은 신라의 고운(孤雲) 최공(崔公)이 당나라 회남(淮南) 막부(幕府)에 있을 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응하여 지은 것으로 동방으로 돌아온 뒤에 직접 편집하여 조정에 표문(表文)을 올려 바친 것이다.

공의 이름은 치원이요, 자는 해부며, 고운은 그의 호이다. 호남(湖南) 옥구인(沃溝人)으로,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다. 나이 12살에 상선(商船)을 타고 중국에 들어가서 18세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으며, 한참 뒤에 을수 현위(溧水縣尉)에 임명되었다가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었다.

그때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났는데, 제도행영도통(諸道行營都統) 고변(高駢)⁵⁴이 회남에 막부를 열고는 공을 불러 도통순관(都統巡官)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표(表)·장(狀)·문(文)·고(告) 등 모든 글이 공의 손에서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황소의 죄를 성토했던 격문(檄文)은 천하에 전승(傳誦)되었다. 공의 공적이 조정에 보고되어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에 제수되고 비어대(緋魚袋; 관복)를 하사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에 국신사(國信使)⁵⁵에 충원되어 동방으로 돌아와서 헌강왕(憲康王)과 정강왕(定康王)을 섬기며 한림학사(翰林學士)와 병부시랑(兵部侍郎)이 되고 외방으로 나가 무성태수(武城太守)⁵⁶가 되었다. 진성왕(眞聖王) 때에 가족을 이끌고 강양군(江陽郡) 가야산(伽倻山)으로 들어가 생을 마쳤는데, 그의 묘소는 호서(湖西)의 홍산(鴻山)에 있다. 어떤 이는 공이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지만 이는 허망한 말이다.

대저 바닷가의 외진 지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살이하는 것을 쉽게 얻었으며[拾芥]⁵⁷, 끝내는 문장으로 한 세상을 울리면서 동시(同

53 한국고전종합DB에 『계원필경집』 원문과 해석본이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내용을 윤문하여 수록하였다. (<https://db.itkc.or.kr/dir/>)

54 고변(高駢, 821-887) : 당(唐) 나라의 절도사로 황소(黃巢)의 난을 평정한 인물이다. 말년에 신선술에 빠져 군무(軍務)를 여용지(呂用之)에게 맡기고 지내다가 부장인 필사탁(畢師鐸)에게 살해당하였다.

55 국신사(國信使) : 국가에서 보내는 사신단이다.

56 무성태수(武城太守) : 태산태수 즉, 태인의 태수를 의미한다.

57 ‘티끌을 줍는 일’로 명예나 부귀 등을 쉽게 얻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時)에 빈공(賓貢)⁵⁸한 사람들이 아무도 앞을 다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참으로 호
걸스러운 선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막부에 몇 년 동안 기거하면서 고변이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과 여
용지(呂用之)⁵⁹와 제갈은(諸葛殷)⁶⁰ 등이 허탄하고 망녕되어 반드시 패망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초연히 자기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引嫌] 떠나갔다. 떠난 뒤 3년 만에 회남(淮
南) 지역에서 난리가 일어났는데, (공은) 또 기미(幾微)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명철한 군
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인격이나 그 문장으로 보나 후세에 전해지
도록 해야만 할 것이요 절대로 그대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라왕에게 올린 표문에 의거하면, 이 문집 이외에 『금체부(今體賦)』 1권, 『금체시(今體
詩)』 1권, 『잡시부(雜詩賦)』 1권, 『중산복궤집(中山覆篋集)』 5권 등이 또 있다. 그리고 『신당
서』 <예문지(藝文志)>에 따르면 『계원필경』 20권과 문집 30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전하지 않고 오직 이 『계원필경집』만 여러 차례 인행(印行; 서
적 등을 인쇄하여 퍼냄)되었는데, 판각(板刻)은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답본(搨本; 비석 등
의 문자를 탁본하는 것) 또한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계사년(1833) 가을에 내가 호남을 안찰하며 순시하다가 무성(武城)에 이르러 공의 서
원을 배알(拜謁)하고는 석귀(石龜)와 유상대(流觴臺) 사이를 배회하면서 유적을 둘러보노
라니 감개가 새로웠다. 그때 마침 연천(淵泉) 홍공(洪公; 홍석주)이 이 문집을 부쳐 주면
서 말하기를 “이것은 천 년 가까이 끊어지지 않고 실처럼 이어져 온 문헌이다. 그대는 옛
글을 유통시킬 생각이 없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큰 구슬을 얻은 것처럼 기쁜 한편

58 빈공(賓貢) : 당대(唐代)에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賓貢科)를 의미한다. 특히, 신라
와 발해인들이 많이 합격하였다. 875년에 발해 오소도(烏昭度)가 신라 이동(李同)을 제치고 수석을 차지
하자, 최치원은 이를 “일국의 수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며 치욕스럽게 여겼다. 906년에는 신라의 최언
위(崔彦弼)가 오소도의 아들인 오광찬(烏光贊)보다 상위에 합격하자 오소도가 오광찬을 최언위보다 높게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처럼 신라와 발해의 유학생들이 빈공과에서 순위로 다뤘지만
최치원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59 여용지(呂用之) : 당(唐) 나라에 대대로 거간꾼 노릇을 하다가 고변(高駢)에게 발탁되어 참모가 되었다. 고
변이 신선술에 빠진 뒤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고변이 필사탁(畢師鐸)에게 죽자 도
망갔다가 잡혀 양행밀(楊行密)에게 목이 잘렸다.

60 제갈은(諸葛殷) : 여용지와 함께 고변에게 발탁된 인물이다.

으로,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질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얼른 교정하여 취진자(聚珍字)로 인쇄한 뒤에 태인현(泰仁縣)의 무성서원(武城書院)과 합천군(陝川郡)의 가야사(伽倻寺)⁶¹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아! 명주(名酒)가 있는 동네에는 반드시 두강(杜康)⁶²의 이름을 내걸고, 명검(名劍)의 칼날에는 반드시 구야(歐冶)⁶³의 이름을 표기하니, 이는 그 근본과 시초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 오는 우리 동방의 시문집들은 이 문집을 개산(開山) 비조(鼻祖; 시조)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집이 또한 동방 예원(藝苑)의 근본이요 시초라고 할 것이니, 어찌 이 문집이 닳아 없어지는 대로 그냥 놔두고서 보존하기를 도모하지 않아서야 될 일이겠는가?

공이 동방으로 돌아온 뒤에 저작한 글은 흩어져 없어져서 지금 전하는 것이 없다. 다만 범궁(梵宮)⁶⁴과 사묘(祠廟) 사이에서 수풀을 헤치고 이끼를 긁어내면 그래도 십여 편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 원집(原集)에 붙여서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인쇄해 보고 싶은 생각을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으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역사를 상고해 보면, 당 희종(唐僖宗) 중화(中和) 2년(882, 현강왕8) 정월에 왕탁(王鐸)이 고변을 대신하여 제도행영도통(諸道行營都統)이 되었고, 5월에는 고변을 시중(侍中)으로 올리고서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를 파직하였는데, 고변이 병권(兵權)을 잃은 데다가 이권(利權)까지 잃게 되자, 팔을 걷어붙이고 크게 매도하면서 표문을 올려 스스로 호소하였는데 그 언사(言辭)가 불손하였으므로 상이 정전(鄭畋)⁶⁵에게 명하여 조서(詔書)를 작

61 합천군(陝川郡)의 가야사(伽倻寺) : 원문에는 가야사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합천군 가야산의 해인사(海印寺)를 의미한다. 최치원이 만년에 이곳에 은거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62 두강(杜康) : 동주(東周) 시대 낙양(洛陽) 일대의 주신(酒神) 두강(杜康) 신화와 관련 있다. 유명한 술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63 구야(歐冶) : 춘추시대 월(越) 나라 사람으로 칼을 잘 만들었다고 한다. 월왕(越王)을 위해 거궤(巨闕)·담로(湛盧)·승사(勝邪)·어장(魚腸)·순구(純鉤)의 5검을 만들고, 초왕(楚王)을 위해 용연(龍淵)·태아(泰阿)·공포(工布)를 만들었다고 한다

64 범궁(梵宮) : 범천왕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절 혹은 불당을 총칭하는 말이다.

65 정전(鄭畋) : 당(唐) 나라의 정치인으로 처음에 번진막부(藩鎮幕府)에서 관리 생활을 하다가 조정으로 들어와서 호부시랑(戶部侍郎), 병부시랑(兵部侍郎), 문하시랑(門下侍郎),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 재상(宰相) 등을 역임하였다.

성해서 준열히 꾸짖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문집에 나오는 <시중에 올려 준 것을 감사하는 표문[謝加侍中表]>을 보면, 겸손한 말로 인구(引咎)했을 뿐이요, 격분하거나 발만(勃謾)한 언사는 한마디도 없다. 또 <선위하는 조서를 내린 것을 감사하는 표문[謝賜宣慰表]>을 보면 “우리러 윤음(綸音)을 살펴 보건대, 신의 부족한 정사를 매우 가상하게 여기시어 군사들이 단합하고 백성들[黎庶]이 편안하다고 하다.”고 하였다. 황제가 이해하고 위로하며 장려해 준 것이 이처럼 은근하고 진지하기만 하였으니, 그렇다면 역사에서 말한 바 “조서를 작성해서 준열히 꾸짖게 하였다.[草詔切責]”라고 한 것은, 당시의 실록(實錄)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상고해 보건대, 중화(中和)의 기년(紀年)은 4년으로 끝나는데, 공이 신라왕에게 표문을 올린 연월(年月)을 보면 중화 6년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개 공이 중화 4년 10월에 배를 타고 항해하여 이듬해 봄에 비로소 신라에 도착하였고, 또 그 이듬해에 이 문집을 엮어 올렸던 사정을 감안할 때, 그 1년 전에 광계(光啓)로 개원(改元)한 사실을 어찌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1834년(갑오) 7월 보름에 달성(達城) 서유구(徐有渠)는 호남포정사(湖南布政司) 관풍헌(觀風軒)⁶⁶에서 짓다.

66 관풍헌(觀風軒) : 관풍각을 의미한다. 관풍각은 관찰사가 민정과 풍속을 살피던 누각으로, 규장각 소장 「전주지도」를 보면 선화당 동쪽에 있었다. 중층의 누각형태로 팔작지붕으로 묘사되었으며 누각에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전면에 있고, 누각 수위에는 난간이 시설되어 있다.(전주시·전라감영복원재창조위원회, 『천년의 시간을 읽다-전라감영 복원백서』, 전주시, 2015, 38쪽) 2020년 현재 복원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유상대비문(流觴臺碑文)

태인군(泰仁郡)은 바로 신라의 태산군(泰山郡)이다. 이곳은 문창후(文昌侯) 최공(崔公)이 옛날에 태수로 재직한 곳이다. 관아의 남쪽 7리쯤 되는 곳에 울퉁불퉁한 바윗돌이 있고 그 바위 아래로 강물이 휘돌아 흐르는데, 문창이 매번 여기에서 술잔을 띄우고 노래하며 일소(逸少)의 고사⁶⁷를 흉내 냈다고 지금도 부로(父老)들이 전하며 고사(故事)로 삼았다.

그 누대도 세월이 오래 흐름에 따라 황폐해지고 말았는데, 나의 벗인 조 사군(使君)⁶⁸ 자직(子直 ; 조상우)이 정사를 행하는 여가에 그 누대 위에서 소요하다가 먼 과거의 일에 대한 감회가 몽클 솟아오르자 바위를 쌓아 증축한 뒤에 작은 비석을 세워 기념하고는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하였다. 왕년에 내가 풍악(楓岳) 아래 고을⁶⁹에서 재직할 적에 신선의 굴택(窟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을 한번 수식(修飾)해 보려고 생각하였으나 미처 틈이 없었는데, 자직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생각건대, 선생은 태어나서 별이 일주(一周)하는 나이⁷⁰에 바닷길로 만리 멀리 중국에 건너갔다. 그리하여 약관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대당(大唐)의 과거에 급제한 뒤에 상대(霜臺 ; 어사대)를 밟고 금문(金門 ; 대궐의 문)에 들어갔으므로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선생을 알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원문(轅門 ; 군영)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서는 방패에 먹을 갈아 소금 장수인 노적(老賊)⁷¹으로 하여금 닢이 달아나고 담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야말로 100만 군사보다도 낫다는 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뛰어난 재질과 성대한 명성을 지니고서 몸을 거두어 동쪽으로 돌아왔으니 쓰고 남은 찌꺼

67 일소(逸少) : 일소는 진(晉) 나라 왕희지(王羲之, 321-379)의 자이다. 왕희지가 명사 42인과 함께 회계산(會稽山)의 난정(蘭亭)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지은 일을 말하는데, 왕희지가 지은 <난정기(蘭亭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68 사군(使君) : 임금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태인현감으로 재직할 것을 의미한다.

69 풍악(楓岳)은 금강산이고, 풍악의 아래 고을은 고성군을 의미한다. 즉, 조지겸이 1682년 당시 고성군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숙종실록』 권 37, 8년 4월 27일 갑진

70 12세이다.

71 황소를 의미한다.

기만 끄집어내 활용했어도 한 나라를 유지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매자진(梅子眞)⁷²처럼 동묵(銅墨)⁷³의 지위에 침륜(沈淪)했는가 하면⁷⁴ 끝내 세상 밖에서 떠돌면서 선문(羨門)⁷⁵의 무리에 자신을 의탁하였다. 어째서인가?

아! 공이 세상에 태어난 그 시운이 불우해서 중국에 들어가서는 난리에 휩싸였고 고국에 돌아와서는 위망의 조짐이 보였으므로, 도를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한 몸도 보전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표연히 멀리 떠나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혼란한 세상을 벗어났던 것이었으니, 홍류(紅流) 한 절구(絕句)를 읊다 보면 거듭 그의 뜻을 탄식하며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상해 보건대, 그는 이곳에서 정치 없이 배회하시곤 했을 것이니[婆娑徜徉] 감개(感慨)하여 계승하는 것이 어찌 다만 면앙(俛仰) 간의 묵은 자취뿐이겠는가. 공의 청풍(淸風)과 일운(逸韻 ; 고상한 정취)이 온 우주 사이에 흘러넘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공의 지취(志趣)를 아는 자는 아마도 드물 것이다. 대저 어떤 지역이 중하게 되고 유명해지는 것은 일찍이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난정(蘭亭)의 무림(茂林)도 일소(逸少)를 만나지 않았다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나 역시 “이 (유상)대의 수석(水石)도 문창(文昌)을 만났기 때문에 비로소 드러났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1천 여 년이 지나서 또 자직(子直)을 만나 증수(增修)하고 드러내 찬양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그 일을 행할 책임자를 지금까지 기다려서 된 일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자직의 뒤를 이어서 증수할 책임자가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승정 기원후(紀元後) 15년⁷⁶ 통정대부(通政大夫) 행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조

72 매자진(梅子眞) : 한 대(漢) 나라 사람으로 신선도를 배워 절강성(浙江省) 여요현(餘姚縣) 사명산(四明山)에 은거 하였다고 한다.

73 동묵(銅墨) : 지방 수령이 차는 동인(銅印)과 묵수(墨綬)를 말한다.

74 최치원이 외관적으로 고을 수령이 된 것을 말한다.

75 선문(羨門) : 고대 선인이었던 선문자고(羨門子高)를 가리킨다.

76 승정 기원후 15년은 1659년(효종 10)이다. 하지만 조지겸이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시점은 1683년(숙종 9)이다. 따라서 1659년이 아닌 1683년으로 보인다.

지겸(趙持謙)⁷⁷이 찬한다.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홍문관(弘文館) 응교 겸 서학교수(應敎兼西學敎授) 조상우(趙相愚)⁷⁸가 글씨를 썼다.

77 조지겸(1639-1685) : 풍양(豐壤) 조씨이고, 자는 광보(光甫)이다. 1663년(현종 4)에 진사, 1670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고성군수, 이조좌랑,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78 조상우(1640-1718) : 풍양(豐壤) 조씨이고, 자는 자직(子直)이다. 호조좌랑, 태인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유상대 중수기(流觴臺重修記)

숙종 1682년(임술) 늦가을에 조부 동강공(東岡公)⁷⁹이 이곳 태인현에 부임하였고, 이듬해 겨울에는 지평(持平)이 되어 조정으로 돌아가셨다. (태인현의 수령으로 계실 적에) 정사를 처리하는 한 해 사이에 다스림과 교화가 크게 행해져 민간의 풍속은 크게 변해 사람들이 큰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술하고 비각(碑閣)에 또 새겼는데 “청렴 덕행으로 풍속을 교화하고 고운(孤雲)과 영천(靈川) 두 선생 전후 함께 하네”라고 하여 거의 수백 년이 되도록 인자하다는 명성이 물거품 되지 않고 유애(遺愛)가 쇠해지지 않아 오고(五袴)⁸⁰와 소부(邵父), 두모(杜母)의 노래⁸¹가 이 현에서 성대하게 다시 기려졌다. 현의 동쪽 2사(舍)⁸² 쯤에 옛 고을 터가 있다. 앞으로 협계(峽溪)가 흐르고, 시냇가에 유상(流觴)이라는 대(臺)가 있었다. 유상대는 돌로 포개졌으며 고목(古木)으로 두르고 있어 부로(父老)들이 서로 전하길 고운이 지현(知縣)이던 무렵에 노닐 던 곳이며 왕희지[逸少]의 고사를 본뜬 것이라 한다. 천 년이 지나 비로소 동강공(東岡公)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감회를 일으키기 위해 옛날에 무너진 것을 개축하였다. 직무를 보는 거를에 간혹 수레 끄는 이에게 명하여 시골의 수재(秀才)들과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다. 이 곳 수령을 그만 두고 돌아간 이후에는 부제학 조지겸(趙持謙)에게 고운의 노닐던 자취를 기술하게 하여 비석에 새기고 손수 글씨를 쓰며 유상대 위에 세웠다.

이후 몇 백 년이 못 돼서 유상대가 또 무너졌고 물길 또한 변해서 유상대 위의 술한

79 조상우의 호가 동강(東岡)이다.

80 오고(五袴) : 지방 군수(郡守)가 선정(善政)을 베푼 것을 뜻한다. 후한(後漢) 염범(廉范)이 촉군(蜀郡)의 태수(太守)로 있을 적에 정치를 잘하여 백성이 잘 살게 되자, 모두들, ‘염숙도(廉叔度)가 오기 전엔 저고리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바지가 다섯 벌이 되었네.’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염숙도는 염범의 자(字)이다.

81 소부(邵父)와 두모(杜母) : 소부(邵父)는 서한(西漢) 때 소신신(召信臣)을, 두모(杜母)는 동한(東漢) 때 두시(杜詩)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니, 이곳 백성들이 “앞에는 소부(邵父)가 있고, 뒤에는 두모(杜母)가 있다.”하였다.([한서(漢書)] 권 89, 「소신신전(召信臣傳)」; 『후한서(後漢書)』 권 31, 「두시열전(杜詩列傳)」 즉, 어진 수령을 칭송하는 노래를 의미한다.

82 사(舍) : 1사는 30리(里)이다.

고목은 대부분 바람으로 꺾이고 파헤쳐진 비석은 또 큰 홍수로 물에 빠져 소실되어 있는 곳을 모르게 되어 한산(寒山)의 한 조각을⁸³ 노인들에게 물어봐도 말할 수 없어 선현(先賢)이 남기신 유풍(遺風)을 경험할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내가 1794년(갑인) 겨울에 이 지역에 수령으로 와서 그 아래를 지나가다 황폐해진 유상대를 보고서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고운·영천 두 현인의 유적임을 알고는 마음에서 우러러 사모하여 애석하기가 읍 사람들에게 몇 곱절일 뿐만 아니었다. 그러나 흉년에 굶주린 사람을 진휼하느라 수습하는 공역(工役)을 벌일 겨를이 없어 다음해 가을에 되어서야 백성들의 근심이 조금이나마 풀렸어도 오히려 쇠약해 병이 든 백성들을 동원해 유상대를 개축할 수 없었다. 드디어 다음해에 유상대 근처의 옛 것을 좋아하는 인사(人士)들과 의논하여 그들에게 주관하게 하여 돌을 쌓아 허물어진 부분을 막고 나무를 심어 빈 자리를 메우게 했다. 또한 냇물을 끌어들여 옛날의 유상곡수를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형세 상 어쩔 수가 없었고, 이미 또한 돌을 채취해 사적을 기록한 비(碑)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힘이 미치지 못했다. 아! 또 거의 백년 뒤 계수(繼修)할 사람이 있을지, 나와 골짜기가 바뀌어 현산(峴山)⁸⁴의 물에 잠긴 비석이 다시 세상에 나올지 모르겠도다. 이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1744년(갑오) 3월 풍성(豐城 ; 풍양의 별칭) 조항진(趙恒鎭)⁸⁵이 기록하다.

83 양(梁) 나라의 신하로 유신(庾信)의 자는 자산(子山)인데 일찍이 북방에 가서는 오직 한산사(寒山寺)의 비(碑)를 사랑하였다. 뒤에 남방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북방은 어떠한고 물으니, 유신이 말하기를 “오직 한산사의 한 조각돌이 함께 말할 만하고 나머지는 다 개가 짓고 나귀가 우는 것 같다.”라 하였다.

84 현산(峴山) : 진(晉) 나라 양호(羊祜)가 양양(襄陽)을 다스리면서 항상 인정(仁政)을 베풀었다. 이에 양호가 죽자 백성들이 사모하여 현산(峴山)에 비석을 세웠고, 이 비석을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하여 타루비(墮淚碑)라고 불렀다.([진서(晉書)] 권 34, 「양호열전(羊祜列傳)」) 이현은 고인이 생전에 다스리던 고을에 있는 고개이다.

85 조항진(1738-미상) : 풍양(豐壤) 조씨이고, 자는 인백(仁伯)이다. 1768년(영조 44)에 진사로 합격하였고, 1782년(정조 6)의 알성시에서 장원급제하였다. 태인현감, 장령, 헌납, 집의 등을 역임하였다. 태인향교 만화루의 현판은 조항진이 쓴 글씨이다. 조항진은 유상대를 중수한 조상우의 손자라는 인연으로 복구하였다.

원지(院誌)

무성서원은 옛날의 태산 사우로 숙종조 1696년(병자)에 사액 받은 이름이다.

대개 태인현(泰仁縣)⁸⁶은 곧 신라(新羅) 태산군(泰山郡)이다.

문창후(文昌侯)⁸⁷ 최(치원) 선생께서 태수로 재직한 읍으로, 산으로는 가야산(伽倻山)⁸⁸, 시산(詩山)⁸⁹이 있고, 대는 월연대(月延臺)⁹⁰와 유상대(流觴臺)⁹¹가 있는데 선생께서 머무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던 곳이며 글을 읽는 유풍(遺風)이 있어서 백세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아 고을 사람들이[鄉人] 월연(月延) 아래에 사우를 세웠다.

중종조 1544년(갑진)에 영천(靈川) 신잠(申先生)이 현감(邑宰)으로 이 고을에 부임하여 열 가지 훈계를 가르치시니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쳐 사우에 합향(合享)하였다.

-
- 86 태인현(泰仁縣) : ‘태인’이란 지명은 태산과 인의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다. 즉, “태인현은 곧 옛날의 태산(太山)과 인의(仁義) 두 고을이었는데, 우리 조정에서 두 고을의 이름을 합쳐서 태인이라고 하였다.(泰仁縣即古之太山仁義兩縣也 我朝併兩縣號曰泰仁)”(『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4, 전라도 태인현)
- 87 문창후(文昌侯) : 고려시대인 1020년(현종 11)에 최치원을 내사령(內史令)으로 높여 문묘에 배향하였고, 1023년에 문창후(文昌侯)라는 시호를 내렸다.(『고려사』, 「세가」 4, 현종 11년 8월 ; 「세가」 5, 현종 14년 2월)
- 88 가야산(伽倻山) : 경남 합천군 가야면과 경북 성주군 가천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가 있다. 최치원이 은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대인들이 그와 관련성을 찾는 곳이다.
- 89 시산(詩山) : 시산은 고현내에 있는 지명으로 백제때 대시산군(大尸山郡)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최치원과 연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尸)를 시(詩)로 변경하여 지명으로 굳어졌다. 현재도 칠보면 시산리가 있다.
- 90 월연대(月延臺) : 월연대는 ‘달을 맞이하는 대’라는 뜻으로 무성서원을 품고 있는 성황산 서쪽 능선을 의미한다.
- 91 유상대(流觴臺) : 유상대는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가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소흥현(小興縣)의 난정(蘭亭)에 있던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치원이 태산 태수로 재직할 때 만들었다고 한다. 즉,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떠다니는 곳으로, 경주의 포석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치원이 검단선사(黔丹禪師)와 함께 유상곡수를 즐겼다는 내용이 설화와 각종 기록들로 남아 있다.

태산사 사적(泰山祠事蹟)【만력 44년 1616년(병진) 2월 일】

둔전(屯田)에 대한 일로 유학 김세경(金世經)의 품장(稟狀)

“남쪽 지방의 수령으로 오셔서 다스리는데 학교의 진흥을 우선시하니 문치를 숭상하는 뜻이 언사(言辭)의 표면에 성대하게 드러났습니다. 【결론】 사람들마다 【결론】 이미 부임하신 초기에 “만약 학교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매우 하찮은 말이라도 하찮다고 여기지 않고, 매우 어려운 청이라도 어렵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니 어찌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는 때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인현에 예부터 사학(四學)이 있는데 오직 우리 영천 신잠(申潛)수령이 세운 곳입니다. 노(奴)를 뽑아 그 역을 면제시켜 주고, 전토를 주어 그 비용에 보탬이 되어 선비를 기르는 방도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으니 사림에 공이 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 그 분은 돌아가고 세월은 멀어지며 옛 터는 무성한 풀로 막혔으니, 현가(絃歌)의 소리는 멈추고,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탄식이 극심해졌습니다. 다행히 【결론】 오직 동·북 두 개의 학당에서 겨우 유풍(遺風)을 잇는 정도라 뜻이 있는 후학자가 비록 귀의하려고 하여도 재물을 생산할 길이 없으니, 선비들을 뒷바라지할 재물이 모자라 늘 스스로 개탄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도할계(牛刀割鷄)⁹²가 있어 멀리 뛰어난 발자취를 이었으니 사문(斯文)이 또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무릇 생각하는 바를 주변에 발설하지 않는다면 뒷날 그 때를 잃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넉넉히 청이 있으니 합하(閣下)께서 어찌 몇 이랑의 전토를 아까워하여 많은 선비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비들의 기상을 배양시켜주고, 우리의 인재(人才)를 성취시켜 이른바 “뿌리에 물을 주어서 장차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

92 우도할계(牛刀割鷄)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하는 데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관(本官) 고용후(高用厚)⁹³의 제사(題辭; 처분). 둔전 2섬지기 논을 서원과 동·북 두 곳의 학당에 출급하므로 가을에 타작하여 여러 유생들의 공용(公用)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해마다 정식(定式)으로 삼되 뒷날 본읍 수령이 만일 도로 추심(推尋)하는 행동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고과(告課)할 것.

김일정(金一挺) 전세륜(全世綸) 김남정(金南挺) 김여해(金汝諧) 김봉정(金泰挺) 전천부(全天賦) 민재중(閔載重)

은지임(殷之任) 김시환(金時煥) 김만정(金萬挺) 백순필(白舜弼) 김세형(金世衡) 김시정(金時挺) 김상옥(金尙玉)

둔전

결복(結卜) 3결 12부 4속. 옛날에는 문서가 있었으나 현재 문서가 없다.

서책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좌전(左傳)·춘추(春秋)·통감(通鑑)·성리절요(性理節要)·심경부주(心經附註)·성학십도(聖學十圖)·원규(院規) 1부·삼강행실(三綱行實)·이륜행실(二倫行實)·향약(鄉約) 1권·소학(小學)·사우도(祠宇圖)는 명록(銘錄)만 있을 뿐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대명(大明) 헌종(憲宗) 황제 성화(成化) 19년, 우리 조선 성종(成宗) 대왕 15년 계묘년(1483)에 사람들의 논의가 일제히 일어나 태산사를 (월연)대(臺)에서 서원터(院)로 이관하였다. 이후 불우현 정(극인) 선생·놀암 송(세립) 선생·묵재 정(언충) 선생·성재 김(약묵) 선생·명천 김(관) 선생을 배향하니 곧 일곱 현인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의종(毅宗) 황제 숭정 기원후[紀元年] 69년, 우리 조선의 숙종(肅宗) 대왕 22년 1696년(병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리자 예조(禮曹)에서 무성(武城)·태산(泰山)·남천(南川) 세 가지 액호(額號)를 추천하여 보고하였는데 숙종이 수망(首望)인 무성으로 윤허하였다.

93 고용후(1577-미상) : 장흥(長興) 고씨이고, 자는 선행(善行)이다. 아버지는 임진왜란시에 호남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전사한 고경명(高敬命)이고, 이때 형 고인후(高仁厚)도 함께 순국하였다. 그는 1605년(선조 38)에 생원시, 동년의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좌랑, 병조좌랑, 병조정랑, 1609년에 태인현감을 거쳐 남원부사, 고성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칠현사적(七賢事蹟)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

휘(諱)는 치원(致遠), 자(字)는 해부(海夫), 호(號)는 고운(孤雲)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당나라 선종황제(宣宗皇帝)⁹⁴ 대중(大中) 9년⁹⁵ 855년(정축)에 태어나 12세에 큰 바다 배[海舶;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타고 당나라로 들어가 스승을 찾아 학문에 힘써 희종(僖宗)황제⁹⁶ 건부(乾符) 원년 874년(갑오)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광계(光啟) 원년 885년(을사)에 신라로 돌아왔다. 헌강대왕(憲康大王)⁹⁷ 때 한림학사(翰林學士)⁹⁸에 임명하니 비로소 우리나라에 문물을 창도하여 이학(理學)의 종주(宗儒)가 되었으며 『계원필경집』 20권이 있다. 송나라 진종(眞宗)황제⁹⁹ 23년이자 고려 현종대왕(顯宗大王) 11년 1020년(경신)에 문창후의 시호가 내려졌다.

94 선종황제(宣宗皇帝) : 선종(810-859)은 당의 16대 황제이다.

95 대중(大中) : 대중 8년은 855년이다. 각종 자료에서는 최치원이 태어난 해가 857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바로 뒤의 문장에서도 건부 원년(874)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최치원이 빈공과에 합격한 것을 18세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855년은 오류이고, 857년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96 희종(862-888) : 당 나라 18대 황제이다.

97 헌강왕(재위 875-886) : 신라의 49대 왕이다.

98 한림학사(翰林學士) : 정식명은 시독검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사(侍讀兼翰林學士守兵部侍郎知瑞書監事)이다.

99 본문에는 당 진종황제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진종제(968-1022)는 북송의 3대 황제로, 본문에서 송으로 수정하였다. 그는 재위기간에 함평(咸平), 경덕(景德), 대중상부(大中祥符), 천희(天禧), 건흥(乾興) 등 5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영천(靈川) 신 선생

휘는 잠(潛)이고, 자는 원량(元亮), 본관은 고령이다. 홍치(弘治) 4년 성종 22년 1491년(신해) 3월 일에 태어났다. 나이 겨우 7세에 백형(伯兄)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조금 가르쳐주자마자 곧 스스로 이해하므로 가르치는 노고(勞苦)를 번거롭게 들이지 않았고, 사조(詞藻)¹⁰⁰가 날로 진보하여 명성을 크게 떨쳤다. 정덕(正德) 1513년(계유)에 공의 나이 23세에 진사에 올랐다. 중종조[中廟朝]에 치교(治敎)가 개혁되어 사학(士學)이 날로 새로워지니 공은 즉시 통렬하게 겉치레를 없애버리고 힘써 스스로 가다듬어 성현의 글을 취하여 읽었다. 당대 선비들과 두루 교유를 맺고 왕래하면서 논변함이 뛰어나 우뚝하게 자득하자 명망(名望)은 더욱 무거워졌다. 1519년(기묘)에 과거에 급제하여¹⁰¹ 곧장 예문관 검열에 보임(補任)되었다.

전례(故事)에 매번 사대(賜對)할 때에 사관(史官)이 늘 뒤에 들어갔다가 먼저 나왔었는데 공이 아뢰기를 “사관은 임금의 미세한 말과 행동을 살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늦게 들어가서 먼저 나오면 사실을 기록하는 취지에 손상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듣건대 성종조(成宗朝)에 한 간사한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틈을 타서 그 말이 쓰이게 되어서 마침내 화(禍)의 계제(階梯)가 되었다하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관이 먼저 들어왔다가 뒤에 나가는 것으로 상례를 삼으소서.”라고 하니 중종이 옳다고 여겨 즉시 규례로 삼도록 명을 내렸다. 그러나 얼마나 지나지 않아 시사(時事)가 크게 변하여 공이 마침내 벼슬을

100 사조(詞藻) : 시문(詩文)의 문채(文彩)를 뜻하는 말로 문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101 1519년에 시행한 현량과(賢良科)를 의미한다.

102 원문에는 “癸卯以主簿出補 泰仁創建五學堂”이라고 주부에 보임된 후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 문맥만 보면 중앙 관직에 있던 신잠이 갑자기 태인에 5학당을 창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면, 1543년(중종 38)에 신료들은 다시 신잠의 문예가 뛰어나니 명 사신을 맞이할 때 크게 쓰일 것이라면서 그를 추천하였고, 중종은 이를 허락하여 종6품의 사용원 주부에 제수하였다. 『중종실록』 권 101, 38년 11월 26일 병인 ; 29일 기사) 며칠 후 중종은 “신잠은 주부가 됨은 무익하니 고쳐 守宰(수령)에 임명하여 치적을 살펴보려 한다.”하고, 태인 현감에 보임하였다. 『옥계선생문집』 권 3, 행장) 즉, 1543년에 신잠은 사용원 주부에서 새롭게 태인 현감으로 임명되었고, 태인에 와서 5개의 학당을 건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3 정응두(1508-1572) : 나주(羅州) 정씨이고, 자는 추경(樞卿)이다. 1521년(중종 16)의 진사시, 1534년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선공감직장(繕工監直長), 전적, 부수찬, 이조정랑, 예조참의,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1553년에 경상도관찰사를 지냈고, 이때 상주목사 신잠이 선정을 베풀었다고 보고하였다. 『명종실록』 권 20, 8년 8월 4일 무인)

삭탈당하여 한가하게 지내고 사관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나오는 제도 또한 폐지되니 공이 이로부터 다시는 이 시대에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았다.

1521년(신사)에 무고하게 죄를 입어 장흥부(長興府)로 귀향을 갔고 1537년(정유)에는 양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1538년(무술)에야 마침내 편의대로 거주(居住)하도록 명하였다. 이듬해 모친상(喪)을 당하여 아차산(峨嵋山) 아래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1543년(계묘)에 주부(主簿)에서 태인 현감으로 보임되어 다섯 개의 학궁(서당)을 창건하였다.¹⁰²

1549년(기유)에는 간성군(杆城郡)의 군수로 옮겨 갔고, 태인을 다스리듯이 학문을 흥기시켰다. 1552년(임자)에 상주목(尙州牧)에 초배(超拜)되었는데, 상주는 경상도의 요충지로 교통이 모여들며 기무(機務)가 번거롭고 많았다. 또 큰 흉년이 들어 유랑민이 굶주려 쓰러지고 사망한 사람은 서로 줄을 이었다. 공이 이에 마음을 다해 구휼하니 규모와 절목이 태인현감 시절과 한결같으니 이로써 백성들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없었다. 관찰사 정응두(丁應斗)¹⁰³ 공이 조정에다가 흉년에 백성을 구제한 치적이 최고라고 보고하자 상(上)이 명령하여 품계를 올려주었다.

1554년(갑인) 12월 30일에 돌아가시니 연세가 64세였다. 관찰사가 조정에 부음을 알렸



태인신잠선생영상(자료제공:정읍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신잠은 청렴하고 부지런함이 다른 사람에 비할 바 아니므로 지금 그의 죽음을 듣고는 진실로 측은하다.”고 하였다. 마침내 부의금을 보내는데 더하라고 명하였다. 돌아가시는 날에 선비들은 뜰에서 곡을 하고 백성들은 들에서 부르짖으니 어버이의 장례와 같았다. 옥계(玉溪) 노진(盧禎)¹⁰⁴ 선생이 말하길, “공의 훌륭한 덕과 뛰어난 행실은 당세에 스승이 되어 유림을 바로잡으며 문장과 학술은 임금의 정치와 태평을 보좌할 수 있고 기개(氣概)와 도량이 크고 넓으며 식견은 고상하고 우아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해 경외감을 느끼고, 그 앞에 나아가면 유연(油然)해 가까이 할 만하였다.”라고 하였다. 1555년(을묘) 3월 아차산(峨嵋山)에 예장(禮葬)하였다.

104 노진(1518-1578) : 풍천(豐川) 노씨이고, 자는 자옹(子膺)이다. 1537년(중종 32)의 생원시, 1546년(명종 1)의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전적, 지례현감, 장령, 직제학, 도승지, 진주목사, 충청도관찰사, 전주부윤,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평소 기대승, 김인후, 노수신 등과 교류하였다. 그의 여동생이 신잠의 후처가 된 인연으로 행장을 작성하였다.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선생

자는 가택(可宅), 본관은 영광이다. 태종대왕 원년 신사년(1401) 8월 6일에 두모포리(豆毛浦里) 자택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서 관향(貫鄉)으로 돌아왔다.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며 아름답고 학문은 정밀하고 밝았다. 선덕 기유년(142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경태(景泰) 계유년(1453)에는 정과(丁科) 13인으로 급제하였다. 이단을 물리치는 상소를 올려 요사스러운 승려를 귀양 보내 쫓아내고, 상소(封章)를 올려 폐단을 아뢰어 잡실을 혁파하였고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설행하였으며, 여씨향약(呂氏鄉約)¹⁰⁵에 따라 자제를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정언(正言)으로 나이 70세에 치사(致仕)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불우현(不憂軒)이라 호를 붙였다. 절구시 한 수를 읊어 벽에 써 붙여서知足자지(知足自止)의 뜻을 나타냈다. 성종조(成廟朝)에 전 정언 정극인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듣건대 청렴결백한 인품으로 남에게 알려지거나 영달하기를 구하지 않으면서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기에 게으르지 않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불러서 쓰고자 하나 그대가 연로하여 정사를 맡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특별히 3품(三品)의 산관(散官)을 더해 주노라.”고 하였다.

또 공(公)에게 폐단을 구제할 의견을 물었다.

공이 이때 나이 80세로 어쩔 수 없이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하고 또 ①학교를 진흥시킬 일, ②불법을 혁파할 일, ③수령의 근무 태도를 평가(殿最)하는 일, ④공신의 사천첩자(私賤妾子)가 아버지를 따라 양인이 되는 일, ⑤논밭을 일구고 묵힌 정도를 구별하여 납세하는 일, ⑥상번(上番)한 정병(正兵)의 봉족(奉足)을 넉넉하게 할 일, ⑦각 도의 도감실(都監室)¹⁰⁶을 다시 설립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할 일, ⑧조운(漕運)에 쓰는 선박이 여러 고을에 폐단이 되는 일, ⑨공법(貢法)에 따른 토지 품등 제도가 폐단이 되는 일 ⑩도적을 다스리는 법이 너그러워 폐단이 되는 일 등 10가지 조목을 올리니 상께서 술을 하사

105 여씨향약(呂氏鄉約) : 중국 북송(北宋) 때 향촌을 교화·선도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이다.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의 여씨 문중에서 만들었으며, 뒤에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여씨향약(朱子呂氏鄉約)』이 만들어 졌다. 1517년(중종 12)에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관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여 위로하여 보냈다. 또 “본도(本道)로 하여금 때로 은혜를 베풀어 보살피게 하니 그대는 마땅히 알도록 하라”고 하셨다.

성화(成化) 신축년(1481) 8월에 사망하니 나이 81세였다.

-
- 106 도감실은 감실도회(蠶室都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양잠과 누에고치의 생산·공납, 뽕나무의 재배와 민간배포 등을 담당하였다. 조선은 백성들에게 양잠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궁중에 감실을 설치하였고, 1416년(태종 16)에 경기도 가평의 속현인 조종, 충청도 청풍, 경상도 의성, 전라도 태인, 황해도 수안, 개성 등에 감실을 설치하였다. 태인의 감실은 현의 남쪽에 위치하는데, 고읍인 태산에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칠보면 일대로 보인다. 여기에 속한 노비는 30명이고, 한량(閑良)으로 일을 맡길만한 사람을 가려서 감독하게 하였다고 한다.(『세종실록』 권 151, 지리지, 전라도 태인현) 태인현 감실의 운영 실태의 단초를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의 기록이 있다. 먼저, 1427년(세종 9)에 전라도관찰사는 태인의 감실감고(蠶室監考)인 전 부사정(副司正)이 양잠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고치 생산이 120여 섬에 달하였다는 비슬에 채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권장해야 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 36, 9년 5월 27일 갑인) 즉, 본래의 목적대로 양잠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474년(성종 5)경에 이르면 태인현의 감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성종실록』 권 45, 5년 7월 29일 임오) 그러므로 이듬해에 이르면 태인현의 감실은 1백 칸 정도의 규모였지만 모두 풀로 덮여있어 창평현 관아로 옮기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성종실록』 권 53, 6년 3월 18일 정묘) 따라서 이 문장의 맥락은 백성들에게 폐단을 주는 태인의 도감실을 개선할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눌암(訥庵) 송 선생

휘는 세림(世琳), 자는 헌중(獻仲)이며 본관은 여산이다. 성화(成化) 15년 1479년(기해) 12월 14일생이다. 어머니 김씨가 임신하였는데 태몽으로 포의(褒衣; 몸통과 소매통이 넓은 옷)에 금색 띠를 두른 신인(神人)이 말하길 “삼일 뒤에 마땅히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만년관(萬年館)이라 부르라”라고 하였다. 기일이 되어 과연 공이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총명했는데, ‘만년관’이라는 세 글자는 이름의 유형이 아니었으므로 민간에서는 다만 ‘만년(萬年)’이라 불렀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나 스승이 번거롭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학문이 날로 진보했고 약관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해 빛나는 명성이 크게 퍼졌다.

처음 공의 아버지(宋演孫)는 한산군수를 지냈는데 경술(經術)이 훌륭하여 중종의 어릴 적 스승[甘盤]¹⁰⁷이자 나라를 안정시킨 공¹⁰⁸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원종공신(原從功臣)¹⁰⁹을 하사 받았다. 1502년(임술)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03년(계해)에 이조좌랑으로 올랐다. 곧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6년 동안 피눈물 흘려 이 때문에 고질병이 생겨서 호를 눌암(訥庵)이라 하였다.

일곱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숙배하지 않았다. 백록동규(白鹿洞規)의 발문을 써서 자제(子弟) 간을 교수(敎授)하였다. 할머니 정엄¹¹⁰의 명으로 나가 능성현령(綾城縣令)이 되었다. 재각에 누운 듯 관직에 임하여 위엄이 있으면서 사납지 않았고, 관대하면서도 느슨하지 않았다. 백성 중에 형제간에 거짓으로 문서를 만들고서는 1경의 발을 다투는 자가 있었다. 공이 “이 문서는 위조 되었다. 형제는 한 몸에서 나뉜 사이인지라 한 자의 삼베도 꿰매어 옷을 만들어 함께 입을 수 있는데 한 치 땅을 두고 다투겠는가?”라고 말씀하였

107 감반(甘盤) : 중국 은대(殷代) 임금인 무정(武丁) 때의 현신(賢臣)이다. 고종이 즉위하기 전 감반(甘盤)에게 글을 배웠다. 뒷날 즉위하고는 그를 등용해서 정승으로 삼았다는 고사로부터 사제(師弟) 관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108 1506년의 중종반정을 뜻한다.

109 원종공신(原從功臣) :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공훈이 있는 정공신(正功臣) 외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로 중종반정 이후 송연손과 송세림이 정국원종공신에 책봉된 것을 의미한다.

110 송세림의 할머니는 정숙관(鄭淑瑄)의 딸이다.

다. 두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그 문서를 불사르고 빌며 소송을 멈추고 물러나니 의(義)로 사람을 움직인 것이다. 상소[封事]를 올려 이단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民瘼]를 아뢰니 고기와 비단을 내려서 임금을 감동시킨 충심을 장려하였다. 1519년(기묘) 정월에 별세하니 향년 41세였다.

묵재(默齋) 정 선생

휘는 언충(彦忠), 자는 양구(良久)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기량이 침중(沈重)하여 말이 적고 행동은 민첩하였다. 진사에 합격한 이후 곧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뜻을 가다듬으며 도를 구하니 더욱 『역학계(易學啓蒙)』의 괘획(卦畫)에 정밀해졌다. 정전본의(程傳本義)·선기옥형(璿機玉衡)¹¹¹·홍범태극(洪範太極)도 정밀히 생각하고 힘써 구하니 과녁을 깨트리
고 얼음이 녹듯이 이치가 풀려 길흉, 소장(消長)의 이치에 밝고 진퇴(進退), 존망(存亡)의
기미를 변별할 수 있어 요부(堯夫)¹¹²에 비길만하여 전혀 뒤지지 않고 뛰어났다.

공의 아름다운 덕에 있어서 효행을 제일로 삼아 사는 집을 막내 누이에게 주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몸소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손수 약을 제조한 것은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최질(衰絰; 상중에 입는 삼베옷)을 풀지 않고 하루에 죽 한 끼를 마시며 3년 동안 묘를 지키고 발이 사립문(柴門) 밖을 나서지 않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겉으로는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안으로는 실로 엄숙하고 굳세었다. 소박하고 청빈하게 살아도[單瓢陋巷]¹¹³ 선비의 도리를 지켜 내면에 아름다운 자질을 품은 채 은거하여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고 이욕(利欲)과 성색(聲色)을 허공에 뜬 구름 같이 여기시니 타향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문하(涖門)에 가득하여 착하고 어진 무리를 배출해내었다. 규암(圭庵; 송인수)¹¹⁴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더불어 도를 강설하니 선운(仙

111 선기옥형(璿機玉衡) : 옛날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관찰하던 천문관측기(天文觀測機)이다. 오늘날 혼천의(渾天儀)와 같다.

112 요부(堯夫) : 소요부(邵堯夫)는 송대(宋代)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성리학의 이상주의 학파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수(數)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 한다. 유교의 경전이며 점치는 데에도 이용되는 『역경(易經)』을 공부하다가 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13 단瓢누항(單瓢陋巷) : 좁고 지저분한 거리에서 먹는 도시락의 밥과 표주박의 물이라는 뜻이다. 소박한 생활 살림 혹은 청빈한 선비의 살림을 가리킨다.

114 송인수(1499-1547) : 은진(恩津) 송씨이고, 자는 미수(眉叟)이다. 1521년(중종 16) 별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부수찬, 사간원정언, 예조참의, 예조참판, 대사헌,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가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 1545년에 을사사화로 탄핵을 받고 파직당하여 청주에 은거하다가 사사(賜死)되었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할 때, 형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교화에 힘써 풍속을 바로잡았으며 교육을 진흥시켜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雲)처럼 일어났고,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은 수레에서 내려 먼저 초가집을 찾으셨으며, 일재(一齋) 이항(李恒)¹¹⁵ 선생은 공경히 스승이자 벗으로 섬기며 대우하니, 임금께서 선생의 어짊을 표창하시며 후릉참봉[厚陵]¹¹⁶에 제수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을 그만두고 벼슬길을 단념하고는 자제를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115 이항(1499-1576) : 성주(星州) 이씨이고, 자는 항지(恒之)이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태인에서 칩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당시 대학자인 기대승, 노수신, 김인후 등과 교유하였고, 홍직필은 김인후, 기대승, 안방준, 박광일, 이항을 호남의 다섯 학자로 뽑았다. 태인의 남고서원에 배향되었고, 김대립과 김제민 등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116 원문에는 ‘원릉(原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거절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후릉으로 수정하였다.

성재(誠齋) 김 선생

휘는 약목, 자는 태용(太容)이고 본관은 도강이다. 홍치(弘治) 1500년(경신) 2월 1일에 곡성 관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또한 단정하고 정중하면서 총명하였다. 점차 자라서는 스승인 취은(醉隱) 송세립을 따라 학문을 배워 날로 열리고 달로 증진되어 탁연(卓然)히 나아감이 있어 만년(晩年)에 대강을 알게 되었으니 장부의 사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목재 정언충(鄭彦忠)과 뜻을 가다듬고 강학하니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사랑하고 어질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르고 성색(聲色)과 기욕(嗜欲)은 스스로 외물로 여겼다.

가정(嘉靖) 1536년(병신)에 아버지 중 좌랑공(佐郎公) 김희석(金希奭)과 어머니 송씨가 연달아 돌아가셔서 공께서 홀로 상을 연달아 지냈으나 직분을 완수하여 예도 빠지는 것이 없고 모두 절도에 맞았다. 산소 곁에서 3년 시묘를 하였다. 중종 경자년(1540)에 별시 을과 제1등으로 등과하였고 1549년(기유)에 청홍도사(淸洪都事)로 제수 받고, 1550년(경술)에 한산군(韓山郡)이 되었는데 다스림이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유학을 권장하여 술 선수범하니 1년이 되지 않아 형벌이 공평해지고 정사가 다스려지니 왕이 듣고 가상하게 여겨 두 차례 포장(褒獎)을 내리고 표리(表裏)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공로 없이 성은을 받은 것은 신하에게 다행이 아니다.”하고는 늘 옛 사람들의 ‘촛농이 떨어질 때 사람 눈물 떨어진다’는 구절을 취해 좌우명으로 써 붙여 놓고 매번 방을 쓸고 조용히 앉아 성리서를 읽으셨다. 뒤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시자 사방의 백성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공을 따라가며 곡을 하길, “우리 아버지께서 떠나신다.”고 하였다.

1557년(정사)에 양주목사로 제수되었는데 다만 예법을 가지고 아주 사소한 사사로움도 용납지 않으셨으니 토호들이 모두 기를 펴지 못하였다. 한산군과 양주목의 경험으로 다스리는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해로운 근원을 제거하고 교조(敎條)를 번거롭지 않게 하고 사람을 대우함이 반드시 신실하니 백성들은 안락하게 여겼다. 양주목을 다스린 지 수 년 동안 직무를 보지 않은 날은 단지 이틀뿐으로 아침저녁으로 고생하여 초췌해졌다. 마침내 병환이 깊어져 고질병이 되었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별사(別舍)로 옮기고 부녀자를 금하였다. 일을 끝마침이 모두 예에 맞아 실수가 없으셨다. 집에 한 마디도 말하지 않고 1558년(무오) 7월일에 관에서 돌아가셨다.

명천(鳴川) 김 선생

휘는 관(灌), 자(字)는 옥이(沃而)이고 본관이 도강이다. 만력 1575년(을해) 5월 25일에 태어나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고, 정훈(庭訓)을 이었으며 성장해서는 난계(蘭溪) 박종정(朴宗挺)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사받았다. 이에 앞서 향선생 불우현 정극인·놀암 송세림이 학당(學堂)을 세우고 향약을 상정(詳定)하였다. 공이 한결같이 준행하며 학식(學式)으로 삼아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심의(深衣)를 갖추 입고 복건을 쓴 차림으로 사원(祠院)을 참알하고는 서실로 물러나와 부지런히 배우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잠시도 쉬지 않았다.

만력 1615년(을묘)에 진사로 합격하였는데 광해조(光海朝)의 정치가 혼란하자 일찍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삼창(三昌)¹¹⁷을 처단하지 못해 한스럽구나”라고 하였으니 당시 광창 부원군(廣昌府院君) 이이첨(李爾瞻)·문창부원군(文昌府院君) 유희분(柳希奮)·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 박승종(朴承宗)에게 모두 훈봉(勳封)이 있어 번갈아 나라의 운명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정묘호란 때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¹¹⁸ 선생을 따라 창의(倡義)하여 마음을 다해 곡식을 모았다. 선생이 더욱 보좌하며 찬양하고 탄복하니 광해군 때 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만나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호암 송치중(宋致中), 세마(洗馬) 김감(金鑑)과 함께 여러 현인(賢人)들이 만든 송정십현(松亭十賢)¹¹⁹의 모임을 만들고 유상대에서 시를 읊고 즐기며 비풍(匪風)·하천(下泉)의 회한을 부치고 그림

117 삼창(三昌) : 광해군대의 세도가였던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 이이첨(李爾瞻)·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 박승종(朴承宗)·문창부원군(文昌府院君) 유희분(柳希奮) 등 세 사람을 말한다.

118 김장생(1548-1631) : 광산(光山) 김씨이고, 자는 희원(希元)이다. 1578년(선조 11)에 유일(遺逸)로써 천거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임명되었다. 이후 정산(定山)현감, 호조정랑, 철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제자는 아들이자 학문의 정통을 이은 김집(金集)과 송시열(宋時烈)을 비롯해서 송준길(宋浚吉) 등 후일 서인과 노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이다. 연산(현재의 논산시 연산면)의 돈암서원 등에 제향되고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119 송정십현(松亭十賢) : 칠광은 계축옥사에 반발하여 고현내에서 유유자적한 7명이다. 즉, 김대립, 김응빈, 이탁, 이상형, 김감, 송치중, 송민고이다. 이들은 기자(箕子)의 고사를 따라 광인(狂人)을 가장하고 동지를 모아 유유자적하며 칠광이라 하였다고 한다. 십현은 1621년 8월에 김대립과 이상형이 빠지고 김관, 김정, 양몽우, 김급, 김우직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5명과 함께 구계(舊契)의 수정 모임을 가지고 시를 지으며 지냈다.

으로 후세에 전했는데¹²⁰ 몽촌 상국(相國) 김종수(金鍾秀)¹²¹가 그 그림에 발문을 썼다. 미호(溟湖) 김원행(金元行)¹²² 선생이 유고(遺稿)의 발문을 작성했고,¹²³ 두호(杜湖) 조정(趙戢)이¹²⁴ 찬하였다.

1635년(을해) 정월 일에 돌아가셨다.

120 비풍(匪風)·하천(下泉) : 멸망한 왕조(王朝)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경(詩經)』의 편명(篇名)이다. 비풍은 주 왕실이 쇠약해짐을 탄식하여 현인(賢人)이 지은 시이고, 하천은 왕실이 쇠약해지자 약소국이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마치 차가운 샘물이 아래로 흘러 풀이 해로움을 당하는 것에 비유한 시이다.

121 김종수(1728-1799) : 청풍(淸風) 김씨이고, 자는 정부(定夫)이다. 1768년(영조 44)에 식년 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조정랑, 경기도관찰사, 평안도관찰사, 대제학, 우의정 등을 거쳤다.

122 김원행(1702-1772) : 안동(安東) 김씨이고, 자는 백춘(伯春)이다. 1719년(숙종 45) 진사가 되었으나, 1722년(경종 2) 신임사화 때 조부 김창집(金昌集)이 노론 4대신으로 사사되고, 아버지와 형들이 유배되어 사사되자 벼슬할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후 학행으로 여러 차례 천거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산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일부 실학자도 있었는데 홍대용(洪大容)과 황윤석(黃胤錫) 등이 대표적이다.

123 이 발문은 김원행이 지은 『미호집(溟湖集)』 권 13, 「제발」의 '제금릉김씨세고후(題金陵金氏世藁後)'로 보인다.

124 조정(1719-1775) : 풍양(豐壤) 조씨이고, 자는 인서(寅瑞)이다. 1767년(영조 43) 생원시, 이듬해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지, 의주부윤, 대사성, 수원부사,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고무마의 재배를 실현한 조엄(趙曁)은 그의 형이다.

청액소(請額疏)

삼가 생각건대 서원의 설립은 덕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전의 좋은 행실을 밝히며 사문(斯文)의 성대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 훌륭히 계승하고 깊이 (사액을) 호소하는 청원을 하지 않는다면 선현을 표창할 수 없고 특히 높이고 보답하는 뜻에 결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인이 있다면 반드시 사우(祠宇)가 있고 사우가 있으면 반드시 편액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된 일입니다. 신들이 삼가 살피옵건대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래로 현인(賢人)을 좋아 하시고 선행을 즐겨 하시며 선비를 아끼시고 도를 중히 여겨 현인을 모신 사우의 설립을 원하는 대로 해주셨고, 사액(賜額)의 은전을 요청하면 즉시 윤택해 주셨습니다. 무릇 지난날 미처 겨를이 없던 사안을 모두 차례로 거행하였습니다. 유독 본도(本道) 태인현에 선현을 모신 사우가 창건된 지 이미 백 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사액을 받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사오니 이는 실로 태평성세에 은전을 입지 못한 일이라 여겨 신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들이 청하여 전하께 대략적으로 그 개요(梗槩 ; 대강의 줄거리를 아뢰니 오직 어질고 밝으신 전하께서 들어주시고 살피주옵소서.

신들이 삼가 신라조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을 살펴보니 사문의 종장(宗匠)으로 혼란한 때를 만나 태산군수로 부임해 왔으니 곧 지금의 태인현입니다. 당시 문헌이 비록 징험하기에 부족하였지만 (문창후께서 끼치신) 유풍과 여운이 백세 동안 문힐 수 없



송정십현도 (자료제공:정읍시립박물관)

있는지라 고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집 한 채를 지어 제사를 올리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뒤 일찍이 현감을 지낸 본조(本朝)의 선정신(先正臣) 신잠이 그 사우에 합향(合享)되었고 이 고장의 어진 선정신 정언 정극인(丁克仁), 좌랑 송세림(宋世琳), 진사 정언충(鄭彦忠), 목사 김약묵(金若默), 진사 김관(金灌)을 배향하여 왔습니다. 무릇 최치원의 문장이나 학업은 아주 빛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미 문묘 배향의 반열에 올랐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구차스럽게 그 사이에 말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신잠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찍이 유교 경전에 밝아 천거 받았고 중년에는 부절(符節)을 받아 이 읍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학교를 일으키고 인재를 기르는 것을 임무로 삼아 방·촌·리·사[坊村里社]에 널리 국당(局堂)을 세우고 강습소[講肄之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녹봉을 털어내 비용의 바탕이 갖추어져 문풍(文風)이 크게 변하고 현사(賢士)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효능으로 인재 양성의 효과가 난 것이 촉(蜀) 지역을 교화한 문옹(文翁)¹²⁵보다 못하지 않아 이 고장 사람들이 추모하여 마침내 최치원과 함께 제향되었습니다.



연액기사 (자료제공:정읍시립박물관)

125 문옹(文翁) : 문옹은 한대(漢代) 경제(景帝) 말에 촉군(蜀郡) 태수로 재직하면서 성도(成都)에 관학을 설치하여 그 고을의 자제들을 불러 배우게 하고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고을 관리로 임명하였는데, 무제(武帝) 때 전국의 고을에서 관학을 설치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정극인(丁克仁)은 세종(世宗) 때 인물로 처음 성균관 생원으로 태학(太學)에 들어갔을 때 요사스러운 승려가 멋대로 불법을 행해 당대를 미혹시키자 정극인이 여러 생원들을 이끌고 대궐을 지키며 소장(疏狀)으로 항거하고 크게 물리쳐 성상께서 깊이 칭찬하고 감탄하셨습니다. 문종(文宗) 때 은둔한 선생을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예종(睿宗) 때에 정언(正言)을 제수 받았으나 나이가 70이 돼서 치사(致仕)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선비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들자 정성을 다해 가르쳐 늙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설행하여 여씨향약(呂氏鄉約)의 규범을 한결같이 따르니 온 고을이 교화되었습니다. 성종(成宗) 대왕이 듣고는 교서를 내려 권장하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때때로 은혜로이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송세림(宋世琳)은 중종(中宗)의 스승인 송연손(宋演孫)의 아들입니다. 타고난 자질이 매우 뛰어나 학업이 어린 나이에 이루어져 나이가 겨우 20살에 갑과(甲科)에 이름을 올렸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조정에서 일곱 번 불렸으나 출사하지 않았으며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하고 정성과 예가 모두 극진하였습니다. 불당을 훼손하고 학사(學舍)를 세워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 발문을 써서 걸어 학식(學式)으로 삼아 나이 어린 학도들을 깨우쳐 주어 학도들의 재주에 따라 성취가 독실하니 당시 재주와 덕망 있는 선비들이 대부분 송세림의 문하에서 나왔습니다.

정언충(鄭彦忠)은 기질이 온후해 말은 어눌했으나 행동이 민첩하였습니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뒤 과거 공부를 하지 않고 의리에 침잠해 더욱 역학에 정밀하였습니다. 고명(高明)하여 한 곳에 마음을 두어 상수(象數)를 오묘하게 꿰뚫어 전하지 않는 비법을 천 년 뒤에 깊이 터득하였으니 세상으로부터 동방의 소옹(康節)으로 칭송 받을 것입니다. 선정신 송인수(宋麟壽)는 호남의 관찰사로 제일 먼저 방문하여 도를 강설하셨고 이항(李恒) 및 김인후(金麟厚)¹²⁶와 서로 친하게 교유하여 학문을 갈고 닦으니 (이들이 선생을) 스승

126 김인후(1510-1560) : 울산(蔚山) 김씨이고, 자는 후지(厚之)이다. 그는 장성에서 태어나 순창 등에서 지내다 장성으로 돌아갔다. 1531년(중종 26)의 사마시, 1540년의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545년(인종 1)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뒤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김인후는 필암서원을 비롯한 여러 서원·사우와 문묘에 배향되었다.

으로 삼을만한 벼로 대우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특별히 후릉 참봉(厚陵參奉)¹²⁷을 제수했으나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았습니다.

김약묵(金若默)은 학문을 닦고 힘써 행하며 예전의 현인들을 존경하여 믿었습니다. 어려서 외숙 송세림(宋世琳)을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자라서는 김인후(金麟厚)·정언충(鄭彦忠) 등과 서로 학문을 토론하고 닦아 드러내 밝힌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피 눈물을 흘렸고, 과거에 급제해 대성(臺省)¹²⁸을 지내다 노년에 양주목에 보임되어 학교를 일으키고 농업을 권장하며 교화를 우선하였습니다. 공무에서 물러난 여가에는 매번 방을 쓸고 몸을 바로 하여 앉아 성리학의 여러 책을 읽다가 한밤중이 되어 서야 비로소 마쳤습니다. 평생 끝은 뜻과 절조로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공손하고 부지런하셔서 금과 옥처럼 세상에 근본이 되어 군자들이 선생을 칭송하였습니다.

김관(金灌)은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천부적으로 효성을 타고나 어려서부터 의리에 힘을 써 깊이 터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광해군[昏朝] 때에 일찍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 원흥(元興) 이이첨(李爾瞻)¹²⁹이 선생의 명성을 듣고 매우 간절히 초청하거나 몸소 선생이 세 들어 사는 집까지 왔으나 끝내 피하며 만나지 않고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좌우에 도서를 쌓아두고 깊은 뜻을 찾았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향숙(鄉塾)으로 생도들이 모였고, (이들을) 이끌고 도와주며 권장하여 정진하게 하여 죽을 때까지 게으르지 않아 엄연(儼然)히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은 품행과 깊고 두터운 덕의를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7 황해북도 개풍군 영정리에 있는 조선 2대 왕 정종(1357-1419)과 정안왕후(1355-1412)의 쌍릉이다. 북한 보존급문화재 제551호이다. 참봉은 종9품으로 조선시대 각 능을 맡아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28 대성(臺省) : 조선시대 대관과 간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129 이이첨(1560-1623) : 광주(廣州) 이씨이고, 자는 득여(得興)이다. 1582년(선조 15)의 사마시, 이듬해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1608년의 문과 증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전적(典籍) 등을 지낸 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이조정랑, 예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의 후사문제로 대북과 소북이 대립하자 대북의 영수로 정인홍과 함께 광해군의 옹립을 주장하였다. 광해군의 즉위 이후 임해군과 유영경을 사사하는 등 소북파를 숙청하였다. 1612년(광해군 4)에 김직재의 옥사를 일으켰다. 1613년에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1617년에 인목대비의 폐모론을 발의하는 등 정권을 농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도망가다가 관군에게 잡혀 참형되었다.

생각건대 이 다섯 신하는 비록 그 뜻과 효험은 당시에 볼 수는 없었으나 혹은 현명한 재주를 가지고도 포부를 다 펼치지 못했고, 혹자는 먼 지방에 있어 임금께 미처 알려지지 않아 풍성(風聲)¹³⁰만은 오히려 백세에 세울 수 있다면 옛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난 시골 선비가 죽으면 사(社)에 제사 지낼 만하다’는 한유(韓愈)의 글이 바로 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현인을 위해서고 사액하여 기리는 것은 그 일이 중해서이니 많은 선비들이 덕을 사모하여 이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면 국가에서 현인을 높이 존중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데 끝내 사액을 내려주는 은전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러 현인들을 비교하여 말해보자면 이미 성묘(聖廟)에 배향 했다면 무릇 여러 곳에 세워진 사당이 모두 사액의 은전을 입고 있으니 대개 배향의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 신하의 덕행과 학업을 되돌아보건대 이미 옛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고 후세의 학자들[來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최치원은 이미 종사(從祀)의 반열에 있는데 오직 이 사우만이 어찌하여 홀로 사액을 받지 못했습니까? 옛날 선왕조에 도내 유생들이 일찍이 이 일을 성상(天陞 ; 임금의 거처)께 진달하였는데 마침 그 당시 조정에 많은 일이 있어서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사문에 큰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신들이 번거롭고 외람된 죄를 피하지 않고 합동으로 봉장(封章)해 천리 길을 와서 다시 이렇게 구중궁궐에 계신 전하께 호소합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 바라는 실정을 살펴 생각하셔서 누대의 조정에서 오래도록 하지 못했던 은전을 거행해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빨리 사액을 내리셔서 원우를 빛나게 하시고 제사를 영원히 지내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까.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며 지극히 황공한 마음 이기지 못하고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니다.

소두(疏頭) 생원(生員) 유지춘(柳之春)

제소(製疏; 청액상소문을 지은 사람) 진사(進士) 송명연(宋明淵)

130 풍성(風聲) : 윗사람의 공덕 또는 교육을 통해 아랫사람 내지 풍속을 감화시키거나 교화시키는 것이다.

사소(寫疏; 청액상소문을 쓴 사람) 생원(生員) 김정삼(金鼎三) 이후배(李厚培)

유학 김원(金垣) 김익초(金益初) 은정화(殷鼎和) 은정현(殷鼎鉉) 정지인(鄭之仁) 정송년(鄭松年) 정지웅(鄭之雄) 김상경(金尙敬) 김태중(金泰重) 이성연(李星淵) 김상겸(金尙謙) 이성필(李星弼) 송상익(宋相益) 이성규(李星奎) 신만옥(辛萬煜) 송재량(宋載亮) 김상준(金尙俊) 김양채(金亮采) 김상채(金相采) 정세관(鄭世觀) 송산두(宋山斗) 송산보(宋山甫) 정만기(丁萬期) 김상전(金尙傳) 정세태(鄭世泰) 김신주(金信胄) 이성기(李星箕) 송치량(宋致亮) 송상기(宋相夔) 송상직(宋相稷) 정세익(鄭世益) 권익재(權益載) 권유재(權有載) 송홍보(宋弘輔) 조여흠(趙汝欽) 이구서(李龜瑞) 김운익(金雲翼) 김명익(金溟翼) 김치백(金致白) 김태초(金太初) 이대령(李大齡) 홍응기(洪應玓) 조상선(趙相宣) 김만채(金萬采) 김세강(金世剛) 김봉익(金鵬翼) 김치화(金致和) 김상형(金尙衡) 김신채(金愼采) 김상현(金尙鉉) 김치상(金致祥) 김상설(金尙說) 송도연(宋道淵) 나서규(羅瑞奎) 나서성(羅瑞星) 송현보(宋賢輔) 송도보(宋道輔) 이필정(李必挺) 이필기(李必起) 정 설(丁 說) 정 오(鄭 璈) 권민성(權敏聖) 권 만(權 鐔) 오윤익(吳允益) 오윤중(吳允中) 이봉서(李鳳瑞) 경화학(景華學) 김응삼(金應三) 장명한(張溟翰) 김응백(金應白) 경화우(景和雨) 경화성(景和星) 황 흠(黃 欽) 한후기(韓后琦) 장남한(張南翰) 오성해(吳聖海) 최 현(崔 炫) 한후성(韓后成) 최 기(崔 岐) 최주창(崔胄昌) 안대덕(安大德) 최익화(崔益華) 최 저(崔 褚) 최 녹(崔 祿) 최 우(崔 祐) 고두광(高斗光) 고두명(高斗明) 고두표(高斗杓) 서문대(西門台) 조산하(趙山河) 이만영(李萬榮) 백광호(白光瑚) 윤우일(尹遇一) 백광우(白光瑀) 이 선(李 繕) 이시열(李時說) 조여익(趙汝益) 이필옥(李必郁) 황재중(黃載重) 김태오(金泰五) 이후량(李后亮) 배만후(裴萬垆) 유익장(柳益長) 홍중연(洪仲衍) 박태진(朴泰眞) 김복겸(金復謙) 오명기(吳命祺) 유광옥(柳光玉) 양응팔(梁應八) 이구석(李龜錫) 김응의(金應義) 이구상(李龜祥) 황세흠(黃世欽) 유몽린(柳夢麟) 송시관(宋時瓘) 이재흥(李載興) 박대항(朴大恒) 유종혜(柳宗惠) 강만순(姜萬純) 임종곡(林宗穀) 조기전(趙器全) 문만위(文萬緯) 이관제(李寬濟) 송은성(宋殷成) 유 림(柳 濂) 유우계(柳友桂) 이명옥(李命郁) 유필수(柳必壽) 임치홍(任致弘) 유하영(柳夏英) 유하진(柳夏振) 남필기(南必箕) 조정봉(趙禎鳳) 김백겸(金百兼) 김중화(金重華) 심수태(沈壽台) 기정희(奇挺會) 기정옥(奇挺玉) 김백련(金百鍊) 변 유(邊 攸) 변 구(邊 球) 변치용(邊致用) 기정위(奇挺緯) 반세무(潘世茂) 김백흠(金百欽) 변 희(邊 僖) 변 위

(邊 偉) 심석기(沈碩基) 이익원(李益元) 변 찬(邊 贊) 권옥형(權玉衡) 윤지요(尹志堯) 소
완(蘇 玩) 변치상(邊致尙) 최수경(崔受慶) 소 빈(蘇 玼) 권석형(權碩衡) 소 완(蘇 琬) 진
명신(陳命新) 임만태(林萬泰) 이 용(李 溶) 김응규(金應奎) 소경정(蘇景鼎) 진유신(陳維
新) 황도제(黃道濟) 김기봉(金紀鳳) 최흥조(崔興祖) 유현기(兪顯基) 소 환(蘇 璣) 최익조
(崔翊祖) 이덕저(李德著) 소진필(蘇震苾) 유경기(兪慶基) 이기석(李基錫) 소홍원(蘇弘遠)
최홍조(崔弘祖) 최치상(崔致相) 이 격(李 激)

김서봉(金瑞鳳) 김몽신(金夢臣) 이 관(李 {火+寬}) 김 근(金 瑾) 유수휘(柳秀輝)

유도휘(柳道輝) 송만성(宋晩成) 이 운(李 漚) 이사선(李嗣先) 채 근(蔡 根) 채 장(蔡
章) 은정매(殷鼎梅) 김도형(金道亨) 진사 이정헌(李徵憲) 이석봉(李錫鳳) 이백익(李白翊)
김오일(金五一) 변 수(邊 修) 이 후(李 {后/田})

청액사적(請額事蹟)

1695년(을해) 11월 13일 본 서원에 모여 도내로 알렸고, 12월 초1일에 본읍 향교에서 소회(疏會)를 하였다. 1696년(병자) 정월 초5일에 봉소(封疏)하고 2월 초9일에 왕에게 윤희를 받아 11월 23일에 사액을 맞이하였다.

예조가 계문(啓聞)하기를 “이 전라도 생원 유지춘(柳之春) 등의 상소를 보면 신라 문창 후 최치원은 사문의 종장(宗匠)으로 혼란한 시절에 태산군 태수로 임명되었으니 곧 지금의 태인현입니다. 유풍(遺風)의 여운이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함께 하나의 당(堂)을 지어 은혜에 보답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일찍이 수령을 지낸 본조(本朝)의 선정신(先正臣) 신잠을 그 사(祠)에 합향하였고, 향현(鄉賢)인 정언 정극인·좌랑 송세림·진사 정언충·목사 김약목·진사 김관을 배향했습니다. 여러 신하의 덕행과 학업이 옛 사람에 부끄럽지 않고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미 제사 지낼 곳이 이루어졌으나 선액(宣額)¹³¹하는 은전이 아직 시행되지 못해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해 급히 화려한 편액을 반포하여 원우(院宇)를 장식하여야 하는 바 최치원은 도학(道學)이 뛰어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성묘(聖廟)에 철식(饌食)하고 있고 신잠은 학교를 흥기시키고 인재를 길러 성대한 유교의 교화가 있어 지금까지 읍민(邑民)들에게 사랑을 남겼습니다. 향현 정극인 이하 다섯 사람은 모두 학식이 있어 두드러지게 칭송을 받아 많은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며 존경하여 그리워하는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을 세운지가 이미 오래되고 또 거듭 세운 사당도 없으니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온당할 것 같아 사액(賜額)을 해주시되, 사안이 장려와 중전(重典)에 관계되어 있기에 아래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1696년(병자) 2월 9일 동부승지 신 심평(沈浬)¹³²이 담당하여 아뢰니 특별히 사액하라

131 선액(宣額) : 임금의 현판을 내리는 은전을 뜻한다.

132 심평(1642-미상) : 청송(靑松) 심씨이고, 자는 여기(汝器)이다. 1677년(숙종 3)의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80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지평, 장령, 강원도관찰사, 도승지, 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는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액호(額號)로 무성(武城)·태산(泰山)·남천(南川)을 보고하자 수망(首望)인 무성으로 왕의 윤허를 받았다. 복호(復戶) 3결, 원생(院生) 30명, 보노(保奴) 30명을 서원에 획급(劃給)해주었다.

연액례(延額禮)

- 본관(本官)이 행사 당일에 앞서서 사자(使者)의 자리 및 향축(香祝)¹³³과 액호(額號)를 봉안할 막차(幕次)¹³⁴를 묘문(廟門) 밖의 서남향에 설치한다.
- 사자가 향축과 액호를 용정(龍亭)¹³⁵에 담아 수행하여 서원 대문 밖에 이르도록 한다.
- 유생들이 나와서 길의 왼쪽에 차례로 서서 향축과 액호가 도착하면 몸을 숙여 공경이 맞이하고 지나가면 몸을 편다.
- 사자가 대문 밖에 서고 집사(執事)는 축향과 액호를 받들어 막차의 상탁(床卓) 위에 봉안한다.
- 알자(謁者)¹³⁶가 사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나아간다.
- 대축(大祝)¹³⁷은 손을 씻어 전축(填祝) 한다.
- 찬인(贊引)¹³⁸이 대축과 집사를 인도하여 먼저 들어가서 관세위(盥洗位)¹³⁹로 나아가고 각자 자리로 간다.
- 대축은 신위(神位)로 가는데 동남서향하여 선다.
- 집사관(執事官)은 신위로 나아가는데 서남동향하여 선다.
- 제생(諸生)은 뜰 한 복판[庭中]으로 나아가 북향한다.
- 축문상(祝文床)은 신위의 왼쪽에 설치한다.
- 향로와 향합상(香盥床)¹⁴⁰을 진설한다.
- 액호(額號)를 앞 기둥 계단 위의 탁자에 설치한다.

133 향축(香祝) : 제사에 쓰이는 향과 축문을 의미한다.

134 막차(幕次) : 임시로 장막을 쳐서 높은 사람들의 수레를 잠깐 머물게 하는 곳을 의미한다.

135 용정(龍亭) : 나라의 옥책(玉冊)·금보(金寶) 등을 실어 나르는 데 쓰는 견여(肩輿)를 의미한다.

136 알자(謁者) : 제사 때 빈객(賓客)을 인도하거나 국가의 제사 때 제관(祭官)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

137 대축(大祝) : 제향을 올릴 때 축문을 읽는 사람이다.

138 찬인(贊引) : 제사를 거행하면서 예의(禮儀) 절차대로 도와 인도하는 사람이다.

139 관세위(盥洗位) : 제향을 올릴 때 제관이 손을 씻는 자리이다.

140 향합상(香盥床) : 향합은 제사 때 향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놋그릇이다.

- 집사가 제물을 받들어 신위 앞에 자리를 마련하며 대축이 제문을 받들어 내온다.
- 집사 두 사람은 향과 액호(額號)를 받들고 먼저 들어온다. 여러 유생이 몸을 굽히고 공경이 맞이하였다가 지나가면 몸을 편다.
- 향을 받들어 책상 위 통에 담고 축(祝)을 받들어 신위의 동쪽 상 위에 두며 액호는 받들어서 앞 기둥 계단 위의 탁자에 둔다.
-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고 동문에 서서 계단 사이에 북쪽을 향하여 선다.
-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간다.
- 알자는 사자를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신위의 동북남향하여 선다.
- 유생은 사배(四拜)하고 찬자가 ‘국궁(鞠躬), 배(拜), 흥(興), 평신(平身)’이라고 의식대로 창한다.
- 대축은 판위(板位) 앞에 나아가 개독(開讀)¹⁴¹한다.
- 알자가 사자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서고 집사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다른 한 사람은 향합(香盥)을 받들어 사자의 좌우에 꿇어앉아 나간다.
- 사자는 서서 세 번 향불을 피운다.
- 대축은 헌폐(獻幣)하고 사자가 받아 대축에게 다시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 사준(司樽)¹⁴²이 술을 따르며 집사관(執事官)이 술잔을 사자 앞에 드린다.
- 사자는 술잔을 집사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연달아 세 잔을 올린다.
- 다음에 배위(配位)로 나아가 상향(上香)·헌폐(獻幣)·전작(奠爵)¹⁴³을 의식대로 마치면 사자는 자리로 돌아오며 유생은 꿇어앉는다.
- 대축이 제문을 가지고 신위의 왼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읽는다.
- 찬인은 사임(祠任)을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신위 앞에 엎드린다.
- 사자가 액호를 내린다.

141 개독(開讀) : 제사를 지낼 때 신주를 모신 독을 여는 행위를 뜻한다.

142 사준(司樽) : 향례 때에 제주(祭酒) 단지를 맡아보던 사람이다.

143 상향(上香)·헌폐(獻幣)·전작(奠爵) : 이는 향을 피우고, 폐백을 받들어 올리며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는 것이다.

- 찬인이 사임을 인도하여 내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유생은 사배한다.
- 찬자가 ‘국궁(鞠躬), 배(拜), 흥(興), 평신(平身)’이라고 의식대로 창한다.
- 알자가 사자에게 나아가서 앞에서 예가 끝났다고 고한다.
- 대축과 집사관이 제문과 폐백을 받들어 요소(燎所)로 나아가 불사른다.
- 알자가 사자와 제집사관을 인도하여 강당으로 나가고 유생들은 차례대로 나간다.
- 사임은 꿇어앉아 예폐(禮幣)를 올리면 사자는 서서 이를 받는다.
- 사임이 조금 물려서서 재배하면 사자는 읊을 한다.
- 그 다음에 집사관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예폐(禮幣)를 바치면 집사관(執事官)은 서서 받는다.
- 사임이 조금 물려서서 재배하면 집사관은 답하여 재배하고 좌정한다.
- 그대로 예를 행한 뒤에 사자가 일어나면 사임이 대문 밖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 전송한다.

1696년(병자) 11월 23일

제문(祭文)

유세차(維歲次) 1696년(병자) 11월 갑인삭(甲寅朔) 23일 병자에 국왕은 예조좌랑 유격(柳格)¹⁴⁴을 보내 문창후 최치원과 선정신 신잠·정언 정극인·좌랑 송세림·진사 정언충·목사 김약묵·진사 김관의 혼령에 제사를 지냅니다.

아! 생각건대 문창은 신라 말년에 탄생하여 중국 조정의 관직을 역임하고 성대하게[蔚然] 나라의 상서가 되신 분으로 문장과 학술이 길고 오랜 세월[千祀] 동안 환하게 빛나 장성(將聖)의 사당에 배향되어 사문(斯文)이 실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방의 유교가 실로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세상이 혼탁한 것을 싫어한 나머지 빛을 감추고 한가함을 택하였습니다. 난새가 가시나무에 깃들었나니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저 태산이라. 공의 유풍과 여운이 귀와 눈에 혁혁한지라 고을 사람들이 추모하면서 보은의 제사를 오늘도 올립니다.

신잠과 같은 기묘명신(己卯名紳)이 이 읍에 수령으로 부임하여 조금 경륜(經綸)을 시험해 교화를 베풀어 학교를 일으키고 후학들을 이끄니 문풍(文風)이 크게 변하여 남기신 은덕이 백성들에게 남았습니다. 또한 다섯 신하 역시 훌륭한 명성이 모두 드러나 한 지방의 본보기가 되어 남쪽 지방의 인망이 되었으니 혹은 조정에 오르고 혹은 재야에 묻히셨습니다. 무릇 그 행적이 서로 오르내리나 땅에 남기신 자취가 보존되어 고을 선비들이 그분들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겨 한 당[一堂]에서 제향하는데 사당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름다운 편액을 내려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도록 하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애도와 영예이니, 영령께서는 흠향하소서.

144 유격(1633-미상) : 전주(全州) 유씨이고, 자는 정부(正夫)이다. 1694년(숙종 20) 갑술 별시 병과 1위로 합격하였다. 통덕랑, 예조좌랑, 예조정랑 등을 거쳤다.

사자(使者) 예조좌랑 유격(柳格)

대축(大祝) 순창군수 이직(李湊)¹⁴⁵

봉향(奉香) 정읍현감 신희징(申喜澄)¹⁴⁶

봉로(奉爐) 태인현감 이당(李堂)¹⁴⁷

원장 영의정 남구만(南九萬)¹⁴⁸

경유사(京有司) 응교 조상우(趙相愚)

원임(院任) 유학 김만채(金萬采) 은정화(殷鼎和)

집례(執禮) 생원 김대형(金大衡)

예관(禮官) 폐물(幣物) : 채단(彩段) 1필, 백저포(白苧布) 1필, 장지(壯紙) 5속

대축(大祝) 장지(壯紙) 3속 봉향(奉香) 장지(壯紙) 2속, 백지(白紙) 1속

봉로(奉爐) 장지(壯紙) 3속

예조서리(禮曹書吏) : 전문(錢文) 22냥, 채단 1필, 백목(白木) 1필, 장지(壯紙) 7속, 백지 3속

145 이직(1651-미상) : 한산(韓山) 이씨이고, 자는 우정(虞庭)이다. 1675년(숙종 1) 식년 문과시에서 병과 4위로 합격하였다. 순창군수 등을 거쳤다.

146 신희징(1639-미상) : 고령(高靈) 신씨이고, 자는 성삼(聖三)이다. 1677년(숙종 3) 증광 진사시에서 3등 39위로 합격하였다. 헌릉참봉, 제용봉사, 선공직장, 남부주부, 정읍현감 등을 지냈다.

147 이당(1650-미상) : 전주(全州) 이씨이고, 자는 사궁(士肯)이다. 1673년(현종 14) 식년 진사시에서 3등 24위로 합격하였다.

148 남구만(1629-1711) : 의령(宜寧) 남씨이고, 자는 운로(雲路)이다. 1651년(효종 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56년(효종 7)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주서, 정언, 교리 등을 거쳐 이조정랑, 대사성, 전라도관찰사 등을 거쳤다. 병조판서로 재직하면서 폐사군의 재설치를 주장하여 무성과 자성 2군을 설치하였다.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687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1688년에 소론의 영수로 지목되었고, 1689년에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득세하자 강릉으로 유배되었다. 1694년에 갑술옥사를 계기로 다시 영의정에 기용되고, 1696년에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각읍예부기(各邑例賻記)

- 순찰사 김만길(金萬吉)¹⁴⁹ : 쌀 2석 장지(壯紙) 2속, 후백지(厚白紙) 2속
- 본관(本官 ; 태인현감) 이당(李堂) : 원우(院宇) 안 백문석 지의(白紋席地衣) 1건, 찹쌀[眞米] 6두, 벼[租] 1석, 백지(白紙) 10속, 누룩[曲子] 2동, 감장(甘漿) 2두
- 정읍관(井邑官 ; 정읍현감) 신희징(申喜澄) : 전문(錢文) 2냥, 백미(白米) 5두, 장지(壯紙) 1속, 백지 2속, 조기[石魚] 2속, 민어(民魚) 1마리, 꽃감(乾柿) 2첩
- 금구관(金溝官 ; 금구현감) 조해(趙楷)¹⁵⁰ : 쌀 10두, 백지 3속, 누룩 1동
- 부안관(扶安官 ; 부안현감) 이만선(李萬選)¹⁵¹ : 쌀 1석, 누룩 1동, 찹쌀 2두, 생어(生魚) 1속, 닭 2마리[首], 송판(松板) 2냥[立]
- 정읍향교(井邑鄕校) : 전문 5냥
- 흥덕향교(興德鄕校) : 백지 4속 전(錢) 2냥
- 남원향교(南原鄕校) : 전문 5냥
- 광주향교(光州鄕校) : 백목 2필
- 본읍 향교(本邑鄕校) : 백미(白米) 2석
- 나주향교(羅州鄕校) : 장지 5속
- 전주향교(全州鄕校) : 전문 4냥
- 금구향교(金溝鄕校) : 전문 5냥
- 순창향교(淳昌鄕校) : 백지 5속
- 순천향교(順天鄕校) : 백목(白木) 2필

149 김만길(1645-미상) : 광산(光山) 김씨이고, 자는 자적(子迪)이다. 1682년(숙종 8)의 춘당대 문과(春塘臺文科)에 을과로 급제한 뒤 지평, 부교리, 강원도관찰사, 부제학,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1697년에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50 조해(1639-1699) : 함안(咸安) 조씨이고, 자는 군범(君範)이다. 1681년(숙종 7)에 천거로 공릉참봉,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 홍천현감을 역임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 뒤 금구현령이 되었는데, 진휼을 잘하여 칭송을 들었다. 1697년 순창군수가 되어 3년간 재임하였다.

151 이만선(1654-1735) : 전주(全州) 이씨이고, 자는 택중(擇中)이다. 1693년(숙종 19)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삼사와 승정원의 관직, 금구현감 등을 역임하였고, 관윤까지 이르렀다.

- 고암서원(考巖書院) : 전문 10냥
- 남고서원(南臯書院) : 백미 10두, 전 4냥
- 의암서원(義巖書院) : 전문 2냥
- 동학당(東學堂) : 백미 7두
- 북학당(北學堂) : 백미 5두
- 서학당(西學堂) : 백미 5두
- 남학당(南學堂) : 논 3마지기 납부
- 흥양정씨 문중(興陽丁氏門中) : 백목 7필
- 청액하는 일로 본교(本校)에서 소회(疏會)할 때 들어간 쌀 42두 7승
- 소행(疏行)하는 일로 상경할 때 들어간 돈 91냥, 들어간 쌀 17두
- 연액(延額) 때 반미(飯米) 37두, 주미(酒米) 44두, 찹쌀 65두, 전 43냥 8전, 벼 3석 12두, 소 3마리[隻]
- 1696년(병자) 봄 원우를 중수할 때 들어간 쌀 154두 7승, 벼 3석 11두 4승, 전 11냥 1전
- 9월 15일 원우를 다시 수리할 때 들어간 쌀 50두 5승, 벼[租] 6두 7승, 전 1냥 3전
도유사 유학 김우삼(金禹三) 별유사 권효성(權效聖)

축문기(祝文記)

유년(維年) 모월 모일에 아무개가 감히 문창후 최 선생에게 밝게 고합니다. 삼가 생각 하건대 공은 누구보다 먼저 중국에 유학해서 도와 함께 동방으로 돌아오고 우리 후학을 창도하여 만고토록 영풍(英風 ; 영특하고 걸출한 풍채)을 드날린 분이셨습니다. 이에 중정일(仲丁日)을 만나 정결한 제사를 올리기 알맞아 삼가 희생과 폐백 등[牲幣] 여러 가지 물품을 차려서 신명께 올립니다. 불우헌 정 선생·눌암 송 선생·묵재 정 선생·성재 김 선생·명천 김 선생을 배향하니 부디 흠향하소서.

영천 신 선생께서는 삼가 십훈(十訓)으로 선비를 가르치시고 삼사(三事)로 다스려 은택 이 백성들에게 끼쳐 오래도록 공경합니다. 이에 중정일(仲丁日)을 만나 정결한 제사를 올리기 알맞아 삼가 희생과 폐백 등[牲幣] 여러 가지 물품을 차려서 신명께 올립니다. 불우헌 정 선생·눌암 송 선생·묵재 정 선생·성재 김 선생·명천 김 선생을 배향하니 부디 흠향 하소서.

원생 관문(院生關文)

관찰사 겸 순찰사가 상고함

지금 접수된 예조의 관문 내용에 이번에 계하한 계사를 대신과 비변사[備局] 당상을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하였을 때 “서원 하재유생(下齋儒生)의 인원수가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정하는 일을 임금님 앞에서 결정[楊前定奪]¹⁵²하여 이미 사액서원은 20명으로, 사액 받지 못한 서원은 15명으로, 문묘종향(文廟從享)된 유현(儒賢)의 서원(書院)은 30명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시행하도록 제도(諸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윤허한다고 전교하셨다.

계하(啓下)하신 내용을 상고하여 도내 각읍 서원에 알려서 시행하게 하는 관문(關文)이다. 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상고하여 유생의 인원수를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되 서원에 알려서 시행할 것

152 답전정탈(榻前定奪) : 신하가 제기한 의견에 임금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흘기(勿記)

- 헌관과 집사가 3일 전에 치재(致齊)한다.
- 행사일 4경 1점 시점¹⁵³에 축(祝) 이하는 주독(主讀)¹⁵⁴과 덮개를 연다.
- 찬인(贊引)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진설(陳設)을 점검하여 보고 원 자리로 돌아온다.
- 제생(諸生) 및 제집사(諸執事)를 모두 모시고 문 밖의 자리에 서도록 한다.
- 집례(執禮)와 찬인은 동문(東門)으로 들어가 먼저 나아가 절하고 제자리로 가서 재배(再拜)한다.
-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면 찬인이 제생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문 밖의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 찬인이 축과 제집사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고 축 이하는 모두 재배하며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간다.
- 각각 자리로 가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간다.
- 헌관과 제생은 모두 재배를 행한다.
- 초헌례(初獻禮)에 찬인이 초헌관(初獻官)의 왼쪽으로 나아가 “유사(有司)들이 다 갖추어졌으니 행사하소서”라고 아뢴다.
- 찬인이 초헌관을 인도하고 관세위에 도착하면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영천(靈川) 신 선생의 준소(樽所)¹⁵⁵로 인도하여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 인도하여 문창공 최 선생의 신위(神位)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俯伏] 일어나 전폐(奠幣)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奠爵)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무릎을 꿇어앉고 축문을 읽는다.
- 인도하여 영천 신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153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넷째 부분인 사경(四更)의 한 시점(時點)이다. 사경(四更)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이다.

154 주독(主讀) : 신주를 모셔 넣어 두는 궤를 의미한다.

155 준소(樽所) : 제향을 지낼 때 술상을 차려 놓는 곳이다.

- 엎드렸다[俯伏]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고 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나 무릎을 꿇어앉고 축문을 읽는다.
- 배위의 준소(鱗所)로 인도하여 동향하여 선다.
- 인도하여 불우현 정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 인도하여 놀암 송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 인도하여 목재 정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 인도하여 성재 김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 인도하여 명천 김 선생의 신위 앞에 꿇어앉고 세 번 향을 올린다.
-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폐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전작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 아헌례(亞獻禮)를 행하고 마지막에는 종헌례(終獻禮)도 위와 같다.¹⁵⁶
- 음복수조(飮福受胙)¹⁵⁷는 찬인이 초헌관을 인도하며 올라가 음복(飮福)할 위치로 가서 서향하여 서며 봉작(奉爵)하고 모두 일어나 몸을 펴며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 헌관과 제생은 모두 재배하고 축이 변두(邊豆)를 거둔다.
- 헌관과 제생이 모두 재배하고 축이 주독의 뚜껑을 닫아서[闔櫝] 망예(望瘞)¹⁵⁸한다.
-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고 망예하는 자리로 가서 축례(祝禮)를 마친다.
- 헌관과 제생은 차례대로 나오고 집례와 찬인이 재배하고 나온다.

156 조선시대 제례의식의 절차이다. 아헌은 두 번째로 올린다는 뜻이고, 종헌은 세 번째로 올리는 것이다. 보통 순서는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망요례(望療禮)이다.

157 음복수조(飮福受胙) :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고기를 제관들이 나누어 받던 것을 의미한다.

158 망예(望瘞) : 제사를 끝나치고 대축(大祝)이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일정한 곳에 묻거나 불사를 때 헌관(獻官)과 집례(執禮)가 지켜보던 것이다.

문창후 최 선생 영정 봉안 사적(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정조 7년 1783년(계묘) 10월 모일(某日)에 흥양(興陽)과 낙안(樂安) 두 고을의 통문 다음과 같이 통문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귀읍(태인현)은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고을이 아닙니까? 태산의 위상과 곡수(曲水)의 으뜸은 모두 선생께서 남기신 기풍이 아닌 것이 없으니 여러 군자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바가 다른 선인들보다 배나 더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전에 들으니 선생의 영정(遺像)이 지리산 쌍계사(雙溪寺)에 있다 하였는데 이는 선생이 노닐던 곳[逍遙]이라서 승려들이 벽에 걸었던 것이 고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높은 도덕으로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선생의 영정이 나한(羅漢)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은 어찌 사문(斯文)의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호남과 영남의 유생들이 근래 공의(公議)를 내서 궤리사(關里祠)¹⁵⁹ 중수청(重修廳)의 여러 유생과 또 하동향교에 통문을 보내 쌍계사의 승려들에게 신칙하여 곧 선생의 먼 후손(雲孫) 집안으로 옮겨 봉안하니 사람에게 다행스럽기가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천고(千古)의 영정이 뚜렷하게 오늘날에 있게 되어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우러러 보니 공경이 일어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사적으로는 한 집안에서 높여 받들기 보다는 차라리 공적으로 온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먼 후손의 영락함이 매우 심해 한 칸의 영당(影堂)도 짓기 어려워 위에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이닥쳐 먹빛이 변해 채색을 흐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론(士論)에서 당초 옮겨 봉안[移奉]할 뜻이 처음 일어났으나, 거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데에 돌아가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귀읍의 무성사(武城祠)는 곧 선생의 제향을 모시는 곳[妥靈之所]으로 많은 선비들이 흠양하니 영정 또한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의 영정을 선생의 신위(神位)에 걸 어둔 후 때때로 우러러 배례(拜禮)하며 오래도록 존경하고 그리워한다면 선생의 먼 후손에게도 절로 난처할 것이 없고 또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성으로 받들 곳이 될 것이니[揭

159 궤리사(關里祠) : 조선시대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공자의 출생지가 중국 산둥성(山東省) 곡부현(曲阜縣) 궤리(闕里)이므로 궤리사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조 대 화성에 궤리사를 모방하여 동국궤리사를 만들었다.

處¹⁶⁰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에 가까운 곳의 여러 선비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의논하고 선생의 먼 후손인 최항대(崔恒大)를 보내어 여러 군자들의 높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어떠합니까? 바라건대 모름지기 헤아려 살피시며 결정해 주신다면 보다 다행이 없겠습니까. 공경히 태인향교에 통문을 보냅니다.

통두(通頭) 유학 정덕보(丁德輔), 제통(製通) 양백해(楊伯楷)

본읍(本邑)의 답통

다음은 통문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세상에서 고운 선생을 크게 우러러 봄에 자천대[紫遷臺]¹⁶¹와 가야산[伽倻之遊]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며 천년이 지난 뒤에도 다만 맑은 하늘을 떠받치는[柱晴], 산봉우리의 구름[嶂雲]과 맑



1783년 무성서원 중수일기 (자료제공:정읍시립박물관)

- 160 계건(揭虔) : 선현에게 추앙하는 정성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사우를 세워서 위패를 봉안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 161 자천대(紫遷臺) : 옥구에 있던 최치원 관련 유적지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자천대(紫遷臺)는 서해안에 있다. 지세가 평평하고 넓으며, 샘과 돌이 가히 사랑할만하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최치원이 놀던 곳이라 한다”고 기재되었다. 옥구군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있었으나 비행장이 생기며 현재의 위치(옥구면 선연리)로 옮겨졌다.

은 달[澄月], 못 위의 연기[潭烟] 구절을 암송할 뿐입니다. 대개 이는 선생의 화상(畫像)에 찬하는 말이었으나 후생말학이 건문이 적고 비루하여 찬문(贊文)이 전해지나 화상의 소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절[梵宇]에서 본손의 집안에 봉안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한편으로는 놀랍고 의아했으며, 한편으로는 기쁘고 다행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가(禪家)에서는 석가와 달마의 상(像)을 높이 받드는데 선생의 영정은 어찌 천년 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는 오도자(吳道子)¹⁶²가 자로(子路)를 그리고 고향(顧況)이¹⁶³ 안자(顏子)를 그린 것인저!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 공자의 화상을 중국[中州]에서 구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엄숙하게 구슬과 옥[珠衡; 공자를 상징함] 같은 화상에 배례(拜禮)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皇明] 때 사행(使行) 길에 주자(朱夫子)의 화상을 그려오니 우리나라[左海] 선비들이 처음으로 시원한 연잎 구슬 같은 화상을 보았습니다. 선생의 영정은 신라와 고려 때 만들어 보관하던 것이 전해진 것으로 한 폭의 그림 속에 남겨진 모습이 뚜렷하며, 선비들이 우러러 바라보고 정성을 펴 마치 스승의 곁에서 직접 뵈는 듯하니 크게 다행스러운 까닭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도 선생이 수령을 지낸 고을에서 그리고 노니시던 땅에 한 칸의 영당을 지어야 마땅하며 호남과 영남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 협의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형편에 따라 무성서원[安靈之祠]에 봉안하고자 하니 여러 군자들이 이런 저희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신 것입니다.[先獲我心] 이에 이번 달 18일에 우리 읍의 유생 제회(齊會)를 하고, 내년 음력 2월[仲春] 중정일(仲丁日)에 무성서원으로 영정을 옮겨 봉안하도록 의절을 정하여 배행 유사(陪行有司) 두 명[二員]의 이름을 부기하니 여러 군자들께서는 기한이 너무 늦고 의절이 소략함을 허물로 여기지 마소서. 공경히 홍양·낙안 향교에 통문을 보냅니다.

통두 김광운(金光運)

162 오도자(吳道子) : 도자(道子)는 당(唐) 나라의 유명한 화가인 오도현(吳道玄, 685-758)의 자(字)이다. 그는 산수(山水)와 불상(佛像)에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

163 포옹(逋翁) : 당(唐) 나라의 유명한 화가이자 시인인 고향(顧況, 미상-미상)의 자(字)이다. 시와 진행서(眞行書)에 능하고, 수목산수화에 능했다고 한다.

영정 봉안시 정장(影幀奉安時呈狀)

성주 합하(城主閣下)께 삼가 아뢰입니다. 본읍(本邑)의 고현(古縣)은 곧 태산의 옛 치소(治所)이며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께서 은거하시던 곳입니다. 산으로는 가야산과 시산이 있으니 곧 선생께서 노닐던 곳입니다. 월연대(月延臺)와 유상대(流觴臺)는 곧 선생께서 술잔을 들며 시를 읊던 곳입니다. 그리하여 후대 사람들이 월연대 아래에 사(祠)를 세워서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지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그 후 영천(靈川) 신 선생(신잠)과 동강(東岡) 조 상공(相公 ; 조상우)이 태인현으로 부임해 오셔서 서원의 터에 향학(鄉學)을 설치하고 초하루에는 반드시 공경한 마음으로 배알하고 유상대 옛 터를 중수하여 날마다 가서 쉬셨으니 어찌 선현(先賢)의 아름다운 자취를 사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덕이 펼쳐진 마을 안에 오히려 군실(君實 ; 사마광)¹⁶⁴의 그림이 없고, 금성(錦城)의 문물과 교화에도 오히려 괴애(乖崖; 장영)¹⁶⁵의 그림이 보이질 않으니 남아 있는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미루어 생각건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작년 겨울에 낙안과 홍양에서 통문이 도착하였는데, “본손(本孫)의 집안에 봉안된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의 영정을 본손이 쇠락(凋殘)하여 삼가 본현(태인현)의 무성서원으로 옮겨 봉안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성대합니다! 선생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중국 [北方]에서 공부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문묘에 배향되었습니다. 당시에 실을 사다 수를 놓았는데 과연 비단 위에 채색된 초상화(神鑑)가 전해져 돌아오는 해에 오계(五季)¹⁶⁶의 비바람에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삼한의 병화(兵燹)¹⁶⁷에도 미쳐 사라지지 않고 닳

164 군실(君實) :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저자로 유명하다. 신종 초에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에 반대하여 은퇴하였다. 철종 때에 다시 재상이 되자, 신법을 폐하고 구법(舊法)으로 통치하였다. 사마광이 사망하자 사망에서 그를 기려 초상화를 그려 제사를 지냈다.

165 괴애(乖崖) : 송(宋) 나라 장영(張詠, 946-1015)의 호이다. 그는 익주(益州), 항주(杭州), 승주(升州) 등의 자사(刺史)로 나가서 가는 곳마다 치적을 세웠다고 한다. 특히, 지금의 사천 지역인 익주자사를 지낼 때 선정을 베풀어 여기에서는 익주의 별칭인 금관성(錦官城)을 금성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166 오계(五季) : 당나라 말기 이후 송이 건국될 때 까지를 오대(五代)라고 한다. 즉,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가리킨다.

167 병선(兵燹) : 전쟁으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병화(兵火)와 같은 뜻이다.

지도 않으며 완전히 쌍계사 법사(法師)에게 탈 없이 전해진 것이 거의 백년입니다.

절에서 본손의 집안으로 옮겨 보관하고, 본손의 집에서 무성서원[妥靈之所]으로 이안(移安)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서로 떨어진 거리가 500리인데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해졌고, 시대의 차이가 900여 년 차이인데 신이한 영정이 서로 뒤따르므로 어찌 그 사이에 운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학인 제가 천년 동안 우러러 사모하나 (선생의) 명성과 공적이 이미 오래되고 전형(典刑)은 의지할 것 없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빌려주어 천 백년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니 못 속 달빛[潭月]에 연기가 사라지고 갠 하늘에 구름 걷히니 또한 어찌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자 천년의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신명한 태수의 관패(冠佩)가 엄숙해 한 폭 자취를 살피는데 마치 다시 부임하신 듯 하여 한 읍의 남녀노소 및 아이들과 노인들 중 누가 우러러 바라보며 발돋움하여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월 보름 낙안의 본손 집안에서 선생의 영정을 이안하는 날을 2월 초6일에 출발하자고 하였으나 일자(日字)가 얼마 안남아 형세 상 나아가고 물러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쇠잔한 서원은 힘이 약해 무리한 공사를 일으켜 영당(影堂)의 판자와 화상, 휘장을 장차 어떻게 기일에 앞서 준비할 것이며, 멀고 가까운 유생들은 또한 어떻게 그때에 임하여[臨時] 물자를 조달할 것인지 본원의 원임(院任)을 한 고을의 명망 있는 선비들로 잘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별도로 선정해 이름을 부기하니 다만 생각건대 지영(祗迎; 예식을 갖추어 맞음)의 절차, 사체(事體)는 대개 유림들이 사사로이 혼자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감히 함께 소리 내어 우러러 합하(閣下)께 하소연합니다.

어진 이를 사모하고 선비를 아끼시는 아래에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헤아려 살펴주시어 넉넉히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소서. 곧바로 영문(營門; 감영)에 전보(轉報)하여 도착하는 곳에서 지영의 성대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또 즉시 공장(工匠)을 내려 주어 신축하고 대규모로 수리하게 하여 화려한 의식이 흥기되어 옛 사람들만이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장두(狀頭) 유학 김도수(金道修) 짓다.

김경우(金慶遇) 글씨를 쓰다.

영정 봉안일기(影幀奉安日記)

1784년(갑진) 2월 6일 태인현 배행유사 유학 김광일(金光一), 김재후(金載厚)가 낙안향교를 떠나서 순천부에 숙박하였다. 최치원 선생의 후손인 낙안의 최항대, 홍양의 최인갑(崔仁甲) 그리고 진사(進士) 최현대(崔顯大), 낙안향교의 교임(校任) 신영수(申永壽), 김이현(金以鉉)이 유생을 거느리고 영정을 맞이하였다. 순천부사(順天府使) 이혜조(李惠祚)가 절을 올렸고, 순천향교의 교임 김완(金玩)이 유생을 거느리고 맞이하였다.

7일 순천부를 떠나 북창(北倉)에 이르러 점심을 하고 저녁에 압록진(鴨綠津)을 건너 압록의 원사(院舍)에서 숙박하였다. 8일 압록원을 떠나 곡성읍(谷城邑)에서 점심을 하였다. 곡성향교 교임 이유근(李惟謹), 유완재(柳完載)가 유생을 거느리고 맞이하였다. 같은 날 곡성을 떠나 옥과읍(玉果邑) 관아에서 숙박하였는데 이승휘(李升徽)가 절을 올렸다. 옥과향교의 교임 김치현(金致賢率)이 유생을 거느리고 맞이하였고, 서원의 원임 심채진(沈埰鎭), 신치록(申致祿), 김달민(金達民)이 원생을 거느리고 맞이하였다. 9일 옥과를 출발하여 순창(淳昌)에서 점심을 하였다. 순창향교의 교임 한팔교(韓八教), 홍낙근(洪洛根)이 유생을 거느리고 맞이하였다. 같은 날 순창을 떠나 심원사(尋院寺)에서 숙박하였다. 10일 심원사를 떠나 무성서원에 도착하였다. 태인현의 김낙윤(金樂胤), 송계천(宋啓天)이 원생과 유생을 거느리고 능교(菱橋)에서부터 영정을 배행했다. 잠시 유상대에 봉안하였는데 김경우(金慶遇)가 맞이하였고 이어서 배행하였다. 같은 날 (서원에) 봉안하였다. 제향의 헌관(獻官)은 유학 김광추(金光秋)였고, 예차(預差)에 박양식(朴良植), 전사는 최일동(崔日東), 집례는 김치영(金致榮), 찬인은 정국교(鄭國僑), 찬창(贊唱)은 홍치경(洪致慶), 대축(大祝)은 송박(宋撲), 봉향(奉香)은 박대식(朴大植), 봉로(奉爐)는 송훈(宋訓), 전작(奠爵)은 김현탁(金賢鐸), 척기(滌器)는 안계창(安啓昌), 망예(望瘞)는 김기일(金基一)이었다.

영정 봉안축문(影幀奉安祝文)

유년(維年) 모월 모일에 삼가 문창공 최 선생과 영천 신 선생께 밝게 고합니다. 삼가 문창 선생의 도는 천년토록 이어지건만 의형을 담은 영정은 한 자 남짓한 화폭에 전할 뿐이네. 저 낙읍(樂邑)에서 옮겨 와 주벽(主壁)에 걸고 자리를 단단하게 하며 틈을 메꾸고 이에 길일[穀朝]을 택하여 공경히 그 사유를 고합니다. 삼가 자성과 여러 가지 제물로 제수를 차려 올리니 불우헌 정 선생, 놀암 송 선생, 묵재 정 선생, 성재 김 선생, 명천 김 선생을 배향하였으니 흠양하소서.

현감 서간수(徐簡修)¹⁶⁸, 재장 송정린(宋廷麟), 장의 김이길(金履吉), 색장 조석린(趙碩麟)

168 서간수(미상-미상):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그는 1843년(헌종 9) 10월에 태인에 도입하여 1845(헌종 11) 6월에 이배(移拜)하였다.

원우단확중수기(院宇丹腹重修記)

1783년(계묘) 10월 일에 낙안(樂安) 지역의 사인(士人) 최항대(崔恒大) 공이 홍양과 낙안 두 읍의 향교 유생들과 여러 선비들의 통문을 우리 고을(태인)으로 가져왔다. 최항대는 바로 문창공의 후손으로 그 통문의 내용을 보니 문창 선생의 화상(畫像)을 옮겨 봉안하는 일이었다. 무릇 선생의 영정을 상고하건대 신라에서 고려, (고려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류산 쌍계사(雙溪寺)에 보관되고 있었다. 불교가 유자(儒者)를 받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의 남겨진 초상(遺像 ; 영정)이 어찌하여 세상[世局]에서 삼가히 받들어졌는가? 아니면 쌍류(雙流)와 청계(淸溪)는 선생께서 노닐며 자적(自適)하신 곳으로 옛 모습을 절에서 모사해 전하여 기이한 자취로 삼은 것인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영남의 유생들이 선생의 초상화[七分之儀]¹⁶⁹가 그릇되게 절에 모셔져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여겨 먼저 하동향교에 통문으로 알리고 최항대의 집으로 전달하여 옮겨 봉안하게 하니 예식(禮式)에 깊이 타당하다. 호남 좌도 두 읍의 유림들이 또 본손(本孫)이 쇠락하여 집안의 사우(祠)가 기울고 무너져 내려 한 척의 영정이 끝내 비바람의 우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장차 제사를 받드는 사우에서 봉안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그 예에 적합하다. 이 글을 받들어 펴서 읽고 채 읽는 것을 마치기 전에 여럿이 “아! 우리 읍은 선생께서 은거하신 곳이자 제사 지내는 고을이다 어찌 화상(畫像)을 사우에 봉안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아! 이듬해 중춘일(仲春日)에 이안할 때 내가 외람되게 별유사(別有司)가 되어 마침내 읍의 선비들과 도모하여 선생의 주벽 북쪽에 설위(設位)하는데 모두 말하기를 “판을 깎아 좌당(座當)에 걸기를 응당 감실 형태로 화상들과 비단장정으로 갖추자.[龕形畫欄錦帳]”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우에 이끼가 끼고, 단청은 색이 바래었으니 모두 수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169 칠분지의(七分之儀) : 초상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이(程頤)가 『역전(易傳)』을 지어 문인들에게 “단지 7분만 말한 것이니, 배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스스로 살피고 궁구해야 한다.(只說得七分 學者更須自體究)”고 하였는데, 장역(張繹)이 이를 인용하여 “선생의 말씀으로 문자에 드러난 것은 7분의 마음이 있고, 단청으로 그려진 것은 7분의 용모가 있다.(先生有言見於文字者 有七分之一心 繪於丹青者 有七分之儀)”고 하였다.

본 서원은 재력이 부족하여 주관하지 못했는데, 우리 현감 서간수(徐簡修) 공이 곧 먼저 10냥[鎰銅]을 찬조하였다. 이에 일을 거행하여 서원에서는 사학(四學)에 일꾼을 부탁하고 또 별청(別廳)의 돈[錢]을 덜어내니 총 60여 민(緡)¹⁷⁰으로 채단(彩緞)과 비단을 장만했다. 영정을 모실 곳을 빛나게 하였는데 모시는 곳이 이끼가 끼어 부서진 곳은 바꾸고 시커먼 단청은 다시 새롭게 하였다. 공인의 동원과 색토(色土)의 사용 또한 현감의 힘이 다. 본원에서 비용을 절약한 것이 어찌 적겠는가. 대개 이번 달 초6일 임술일에 일을 시작해 중정(仲丁) 하루 전 날인 병인일에 영정을 받들고 7일 뒤인 계유일에 공사를 마쳤다. 읍 사람들이 유상(遺像)을 배알하며 대부분 손뼉 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이를 기록하게 하였다.

아! 선생의 영정에 찬(撰)을 지은 이가 ‘맑은 하늘을 떠받치며 구름이 개이고, 맑은 달, 사라지는 연기라고 비유했으니 아득히 넓어 더할 나위가 없다. 천년 뒤에 누가 형상을 포착할 수 있어서 한 폭 생초(生綃)의 모발이 우거지고 관패(冠佩)¹⁷¹는 거룩하게 할 수 있으리오. 그렇다면 화공이 초상화를 그려 전함이 후학들이 선생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낫단 말인가? 유상대에서 행차를 쉬니 살아 있는 영정은 맑은 영령이라 생각건대 응당 천년 동안 이어진 종유(從遊)의 감응이 있으니 옛 사당에 있는 신이한 영정을 받들 어 서로 따르니 만남과 이별에는 또한 운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비가 우러러 배례(拜禮)함에 황홀하여 가야산[伽山] 자천대[紫臺] 위에서 직접 모시고 배우는 것 같으니 어찌 후세 사람들이 우러러 사모함이 이 정도까지 이르게 하는가! 시산(詩山)은 닳아지지 않고 곡수(曲水)는 다함이 없으니 선생의 풍모는 산처럼 높고 강물처럼 길어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세 번째 1884년(갑진) 중춘일에 금릉(金陵) 김인행(金仁行)이 서문을 짓다.

170 1민은 1000냥이 꿰어 있는 돈페미다.

171 관패(冠佩) : 의관(衣冠)과 패옥(佩玉)이다.

이안축문(移安祝文)

유년(維年) 모월 모일에 아무개가 감히 문창공 최 선생·영천 신 선생께 밝게 고합니다. 삼가 위에서 비가 새고 침식되어 서까래[椽桷]가 낡고 썩어 이에 마땅히 수리하여 고쳐야 하므로 공경히 그 사유를 고합니다. 삼가 희생 폐백[粢盛]과 여러 물품을 차려서 신명께 올립니다. 불우헌 정 선생·놀암 송 선생·묵재 정 선생·성재 김 선생·명천 김 선생을 배향하니 부디 흠향하소서.

환안축문(還安祝文) 위와 같음

삼가 새는 것을 보수하고 폐해를 고쳐 이미 새로워지고 또 완전해졌습니다. 신위(神位)를 받들어 모시고 돌아오니 잘 봉안합니다.

중수기(重修記)

화재로 현관·상량문이 불에 탐.

순조 25년 1825년(을유) 4월 일에 강당에 화재가 있어 본손 유학 김민(金玟)·송치덕(宋致德)·김준철(金峻哲)·정문덕(丁文德)·정재혁(鄭載赫)·김광술(金匡述)이 함께 수리를 의논하였다. 공역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 본관 서호순¹⁷²에게 아뢰니 서 현감이 현자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모하여 봉록을 덜어[捐廩] 마음을 다했다. 이에 4년 뒤인 1828년(무

172 서호순(1789-1848) : 대구(大丘) 서씨이고, 자는 명원(明遠)이다. 1789년(정조 13)의 생원시 1818년(순조 10)의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적성현감, 회인현감, 임실현감, 함양군수, 태인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1825년의 무성서원 화재 이후 중건에 힘써 주민들이 그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1866년에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한 서상정(徐相鼎)의 아버지이다.

자) 3월에 중수의 공역을 마무리했다. 4년이 지난 뒤인 1831년(신묘)에는 문창후 최 선생의 영정을 개모했는데, 그에 관한 사적은 비문 및 현판에 실려 있다.

계원필경집개간기(桂苑筆耕集開刊記)

순조 34년 1834년(갑오)에 본관(本官) 심능숙(沈能淑)¹⁷³ 수령과 원유 박해언(朴海彦)·이준한(李俊漢)·김조현(金祖鉉)·김주(金澮)·김규훈(金奎勳)이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을 간행하는 일을 순찰사 서유구(徐有渠) 공에게 아뢰었다. 서 공(徐公)이 봉록을 덜어 개간하였다. 완영(完營)에서 인쇄하고 판을 서원에 보관하였다. 사적을 현판에 기록한다.

헌종 15년 1849년(기유)에 현감 서호순(徐灝淳)의 불망비명(不忘碑銘)을 세운다. (서호순이) 현인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모하여 마음을 다하여 봉록을 덜어 최치원의 영정을 [幀面] 다시 새롭게 하고, 서원의 모습을 중창하였다.

유사 김민(金玟)·김홍(金泓)

173 심능숙(1782-1840) : 청송(靑松) 심씨이고, 자는 영수(英叟)이다. 1829년(순조 29) 음직(陰職)으로 감역(監役)이 되었고, 감찰, 관관을 역임하였다. 1832년부터 1835년(헌종 1)까지 태인현감을 지냈다. 그는 시인으로 유명하였고, 근체시(近體詩)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문 소설 「옥수기(玉樹記)」를 지었는데 문학사적으로 이정표를 세웠다.

품장(稟狀)

철종 6년 1855년(을묘), 서원 뒤에 투총(偷塚) 문제로 원임인 유학 김도(金燾)·송정순(宋程淳)·진사 김형후(金炯厚)·권집규(權執圭)·송지호(宋持灝)가 올린 품장(稟狀)

“삼가 본 서원의 뒷 기슭 성황산은 곧 옛 태산군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성황당 터로 현재는 무성서원의 주산(主山)입니다. 수 백 년 동안 애초부터 한 줌의 무덤도 없다가 뜻하지 않게 투장(偷葬)한 사람들이 있어 무덤이 늘어나 30여 개나 되었습니다. 이는 풍속·교화와 관계되니 이를 참는다면 무엇을 참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불씨(佛氏)와 노장(老莊) 등 이단의 학설을 막지 않으면 우리의 도가 유행하지 못할 것이요,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가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不塞不流 不止不行]¹⁷⁴”라고 하였으니 그 무덤을 파야만이 무성서원이 서원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현인을 존경하기 위한 방도이고, 둘째는 법을 업신여기는 습속을 막기 위한 것이니 간절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 본관(本官) 한산(韓山) 이승경(李承敬)¹⁷⁵ 현감이 “직접 조사하여 파갈 것을 독촉하라”고 처분하였다.

174 한유(韓愈)가 「원도(原道)」를 지어 요순(堯舜) 삼왕(三王)의 도(道)를 추구(推究)하여 밝혀서, 불씨(佛氏)·노씨(老氏) 등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175 이승경(1815-미상) : 한산(韓山) 이씨이고, 자는 경조(景祖)이다. 1837년(헌종 3)의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경릉참봉, 직장, 공조좌랑 등을 지냈다. 1853년(철종 4) 8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받아 재직하다가 1857년 12월에 통천군수로 체직되었다.

고종[當宁]¹⁷⁶ 5년 1868년(무진) 각 서원을 훼손할 무렵에 본 서원의 복호(復戶)¹⁷⁷와 보노(保奴)¹⁷⁸가 삭감되었다.

고종 6년 1869년(기사) 순찰사 서상정(徐相鼎)¹⁷⁹ 공이 서호순 수령의 비각[徐候碑閣]을 창건하는데 돈 100민(百緡)을 획급하며 애써 힘썼다.

176 당우(當宇) : 현재의 임금을 가리키는 말로 이때 당시의 임금은 고종이었다.

177 복호(復戶) : 조선시대에 어떤 특정한 대상자(왕족·권장·진휼·특수인·군호·정역(定役))에게 요역과 전세(田稅) 이외의 잡부금을 면제하던 것이다.

178 보노(保奴) : 조선시대에 병영이나 관아·서원·유향소에 소속되어 잡역을 맡아 하던 노비이다.

179 서상정(1813-1876) : 대구(大丘) 서씨이고, 자는 이웅(而癩)이다. 1834년(순조 34)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1848년(현종 14)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응교,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를 역임한 뒤 1866년(고종 3)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받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며 세금을 경감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서 임기가 2번이나 연장되었다. 이후 병조판서, 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1828년에 화재로 불탄 원우(院宇)를 중수하는 데 공을 세운 현감 서호순의 아들이다.

고종 9년 1872년(임신) 3월 일에 유학 김필흠(金必欽)·김정훈(金廷勳)·변대용(邊大容)·김영노(金永瑠)가 서원터의 역을 면제하는 일로 올린 품장

“삼가 생각건대 현인을 존경하고 도를 숭상하는 것은 조정에서 높이 보답하는 성전(盛典)입니다. 본 서원은 곧 일곱 현인을 제사 지내는 서원으로 숙종조(肅宗朝)에 사액을 하사할 때 복호 3결(結)과 보노 30명, 원생 30명을 정원으로 획급(劃給)해주셨는데 혼입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호포(戶布)제가 시행된 뒤로 뒤에 서원 터로 들어와 거주한 한장(汗掌)¹⁸⁰, 고직(庫直) 또한 균포(均布)를 내는 역을 지게 되어 봄·가을의 향사(享祀)는 지탱해 나갈 길이 없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焚香)은 공구(供具)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주 합하(城主閣下)께서 우러러 조정에서 높이 보답하는 성전에 회답해주셔서 서원 터의 20호, 호포(戶布), 부역[烟役]을 즉시 면제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라고 하니 본관 조중식(趙中植)¹⁸¹ 수령이 “11호의 호포와 요역을 감하여 영구히 준행할 것”이라고 처분하였다.

180 한 장(汗掌) : 서원에서 일하는 노비들 중 최고 책임자이다.

181 조중식(1808-미상) : 함안(咸安) 조씨이다. 음관으로 관직에 올랐는데 감역, 광흥봉사, 주부 등을 거쳤다. 1871년(고종 8) 8월에 태인현감으로 임명받아 1875년 2월에 백천군수로 체직되었다.

복호보노 환복기(復戶保奴還復記)

고종(高宗) 1878년(무인)에 장성 필암서원¹⁸²이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예전처럼 회복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거원(擧員) 유학 황기환(黃基煥)으로 정하여 통문(通文)을 보냈고 답통을 받고나서야 비로소 아웁니다.

필암서원 답통(筆巖書院答通)

이 통문은 회통(回通)하는 일입니다. 무릇 서원이 보존되어 있고 복호가 옛 그대로 있으니 이는 조정에서 높이고 보답하는 성전(盛典)임을 알겠습니다. 지난 서원을 철폐할 때 전부 혼입된 것은 이서배(吏胥輩)들이 조정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자세히 살피지 못한 까닭입니다. 본원(本院)이 추심할 때 의정부(議政府)에서 엄한 처분이 있어 도리배(都吏輩)의 농간을 죄를 주고, 관에서 감영에 보고하여 완문(完文)을 받아 영원히 폐단이 없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일의 본말(原委)이 이와 같습니다. 바라건데 귀 서원은 명백히 추심하여 봄·가을 자성(稔盛 ; 제수물품)의 방도를 돕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내 서원은 두 세 곳에 불과하니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복호는 중요하여 특별한데 짧은 시간(晷刻) 동안 따르는 것도 불가하니 오직 원하건데 여러분께서 더욱 용기 있게 결단하여 추심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니, 또한 사림(士林)에게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통두(通頭) 유학 송일(宋駟)·김수천(金壽千)·박운양(朴崙陽)

182 필암서원(筆巖書院) : 하서 김인후(金麟厚)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서원으로 사적 제242호이다. 1590년(선조 23)에 세웠다가 정유재란 때 소실되어 1624년(인조 4)에 복원하였다. 1662년(현종 3) '필암'으로 사액되었으며 1672년에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때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2019년에 무성서원 등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12월 23일 유학 송정순(宋程淳)·변길용(邊吉容)·황기환(黃基煥)의 품장(稟狀)

삼가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너는 그 양을 아까워하느냐. 나는 그 예를 더 아낀다.”¹⁸³고 하셨으니 고삭(告朔)¹⁸⁴이 비록 폐해져도 초하룻날 종묘에 고유(告由)하면서 바치는 희생양을 버릴 수 없고 미루어 증험할 수 있는 체례(體禮)와 크게 관련되는데 더구나 서원이 이미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복호(復戶)와 보노(保奴)가 바로 체례(體禮)와 크게 관련됩니다.

문창후 최 선생 휘 치원(致遠)은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유풍(遺風)의 여운이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천(靈川) 신 선생 휘 잠(潛)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찍이 명경(明經)으로 추천 받아 부절(符節)을 받고 지방관으로 학교를 일으켜 영재를 교육시켰습니다. 불우현 정 선생 휘 극인(克仁)은 처음에 성균관 생원으로 태학에 입학하였는데 상소를 올려 불교를 배척하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향촌으로 돌아와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설치하였습니다. 놀암 송 선생 휘 세림(世琳)은 나이 겨우 스무 살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였지만, 벼슬에 뜻이 없어 조정에서 일곱 번 불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우(佛宇)를 헐어 치워 버렸고 학사(學舍)를 세웠으며 백록동규(白鹿洞規) 발문을 걸어 학식(學式)으로 삼았습니다. 목재 정 선생 휘 충언(彦忠)은 기질이 혼후(渾厚)하고, 말은 어눌하나 행동이 민첩해 의리에 침잠하여 더욱 역학(易學)에 정밀했고 마음에 사색하기를 높고 밝게 하니 상수(象數)가 오묘하게 뛰어났다. 성재 김 선생 휘 약묵(若默)은 학문을 돈독히 하고 행실에 힘썼으며 예전의 현인을 존경하여 믿었는데 말년에 양주(楊州)로 보임되자, 학교를 일으키고 농업을 장려하며 청렴하고, 검소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해 세상에서 금옥군자(金玉君子)로 불리었습니다. 명천 김 선생 휘 관(灌)은 천성이 도에 가까웠고 하늘이 내린 진실된 효자로 의

183 『논어』「팔일(八佾)」의 구절로 실질적인 효용을 상실한 일이라 해도 그 형식을 보존함으로써 본래의 의의와 목적을 알게 한다는 의미이다.

184 고삭(告朔) : 주대(周代)에 제후들이 매월 초하루마다 선조의 사당에 고하고 역(曆)을 얻던 일이다. 매년 선달에 천자(天子)가 다음해에 사용할 12개월의 역을 제후에게 내려주면, 각 제후들이 이를 자신의 선조의 사당에 두고 매달 초하루에 양을 삶아 바치고 고하면서 그 달의 역을 가져다 나라 안에 반포하였다. 춘추(春秋) 시대에 이르면 유명무실화되었다.

리에 힘을 다해 더욱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지조가 굳세고 품행이 단정하였으며 덕성과 신의는 더욱 두터워 사람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일곱 현자가 배향된 사우(祠宇)를 세운지가 오래입니다.

숙종(肅宗) 1696년(병자) 11월 일에 특별히 선액(宣額)의 은전을 받아 복호(復戶) 3결, 보노(保奴) 30명, 원생 30명을 서원으로 획급(劃給)하여 봄·가을의 향사, 음력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을 삼가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지난 1868년(무진)에 서원이 훼손될 때 나라 안의 보존된 47개 서원 중에 본도 안에서 태인의 무성, 장성의 필암, 광주의 포충¹⁸⁵ 3개만이 특별히 그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나 보인(保人)과 복호(復戶)가 줄어들었고 원생 또한 3개 서원이 일시에 감해졌습니다. 원우(院宇)가 이미 그대로 보존되었으므로 보인과 복호를 반드시 줄어들 이치가 없으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황공하여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자에 필암·포충 2개 서원의 복호(復戶)가 회복되고 보노(保奴)를 다시 보전해준 것은 과연 어진이를 존경하고 우리러 사모할 수 있도록 흠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내 3개 서원이 모두 그대로 보전되었으므로 보인과 복호가 회복된 것은 또한 같은 것이나 2개 서원은 이미 보인과 복호가 회복되었는데 한 서원만이 어찌 다시 회복할 이치가 없겠습니까? 본 서원은 문창후(文昌侯)를 모신 사원(祠院) 중에서 가장 먼저 사액 받고 창설되었으니 얼마나 존숭(尊崇)한 곳인데 아직도 보인과 복호가 환복(還復)되지 못한 것이 실로 사람의 공의(公議)로 탄식한지가 오래입니다. 필암서원의 재중(齋中)에서 통문과 완문의 초고(草稿)가 내도하였으므로 이에 감히 점련(帖連)하여 일제히 소리 내어 복호와 보노를 다른 서원의 전례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러 호소하니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가늘 길이 없습니다.

진신(縉紳) 정읍현감 김익건(金益健)¹⁸⁶ 제음(題音). “원장에게 품의할 것.”

185 포충사(褒忠祠) : 의병장인 고경명(高敬命)과 고종후(高從厚)·고인후(高因厚) 3부자와 유팽로(柳彭老)·안영(安瑛) 등 5위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사우이다. 1601년(선조 34)에 세웠고, 1603년 ‘포충(褒忠)’으로 사액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때 남은 47개 사우 중 하나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원산동에 있다.

186 김익건(1834~미상) : 청풍(淸風) 김씨이고, 자는 치순(稚順)이다. 1867(고종 4)의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876년 7월에 정읍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유학 이병덕(李秉德) 정해두(鄭海斗) 김영홍(金永洪) 정세기(丁世基) 김필흠(金必欽) 권
중희(權鍾喜) 기일연(奇一行) 민치우(閔致佑) 김영언(金永彦) 김영준(金永準)
고영주(高永柱) 김영로(金永璐) 송만수(宋晩秀) 우재호(禹在鎬) 남 찬(南 鑽)
김낙흠(金樂欽) 김창흠(金昌欽) 신학모(申學模) 김영조(金永朝) 정한구(鄭漢龜)

1879년(기묘) 2월 초4일 유학 이병덕(李秉德)·권병규(權秉圭)·김영로(金永瑤) 품장

국도(國都)에는 상서(庠序)¹⁸⁷가 있고 향촌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으니 곧 우리나라[我東方]의 성현을 존경하고 후학들을 깨우쳐 주는 의리입니다. 그리고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획급(劃給)해 주니 이는 도를 높이고 예를 숭상하는 성전(盛典)에서 나온 것 입니다. 하물며 또 서원이 사액을 받고 이어서 복호와 보노를 획급 받은 것은 역대 임금들이 배양해 온 성교(盛敎)입니다. 본 서원은 곧 일곱 현인이 배향된 서원입니다. 일곱 현인의 행적은 이미 전에 올린 상소에서 다 말씀드려 낱낱이 거론하는 것이 불필요하지만 숙종조(肅宗朝)에 특별히 선액(宣額)을 받는 은혜가 있어 복호 3결, 보노 30명, 원생 30명을 서원에 획급(劃給)해 주어 봄·가을 향사(享祀)와 초하루·보름 때의 분향[朔望之焚香]을 거의 수 백 년 동안 삼가 봉행했습니다. 지난 무진년(1868)에 각 서원이 보존되거나 훼손될 때 나라 안에 그대로 향사를 지낼 수 있는 47개 서원 중 본도 안에서는 태인 지역의 무성·장성 지역의 필암·광주 지역의 포충 3개의 서원만 특별히 그대로 향사를 지낼 수 있었으나 복호와 보노는 삭감되었고 원생 또한 감소됨이 3개 서원 동일했습니다. 원우(院宇)는 이미 그대로 보존됐으므로 복호를 필시 삭감할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공의(公議)가 황공하옵게도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에 필암과 포충 두 서원은 복호가 환복(還復)되고 보노도 환보(還保)되어 존경하여 그리워하며 우리러 사모할 수 있게 되니 과연 어찌해서입니까? 도내의 세 개 서원은 모두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남겨져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노와 복호의 환복(還復)도 또한 한결같아야 하나 두 서원만 이미 환복되는 예가 있고 어찌 한 서원만 홀로 옛날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본 서원은 곧 문창후(文昌侯)의 사우와 서원 중에 먼저 사액 받고 제일 처음 창설된 서원이니 얼마나 존경하고 숭상할 곳이나 아직도 서원의 보노와 복호가 환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한탄한지 오래입니다. 필암서원에서 통문(通文)과 완문(完文) 초본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에 감히 점련하여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리러 호소합니다. 삼가 원컨대 특별히 도를 숭상하고 예법을 높이시는 법식을 드리우셔서 복호와

187 상서(庠序) : 향교(鄉校)를 주(周)나라에서는 상(庠),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이다.

보노를 한결같이 두 서원의 사례대로 환복하셔서 사람들이 크게 우리러 바라는 것[顒望]에 부응되어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원장 민관호(閔觀鎬)¹⁸⁸ 제사. “유생들의 단자[儒單]는 혹 괴이할 것이 없을 듯하나 관에서 독단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음.”

유학 송남수(宋南秀) 홍순달(洪淳達) 김광흠(金光欽) 고태진(高泰鎭) 김영렬(金永烈)
김영준(金永準) 송정순(宋程淳) 박태동(朴台東) 김영필(金永弼) 변대용(邊大容)
신흥모(申興模) 권중홍(權鍾洪) 김영곤(金永鯤) 김상호(金相浩) 이승호(李承湖)
안요석(安堯錫) 유인엽(柳寅燁) 최병호(崔炳灝) 정종구(鄭鍾龜) 김정술(金廷述)
김요승(金堯昇) 정상현(丁相鉉) 송희옥(宋曦玉) 이광열(李光烈) 배기만(裴基萬)

188 민관호(미상-미상) : 생몰년, 본관, 과거 급제 여부 등이 미상으로 알 수 없다. 1876년 3월에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무성서원의 복호와 보노 등에 공을 세웠다.

1879년(기묘) 2월 16일 유학 김용조(金龍祖)·김광흠(金光欽)·변대용(邊大容)의 품장

노나라에서 대뢰(太牢)¹⁸⁹로 제사 지낸 것은 성인을 호위하고 덕을 높이는 뜻으로 어진이 있다면 서원이 있고, 서원이 있으면 복호(復戶)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열성조(列聖朝)의 덕을 숭상하는 아름다운 성전(盛典)입니다. 본 서원은 곧 일곱 현인의 영령을 모신 곳으로 일곱 현인의 사적은 이미 앞서 올린 문서에서 다 말씀드려 낱낱이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숙종조(肅宗朝) 1696년(병자)에 특별히 사액의 은혜를 입어 복호(復戶) 3결, 보노(保奴) 30명과 원생(院生) 30명을 정원으로 획부(劃付)해서 서원에서 봄·가을 서원 향사(書院享祀)의 예와 초하루·보름의 분향[朔望焚香] 절차가 수 백 년 이래로 삼가 봉행되었습니다.

지난 1868년(무진)에 각지 서원이 훼손될 때 나라 안에 그대로 보존된 47개의 서원 중에 본도(本道)에서는 태인 지역의 무성과 장성 지역의 필암, 광주 지역의 포충사 뿐으로, 세 개 서원은 특별히 그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나 보노와 복호가 감소되고 원생의 수 또한 줄어드는 것이 세 개 서원이 같았습니다.

원우(院宇)는 이윽고 그대로 보존되었으므로 보노와 복호를 반드시 줄일 이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의 공의(公議)라 황공하옵게도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에 필암과 포충 두 서원의 복호가 회복되고 보노도 도로 보존되어 (현인을) 우러러 사모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도내 세 개의 서원은 함께 보존되었으므로 보노와 복호가 환복(還復) 된다면 또한 한결같아야 하나 두 서원만 이미 환복되는 예가 있고 어찌 한 서원만 홀로 옛날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본 서원은 곧 문창후(文昌侯)의 사원과 서원(祠院) 중에 제일 먼저 창설되었고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얼마나 존경하여 그리워할 곳이겠습니까. 보노와 복호가 아직도 옛날처럼 회복되지 못한 것은 실로 사람들이 우러러 한탄한지 오래입니다. 필암서원에서 통문과 관문(關文) 초본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이에 감히 점련하여 우러러 아웁니다. 삼가 원컨대 특별히 덕을 숭상하는 법식을 살피시어 한결같이 두 서원이 환복(還復)된 전례를 따라주십시오라는

189 대뢰(太牢) : 나라의 제사에 소·양·돼지를 아울러 바치는 것인데, 뒤에는 소만 바치게 변경되었다.

내용입니다.

순찰사 심이택(沈履澤)¹⁹⁰ 공 제사(題辭). “사론(士論)이 매우 당연하나 (그동안) 미처 겨를이 없어 시행하지 못한 특전이다. 마땅하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유학 송영채(宋永采) 이동규(李東奎) 권중홍(權鍾洪)

박윤수(朴潤壽) 이계호(李啓鎬) 김낙흠(金樂欽) 안영문(安永文) 이민구(李珉求)

정기흠(丁基翕) 손규선(孫奎先) 기동욱(奇東旭) 김종림(金宗琳) 김형식(金亨植)

이계응(李啓應) 안학율(安學律) 남 제(南濟) 김정훈(金廷勳) 노극수(盧極壽)

김영창(金永昌) 윤희성(尹希成) 나도원(羅燾元) 유경선(柳景善) 박재식(朴在植)

190 심이택(1832년-미상) : 청송(靑松) 심씨이고, 자는 치은(稚殷)이다. 1857년(철종 8)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등을 지냈고, 1878년에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3년 여 간 지방민의 진휼문제, 수세(收稅)에 따른 애로 사항, 이양선 출몰상황 등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1879년(기묘) 8월 10일 의정부 정장(呈狀)

송정순(宋程淳)·김영렬(金永烈)이 상경할 때 백낙준(白樂俊)은 경사(京司)와 감영 사이에서 주선하여 제음을 얻어내어 서원에 공이 있음.

진사 변우기(邊遇基)·이이필(李以鎰)·김요익(金堯翊)의 품장.

“나라에 서원이 있어 사액을 받은 이후에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획하(劃下)해주시니 실로 이는 현인은 사모하고 도를 숭상하는 성대한 의식입니다. 본 서원은 곧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의 영령을 주향(主享)으로 하는 서원으로 숙종조(肅宗朝) 1696년(병자) 10월 일에 특별히 사액(賜額)의 은전을 입어 복호 3결과 보노 30명, 원생(院生) 30명을 정원으로 획급(劃給)해주어 서원에서는 봄·가을 향사(享祀) 및 초하루·보름의 분향(朔望焚香)을 지낸지 수 백 년으로 삼가며 봉행했습니다.

1868년(무진)에 서원을 철폐할 때 본도(本道) 내에서 그대로 향사(享祀)를 지낼 수 있는 서원은 태인의 무성서원, 장성의 필암서원, 광주의 포충사 뿐이었으니 복호와 보노를 줄이는 것도 세 서원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원우(院宇)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보노와 복호를 필시 삭감할 이치가 없어서 당시 사람들이 보노를 예전대로 회복시켜 줄 것을 의논하였으니 미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필암서원과 포충사 두 곳의 복호가 환복(還復)되고 보노도 환보(還保)되어 현인을 존경하고 우리러 사모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과연 어찌해서입니까? 도내 세 곳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었으니 보노와 복호를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 또한 한결 같아야 하나 두 곳은 이미 다시 복호와 보노가 회복된 예가 있는데 어찌 한 서원만 홀로 옛날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본 서원은 문창후의 사당과 서원(祠院) 중에 제일 먼저 창설되고 오래 전에 사액 받은 서원이므로 얼마나 존숭(尊崇) 받는 곳이지만 보노와 복호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직도 옛날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실로 사람들이 탄식한지 오래입니다. 전후 문서를 점련하여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리러 아웁니다. 삼가 원컨대 특별히 현인을 존경하고 도를 숭상하는 법식을 살피시어 복호와 보노를 전례에 의거하여 도로 회복시키도록 관문(關文)을 특별히 해당 도의 감영과 읍으로 내려 다시 서원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삼가 우매함을 무릅쓰고 아웁니다.”

영의정 이최응(李最應)¹⁹¹ 공의 제음(題音). ‘이미 서원이 있다면 반드시 보노와 복호가 있으니, 이는 본디 법식이다. 그런데 다른 서원과 규정이 다르니 어찌 현인을 존송하는 방도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결같이 다른 서원의 전례대로 시행하라. 읍리배(邑吏輩)가 만일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다면 이는 사체상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유학 김용조(金龍祖) 이동협(李東莢) 권종풍(權鍾豐) 유항풍(柳恒豐)

김영필(金永弼) 고영주(高永柱) 박노수(朴魯洙) 김상환(金相煥) 권수일(權壽日)

김건중(金建中) 정태현(丁泰鉉) 변진규(邊鎭奎) 최익곤(崔翊坤) 최항연(崔恒淵)

최철수(崔喆洙) 송종수(宋鍾壽) 조병호(趙秉浩) 황종묵(黃鍾默) 송지흥(宋持興)

민경호(閔慶鎬) 김영조(金永朝) 황기환(黃基煥) 김낙흠(金樂欽) 배기만(裴基萬)

김용채(金龍采) 변길용(邊吉容) 이창녕(李昌寧) 우재호(禹在鎬) 백창진(白昌鎭)

김영로(金永璐) 박상엽(朴尙燁) 안병석(安炳錫) 정영관(丁永瓘) 김영훈(金永勳)

191 이최응(1815-1882) : 전주(全州) 이씨이고, 자는 양백(良伯)이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형으로 흥인군(興寅君)에 봉해졌다. 1865년 경복궁 중건 때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를 지냈고, 관의금부사·호위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원군 정권하에서는 요직에 등용되지 못했으나,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수립되자 호위대장을 거쳐 이듬해 좌의정이 되었다. 이후 영의정, 통리기무아문의 총리대신, 광주부유수, 영동녕부사가 되었으나, 임오군란 때 난민(亂民)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1879년(기묘) 9월 초6일 경사(京司)의 제음(題音)에 본관(本官)에 도착한 문서(到付狀)

서원의 일은 오직 원장의 처분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기에 본원(院復)의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도로 회복시키는 일로 이미 원장에게 아 습니다. 또 순영(巡營)에 올리고 우리러 의정부에도 번거롭게 아뢰어 받은 제교(題敎)¹⁹²를 점련하여 우리러 원장 민관호(閔觀鎬)에게 아웁니다. 제음[題]. “곧 마땅히 감영[營]¹⁹³에 보고하여 조치할 것.”

1879년(기묘) 10월 초1일 경사(京司)의 제음(題音)을 도부하는 문서(到付狀)

본원(本院)의 복호(復戶)와 보노(保奴)를 도로 회복시키는 일로 삼가 영읍(營邑)의 제교(題敎)를 받고 이러한 연유를 우리러 영상 합하(領相關下)께 번거롭게되었는데, 그 제교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관찰사 심이택(沈履澤) 공의 제교. “이미 선비들의 공론이 있고, 또 경사의 제칙(題飭)도 있으므로 복구하는 절차는 좋은 쪽을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라.”

1879년(기묘) 10월 28일 원유(院儒) 품장

본원(本院)의 복호(復戶)와 원생(院生)의 보노(保奴)를 복구하는 일은 이미 전후 올린 문서[狀辭]에 다 말씀 드려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고 의정부와 영문(營門)의 제칙도 정중합니다. 모두 올바르게 되돌아가는 것은 오로지 관청의 재량과 처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고을의 수령으로 마침 지금 본원의 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성현의 예제(禮制)를 본받아 마땅히 더욱 도를 다하셨습니다. 무릇 (복호와 보노를) 복구하는 절차는 곧 새로 시작하는 정사이므로 이와 같이 획하(劃下)해 주신 성전(盛典)은 모두 그 처음을 따른 것이니 빨리 시행해 조치하여 예전대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러 조정에서 현인을 숭상하는 본뜻에 회답할 수 있어 사문(師門)에 큰 공이 있고 유풍(儒風)을

192 제교(題敎) :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소장, 청원서, 진정서에 대하여 수령이나 관찰사가 써주는 처분으로 제음 또는 제사를 말한다.

193 전라감영을 의미한다.

성대히 흥기시키는 것이니 실로 무성현의 현가(絃歌) 소리가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그 감복하여 감사함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장 민관호(閔觀鎬) 제음. “복결(復結)은 영제(營題)에 의거하여 시행하거나와 원생들의 보노(保奴)는 민사(民事)의 어려움과 관계되니 물의(物議)를 널리 살핀 뒤에 마땅히 구획할 것.”

태인현감 서목(泰仁縣監書目)¹⁹⁴

본 현의 무성서원 복결(復結)은 이미 무진년(1868)부터 첨부한 개장(槩狀; 대략적인 보고)이 세금을 내는 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에서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다시 처분의 가부를 기다립니다.

영제(營題). “이미 다른 서원에서 행해진 전례도 있고 또 의정부의 제칙(題勅)이 있으니 옛날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1880년(경진) 정월 19일 원임 품장

본원(本院)의 복호(復戶)와 보노(保奴)에 관한 일은 특별히 옛날대로 회복하라는 제교(題敎)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향제(春享祭)가 가까우므로 이에 감히 우러러 현인을 사모하고 도를 지키시는 아래에 호소하니 삼가 원컨대 복호 3결, 보노 30명을 즉시 추급(推給)해 주셔서 향사(享祀)에 쓸 것을 편안히 행할 수 있도록 이에 감히 우러러 아웁니다.

원장 제음. “보노(保奴) 30명 또한 모두 복구할 것”

1880년(경진) 2월 15일 원유 품장

본원(本院)의 복호를 도로 회복시키는 일은 이미 전후 문서 안에 다 말씀드려 상세히

194 서목은 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에 구비(具備)되는 문서로 원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쓴다. 여기에서는 태인현감 민관호가 작성하여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첩정 문서에 첨부된 서목에 관찰사가 처분한 내용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무릇 의정부의 제음은 이와 같이 정중하고 순영의 교칙(敎勅)이 얼마나 엄격하고 확실합니까? 원장이 제음과 교칙대로 시행해 주셔서 두 차례 완문(完文)을 작성해 주었으나, 세금을 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해당 아전은 수조안(收租案)¹⁹⁵에서 삭감했다고 말해 끝내 자문(尺文;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정부와 순영, 읍에서 여러 차례 신칙하였지만 일이 (시행되지 않음) 매우 놀랍습니다. 삼가 원컨대 해당 읍에 엄중한 관문(關文)¹⁹⁶을 보내 면세된 3결은 예전대로 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춘·추향사(春秋享祀)를 지내는 예에 보태도록 해주십시오.

영제(營題). “이미 전에 보고한 제사가 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

1880년(경진) 4월 13일 원임 품장

본원(本院)의 복결을 도로 회복시키는 일은 이미 전후 문서 안에 다 말씀드려 지금 굳이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더 도리(都吏)에게 제음(題音)을 신칙하여 한결같이 필암서원·포충사 두 곳의 전례대로 복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장의 제음. “복결에 대해서는 상사(上司)와 관계되므로 관에서 절대 마음대로 처리할 방도가 없다.”

1880년(경진) 6월 초7일 도유(道儒) 품장

본원(本院)의 복호를 도로 회복시키는 일은 이미 전후 문서에 다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8월에 합하(閣下)께 번거롭게 아뢰었습니다. 제교(題敎)는 즉시 영읍(營邑)으로 접수(到付)되었으나 복호는 아직도 복구되지 못했으니 엄중하고 분명하게 영읍에 관문(關文)을 보내 즉시 도로 복호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정부의 제음(題音). “이미 이전 제음에서 다 말했거니와 서원이 있는데 복호가 없는 것은 사체로 보나 사리로 보나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해리(該吏)가 농간을 부린 것

195 해마다 각 도의 관찰사가 그해 가을에 호조(戶曹)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록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196 관문(關文)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 또는 동등 관청 간에 보내는 문서이다. 여기에서는 상급에서 하급으로 보낸 사례이다.

이 분명하다. 본영(本營)에서 별도로 해당 읍에 엄중히 신칙하여 법식에 의거하여 추급한 뒤에 일의 상황[形止]을 시급히 보고할 것.”

1881년(신사) 7월 17일 원유(院儒) 품장

본원(本院)의 복호를 복구하는 일은 이미 전에 문서에서 다 말씀드렸고, 의정부와 영문의 제척(題飭)도 여러 차례 정중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오직 원장의 처분이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장 이정직(李定植)¹⁹⁷의 제음. “몇 해 전에 이미 조사하여 보고한 영제(營題)가 있으나, 이제 와서 계문(啓聞) 하여 획급(劃給)을 받기 전까지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오직 회답을 기다릴 뿐이다.”

1881년(신사) 12월 16일 원유 품장

본원의 복결을 도로 회복시키는 일은 7월에 모두 우러러 호소하였습니다. 제교(題敎)에 의거하여 삼가 특별히 바다와 같은 은택을 내려주시기만 기다립니다. 여러 해 동안 겨를이 없어 못 하던 일을 영구히 준행할 뜻으로 완문을 성급(成給)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장 제음. “이는 바로 조정(朝家)에서 획부(劃付)한 것인데 도로 중지된 것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겠다. 필시 해당 색리 무리(色輩)가 아직도 살피지 않은 소치이다. 이것으로 증빙을 삼아 영구히 없애지 않도록 할 것.”

1882년(임오) 3월에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의 비명(碑銘)을 세움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을 숭상하여 크고 성대한 공렬(功烈)이 있네. 보인(保人)과 복호(復戶)를 중창하니, 제수가 더욱 정결해졌네.

197 이정직(미상-미상) : 생몰년, 거주지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자는 여원(汝元)이다. 1880년 8월에 태인현감 민관호와 덕천군수 이정직이 서로 바꾸었다.『승정원일기』 2878책, 고종 17년 8월 24일 경신) 이후 1882년 8월에 원주판관으로 이임하였다.

아울러 현감 이정직(李定植)의 비명(碑銘)을 세움.

보인과 복호를 옛날대로 회복시켜 향기 나는 제수(祭需)가 거듭 향기롭네.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이 깊고 칭송이 넘쳐 비명을 새기네.

유사 정세기(丁世基)·송정순(宋程淳)

지산 처사(芝山處士) 안재호(安在護) 장서기(藏書記)

언해를 갖춘 주역[周易具諺解] 1질

언해를 갖춘 서전[書傳具諺解] 1질

언해를 갖춘 시전[詩傳具諺解] 1질

언해를 갖춘 논어[論語具諺解] 1질

언해를 갖춘 맹자[孟子具諺解] 1질

언해를 갖춘 중용[中庸具諺解]

언해를 갖춘 대학[大學具諺解]

언해를 갖춘 소학[小學具諺解] 1질

춘추좌전(春秋左傳) 10책

예기(禮記) 10책

주례(周禮) 10책

성리대전(性理大全) 1질

기범연의(箕範衍義) 4권

공자가어(孔子家語) 3권

동래박의(東萊博議) 2권

맹자서설(孟子序說) 1권

효경(孝經) 1책

고문경(古文鏡) 3권

통감요해(通鑑要解) 2권

대상예비(大喪禮備) 1권

사요취선(史要聚選) 5책

수학계몽(數學啓蒙) 1권

대우씨전첩(大禹氏篆帖)

찬부(撰賦) 6권

왕우군필첩(王右軍筆帖)

한문(韓文) 2권

하서 김선생 필첩(河西金先生筆帖)

고문전후집(古文前後集) 8책

회헌안선생실기(晦軒安先生實記) 3책

염락(濂洛) 2책

옥편(玉篇) 2권

두율(杜律) 2책

사기평림(史記評林) 1집

당시(唐詩) 5책

홍사(鴻史) 1집

무성서원은 칠현의 영령을 봉안한 서원으로 도내 유생들이 읍양진퇴(揖讓進退)를 행하는 곳이다. 내가 후학으로 외람되어 원지(院誌)의 소임을 맡았으니 고금을 오르내리는 사안이기에 감히 그 사이에 덧붙일 말이 없었다. 그런데 태산의 지산처사(芝山處士) 안



지산처사 유상(遺像)·지산문집(芝山文集) (자료제공:전북대학교 도서관)

재호(安在護)는 문의공(文懿公) 휘 문개(文凱)¹⁹⁸의 후손이자, 승지공(承旨公) 휘 대규(大規)¹⁹⁹의 6세손이다. 평소 행실이 효성스럽고 우애하는 등 여섯 행실²⁰⁰이 있었으며 위로는 수신하여 검약했고, 제가(齊家)하여 맑고 화목하였다. 동(洞)의 자제를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학식(學式)을 당벽(堂壁)에 걸어 붙였는데 하나는 백록동규(白鹿洞規)이고 하나는 향음주례(鄉飲酒禮)였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습례(習禮)를 하고 봄·가을에는 강마(講磨)하셨다. 노년에 남학당이 중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서원의 습례를 다시 보게 되자 개인히 현인을 사모하고 학교를 진흥시키는 마음으로 집에 소장한 서책 수백 권을 서원에 간직하게 하여 강습의 바탕이자 학업을 닦는 보배로 삼게 하였다. 훌륭한 사람이라, 공경할지어라. 내가 감회가 일어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변변치 못한 내 문장의 고루함을 잊고 쓸 뿐이다.

1884년(갑신) 윤월 일. 하서 김 선생 후손 (11세손) 요승(堯昇)이 삼가 서문을 짓다.

198 안문개(1273-1338) : 순흥(順興) 안씨이고, 국평(國平)이다. 1306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1321년(충숙왕 8)에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 1327년(충숙왕 14)에는 왕이 원나라에 있었을 때 충절을 바친 공으로 1등공신이 되었으며 순흥부원군(順興府院君)의 호를 받았다. 1338년에 사망하였고,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199 안대규(1642-1711) : 순흥(順興) 안씨이다. 지금의 김제시 용지면 출신으로 함경북도 명천부사로 재임하면서 백성을 편히 다스렸다. 숙종이 안대규를 아껴 내직으로 불러들였는데,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놓아 주지 않아 상경하지 못하였다. 기다리던 조정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조사자는 관민이 일치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부사의 이임을 만류한다고 보고하였다.

200 육행(六行) : 여섯 가지의 덕행으로 효(孝)·우(友)·목(睦)·인(姻)·임(任)·홀(恤)이다.

武城書院院誌目錄

院誌上

序

桂苑筆耕序

流觴臺重修記

院誌

七賢事蹟

請額事蹟

祭文

祝文記

笏記

影幀奉安時呈狀

影幀奉安祝文

移安祝文

重修記

復戶保奴還復記

跋

流觴臺碑文

泰山祠事蹟

請額疏

延額禮

各邑例賻記

院生關文

影幀奉安事蹟

影幀奉安日記

院宇丹牖重修記

還安祝文

桂苑筆耕開刊記

芝山處士藏書記

武城書院院誌上目錄

序文

武城書院院誌序

余自髫鬣 聞有文昌侯孤雲崔先生 爲我東文獻之始 及觀桂苑筆耕集二十冊 其文章之擅於華夷 出處之審於治亂 固可想像其萬一 而猶以世遠言湮 末由訪遺 躅挹餘芬 竊嘗嚶嚶然嘆曰 古之人 古之人而已 歲癸未春 按湖南省 省內之泰山縣 有先生尸祝之院 院儒邊吉容·黃基煥 袖示一卷 諏余言院不可無誌 誌不可無銓梓而壽其傳 盍詔一言以弁之 余作而曰 顧非其人惡敢當 雖然以夙昔尊慕 曠世之感 辭之固則非恫悞 乃盥手 而按卷之本末 桂苑筆耕集兩序文爲開卷第一義 先生名號·事實·文章·道德 畢陳無餘 流觴臺碑文及重修記 亦甚悉 藐余後學不敢架疊爲言 而以下則附院誌 先生主院靈川申公·公享 不憂軒丁公·訥庵宋公·默齋鄭公·誠齋金公·鳴川金公·配享事也 七賢躋享祝文也 院額籲請疏及蒙允事蹟也 宣額時致侑文及延額時儀節也 影幀奉安時 往復通章及呈文日記也 桂苑筆耕刊蹟也 院址禁埋 院隸蠲役 邑稟與儒狀也 政府及營邑題判也 以至前後文狀 製寫事務 句幹之儒 濟濟載其名 嗚呼 讀先生之詩 誦先生之文 尙可以仰之若泰山 重之如弘璧 而況是院也 因先生吏隱之邦 杖屨觴詠之地 立祠而享之 如古者 鄉先生之歿而祭其社 絃歌遺化 如子游之武城 至於恩額之 以是誕宣 是院之重 尤何如哉 是院之興替 知非有損益於先生 而吾道之氣數升降

大有關於是院之存不存如何 此院誌之所以述而刊之 使人知所尊尚於先生之文章道德 而衛翼先生之院也 使後之視今者 如今之視古 扶植斯文 依歸於是院 則非是院之幸 乃一國之幸 萬世之幸 余以是深有望於嗣後讀其詩誦其文之諸君子云爾
歲閏逢汭灘端陽節 嘉善大夫行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 安東金聲根

院誌序

壬午秋 余守是縣 縣盖先生遺愛 而又先生眞食所在也 竊自幸千載之下 雖高山仰止 景行行止 如儒氏之於孔夫子 誦其語想其人 尊慕而不可諉者 不過是鉛槧之間 糟粕之內而已 曷嘗有陽處父之九原可作 而士固有曠百世而相感 莫之爲而爲 莫之致而至者 往往存乎其間 此等處 亦孰使之然歟 其冥冥不可測度者歟 每夜氣清明 悅焉惚焉 如入先生之室而觀其彷彿 聽其警效 殆令人鄙吝不萌乎心矣 顧瞻絃歌之室 則宛然言偃之侍夫子問答 亶亶 寓日清寧之{□*扁}則宛然與先生身親交遞 如簫曹迭相 若將劃一於先生之約束 由此觀之 觀感之間 警發而興起焉者 皆先生賜也 適來則爲遺愛之地 適去則爲安靈之所 先生之於茲土也 豈偶然者哉 是院也 先生爲主 而配享六先生之中 鳴川金公 其一也 昔我文清公先祖之巡察是道也 歷路委訪 傾盖如舊 而余之南麾 適值茲土 此亦非偶然矣 曠世相感 自然湊合而孚應之妙 隱隱斡旋乎其間 則烏得不緬遠而起敬乎 盖院誌登梓 係是衛道尊賢之

盛事 曷敢有携貳之端 而挽近以來 士趨不正 隼翼
鷃披 虎威狐假之弊滔滔 皆是諸君子豈爲之哉 凡
我瞻禮於先生之堂 從事於先生之役者 皆先生徒
也 庶幾乎百世之下 廉頑立懦 使先生之風稜韻致
永永無替 則斯誌也 亦將與之悠久綿遠 不刊而自
刊矣 不以爲不然否 誌中條件 頭頭項項 無一非關
涉於先生者 宜其敬謹之不暇 而具在本誌中 不必
疊床爾 若其先生之文章也學術也 發揮當世 牖啓
後人 可以圖後天之壽者 前人之述備矣 豈淺見末
學之所可蠡酌測海讚揚其萬一者哉 先生姓崔諱
致遠 孤雲其號 而文昌其誄也
甲申季夏上澣 知縣鄭履源 序

跋文

奇亮衍 跋文

誌者院之史也 實具紀事 編年之義 諸享位實蹟暨
院之興廢 開是卷而瞭然 然后可謂誌事就矣 院享
孤雲崔先生而配以六君子 先生奮乎羅季 妙齡北
學發明 仁賢之化 尙有餘地 而及夫東還 盖以學於
彼者 牖我東人 使數千里禮樂文物帙帙然 與中華
併稱 先生之於東人 雖家尸而戶祝之可也 必於泰
山之武城 則蓋有以也 先生嘗宰是縣 卽古所謂桐
鄉者 而遺風善俗 猶有存者焉 先生之靈 豈無眷戀
乎茲者耶 遺愛之在人心 歲時伏臘 尙走村翁 況遠
近章甫 以禮將事 而于以講先生之道 于以讀先生

之書 進退瞻拜 如在函丈之間 尊慕如一日 則先生
必莞爾於冥冥矣 院舊無誌 使數百年院中事蹟 傳
膾歲久 易致殘缺 懼夫遂於湮沒 院儒宋程淳·金亨
植·禹在鎬·張碩培 斷然以爲己任 收拾斷爛之餘 存
古附新 廣考博載 彙爲一書 謀鋟梓而壽其傳 工將
告訖 以記事之文徵於余 余方以縉紳執事 托名於
院 凡以院事來 不敢以不能辭 忘僭如右云爾
閏逢涓灘五月下澣 通訓大夫行井邑縣監
奇亮衍 跋

申岐朝 跋文

院之有誌 如國之有史 家之有譜 豈有院而無誌 誌
而不刊 亦豈可壽於傳也 本院甚貧 事且鉅重 誌不
印字 縱多士君子 憂失之歎 而眴勉未遑 今始登報
於乎 吾東師道之再明 湖南士氣之復興 於斯可觀
予以韎韐仄跡 既不與於儒林 而況窺測於道德文
章之源乎 雖然鳳凰芝草 賢愚皆以爲美瑞 青天白
日 奴隸亦知其清明 至若孤雲先生 北學中原 流譽
四方 東還故國 顯用當時 乃勇退而潔歸 爲道德之
宗匠 則鼎尚有耳 慕而仰之 是年春 作吏於南省一
小縣 猥忝是院之任 院在今全州治之南泰仁縣 古
所稱詩山 而公昔吏隱之時 存神遺澤 觴詠自適之
地也 由是焉 始而祠 祠而院 院而復蒙恩額 豈非
先生道德之光久而益著者 且配享先生 皆文學中
章章有光 表準於一世之碩也 然則院之所重 誌之
所載 當何如哉 及於拜院之日 敬覽院誌 則冷墨殘
編 不過膾傳而已 夫誌者知也 有院之誌 將使後世

者 知其誌而尊其院也 不有其誌 焉得其知 所以誌而傳 傳而遠 遠而不欲泯者是也 雖銘金勒石 尙患其泯 其在證古詔後之道 豈可以是傳之 噫 道遠言湮 文獻之莫徵 率多由是而然 敢不愼歟 齋歎而歸 徒爾懸懸 齋儒金永烈·宋曦玉·裴基萬 以予有院任之名 來叩而諏曰 又復因循 誌之泯將有日矣 後之人雖欲振光採芬 其孰從而求也 予拜言而同和而唱之 既決而起 因囑文 怵然而謝曰 自非其人 予何敢也 固而詰之 故有如述焉 而至於先生之道德 院誌之事實 備晰於巡相閣下金公序文 豈敢贅疣於萬一也 但以諸君子賢賢事事之義 不勝其懇 敢乃如是云爾

歲在崇禎紀元后五甲申閏夏 通政大夫行興德縣監申岐朝 謹跋

桂苑筆耕序

桂苑筆耕序 1

記有之曰 醴酒之美 而玄酒明水之尚 貴五味之本也 黼黻文繡之美 而疏布之尚 反女功之始也 古之君子 必重其本始如此 吾東方之有文章 而能著書傳後者 自孤雲崔公始 吾東方之士 北學于中國 而以文聲天下者 亦自崔公始 崔公之書傳于後者 唯桂苑筆耕與中山覆簣集二部 是二書者 亦吾東方文章之本始也 吾東方以文爲尚 至我朝 益煥以融 家燕許而戶曹劉 以詩若文成集者 無慮充棟宇矣 而顧鮮有知崔公之書者 余嘗見近代人所撰東國書目 有載中山覆簣集者 徧求之 終不可得 唯桂苑筆耕二十卷 爲吾家先世舊藏 自童幼時 知珍而玩之 然間以語人 雖博雅能文而好古者 亦皆言未曾見 然則是書也幾乎絕矣 使是書不行于東方 是玄酒不設于太室 而疏布不羈于犧樽也 豈所以教民不忘本哉 世或謂公文皆駢儷四六 殊不類古作者 公之入中國 在唐懿僖之際 中國之文 方專事駢儷 風會所趨 固有不得而免者 然觀公所爲辭 往往多華而不浮 如檄黃巢一篇 氣勁意直 絕不以雕鏤爲工 至其詩平易近雅 尤非晚唐人所可及 是蓋以明水疏布之質 而兼有乎酒醴黼黻之美者 豈不彌可珍哉 公在中國 取科第入軍府 亦旣已聲施當時矣 而一朝去之如脫屣 及歸東方 躋翰苑 貳兵部 以至阿飡 阿飡者 新羅大官 其顯用方未已也 而顧又自放於山林寂寞之濱 以終老其身而不悔 蓋度其

時之皆不可有爲也 士君子立身蹈道 莫有大乎出處之際 出處而不失其時 非賢者 不能也 賢者之作固不可使其無傳 況其文傑然如彼 而又爲東國文章之本始者哉 湖南觀察使徐公準平 卽余所稱博雅能文而好古者也 聞余蓄是書 亟取而校之 捐其俸搨以活字 得數十百本 用廣其傳曰 不可使是書絕于東國也 嗚呼 不忘本始 教民厚也 表章賢人 勸民善也 徐公之用心也如此 其所以爲政於湖南者 亦可知已 役既完 徐公屬余曰 子實傳是書 今不可以靳一言 余辭不能得 若崔公之蹟行本末與是書之可備攷證者 徐公之序詳之矣 余無所復贅云 甲午九月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豐山洪奭周 序

桂苑筆耕序 2

桂苑筆耕集二十卷 新羅孤雲崔公在唐淮南幕府 時公私應酬之作 而東還之後 手編表進于朝者也 公名致遠 字海夫 孤雲其號也 湖南之沃溝人 幼穎慧絕倫 年十二 從商舶入中原 十八 舉進士第 久之 調溧水縣尉 任滿而罷 時值黃巢之亂 諸道行營都統高駢開府淮南 辟公爲都統巡官 凡表狀文告 皆出公手 其討黃巢檄 天下傳誦 奏除殿中侍御史 賜緋魚袋 後四年 充國信使東歸 事憲康王定康王 爲翰林學士兵部侍郎 出爲武城太守 眞聖時 挈家入江陽郡伽倻山以終焉 葬在湖西之鴻山 或謂公羽化者妄也 夫以海隅偏壤之產 而弱齡北學 取科宦如拾芥 終以文章鳴一世 同時賓貢之流 莫之或先

豈不誠豪傑之士哉 若其居幕數載 知高駢之不足
有爲 呂用之諸葛殷等之誕妄必敗 超然引去 去三
年而淮南亂作 則又有似乎知幾明哲之君子 其人
與文 要之可傳不可泯者也 據進表 是集之外 復有
今體賦一卷 今體詩一卷 雜詩賦一卷 中山覆簣集
五卷 唐藝文志 則稱桂苑筆耕二十卷 文集三十卷 而
他皆不傳 唯是集屢經鈐印 板刻舊佚 搨本亦絕罕
癸巳秋 余按察湖南 巡到武城 謁公書院 徘徊乎石
龜流觴臺之間 俛仰遺躅 有餘嘅焉 會淵泉洪公以
是集寄曰 此近千年不絕如線之文獻耳 子其無流
通古書之思乎 余如獲拱璧 懼其愈遠而愈佚也 亟
加証校 用聚珍字擺印 分藏諸泰仁縣之武城書院
陝川郡之伽倻寺 嗟乎 名醞之坊 必題杜康 良劍之
鏢 必標歐冶 爲其不忘本始也 我東詩文集之祇今
傳者 不得不以是集爲開山鼻祖 是亦東方藝苑之
本始也 庸詎可一任其銷沈殘滅 而不之圖哉 東還
後著作 散逸無傳 唯有梵宮祠墓之間 披林薮剔苔
蘚 尙可得十數篇 彙附原集 劖劂壽傳 余竊有志而
未遑云 按史稱中和二年正月 王鐸代高駢爲諸道
行營都統 五月 加高駢侍中 罷鹽鐵轉運使 駢旣失
兵柄 復解利權 攘袂大詬 上表自訴 言辭不遜 上命
鄭畋草詔切責之 今考集中 有謝加侍中表 巽辭引
咎而已 無一語激忿勃謾 又有謝賜宣慰表云 仰睹
綸音 深嘉師徒輯睦 黎庶安寧 其假借慰獎也 若是
之慙摯 史所謂草詔切責者 無乃非當時實錄也歟
又按中和紀年 止於四年 而公進表年月 系以中和
六年 蓋公以中和四年十月浮海 翌年春始抵國 又

翌年編進是集 而前一年之改元光啓 容或未聞知也 歲在闕逢敦牂中元 達城徐有渠 書于湖南布政司之觀風軒中

流觴臺碑文

泰仁郡即新羅之泰山郡 文昌侯崔公舊所莅也 郡南七里許 巖石盤陀 巖下流水環迴 文昌每觴詠於斯 倣逸少故事 至今父老相傳爲故事 臺歲久荒廢 余友趙使君子直 視篆之暇 逍遙乎臺上 悠然有曠世之感 累石增築 豎小碑以識之 屬余爲記 頃年余爲吏楓岳下 地稱神仙窟宅 思一修飾 而未暇及 子直其多乎哉 余惟文昌生星一周 涉海萬里 未弱冠 擢大唐巍科 踐霜臺 入金門 天下已爭知之 及其從事轅門 磨墨楯頭 使販鹽老賊魄褭膽落 眞所謂賢於百萬師矣 以其高才盛名 捲而東還 推出緒餘 亦足以維持一邦 顧乃沈淪銅墨若梅子眞 終焉浮遊方外 自託於羨門之屬 何也 噫 公之生世不辰 入中華則亂離瘼矣 歸故國則危亡兆矣 道不可行 身且難容 以此飄然遐舉 蟬蛻樊濁 誦紅流一絕 未嘗不三復歎憐其志焉 想其婆娑徜徉於是地也 感慨繼之者 豈但俛仰間陳迹而已哉 公之清風逸韻 溢於宇宙之間 而知公志者蓋亦尠矣 夫地之重與輕顯與晦 未嘗不由於人 古人有言 蘭亭茂林 不遇逸少則不傳 余亦云 是臺水石 得文昌而始彰 而千有餘年 又得子直增修而表揚焉 茲豈非有待於其人歟 不知是後繼子直而修者又誰也

崇禎紀元後十五年通政大夫行弘文館副提學趙
持謙撰
通訓大夫行弘文館應教兼西學教授趙相愚書

流觴臺重修記

肅廟壬戌之秋季 祖東岡公莅是邦 翌年冬以持憲
還于朝 視政周歲之間 治化大行 氓俗丕變 人用豐
碑 記述功德 碑之閣 又有銘曰 清德居官 醇風化俗
孤雲靈川 前後並蹟 幾至數百年之久 而仁聲未沫
遺愛不衰 五袴之歌 召母之謠 蔚然再美於茲縣 縣
之東二舍許 有古邑基址 前有峽溪之流 溪之上有
臺名曰流觴 壘之以石 匝以老樹 父老相傳 以爲孤
雲知縣時杖履處 而倣逸少故事者也 歷千載而始
有東岡公起曠世之感 仍古廢而築之 視篆之暇 有
時命輿 與村秀才 觴詠於斯 解紱歸後 使趙副學持
謙記述孤雲遊遨之蹟 載之石而手書之 俾豎之臺
上 伊後未數百年而臺又廢焉 水道亦隨而改 臺上
千章古木 多爲風所折拔 碑亦爲大水所滄踣 不知
其處 寒山一片 問之遺老而不語 先賢遺韻 無可徵
矣 過之者莫不指點而傷惜之 余之於甲寅冬來守
茲土 行過其下 見荒臺而問諸縣人 始得兩賢遺
蹟 心所景慕傷惜之者 不啻蓰倍於邑人 然而歲荒
賑飢 未遑修舉 至翌年有秋而民憂少紓 猶不可以
役凋瘵之氓改築臺 爲迺於粵明年 謀諸臺傍人士
之好古者 俾掌之 帖石防潰 栽木補缺 又欲引溪復
古流觴之水 而其勢末由也 已亦欲伐石爲記事之

碑而力不逮矣 嗚呼 又不知幾百禩之後 人有能繼
修之者 而川谷變遷 峴山沈水之碑 復出人間歟 是
未可知也 歲甲午季春 豐城趙恒鎮 記

院誌

武城古泰山祠宇 而
肅廟朝丙子蒙額之號也 盖泰仁縣 卽新羅泰山
郡而
文昌侯崔先生視篆之邑 山有伽倻·詩山 臺有月延·
流觴 先生杖屨觴詠之所 而絃歌遺風 百世不泯
鄉人立祠于月延之下矣 逮我
中廟朝甲辰 靈川申先生宰莅茲鄉 十訓教事 澤在
斯民 合享其祠

泰山祠事蹟【萬曆四十四年丙辰二月日】

屯田事 幼學金世經稟狀 五馬南來 政先興學 右文
之意 藹然於言辭之表【缺】
人人 旣行於下車之初 苟
有補於學校者 雖其所言之至淺 而不以爲淺 所請
之至難 而不以爲難 斯豈非有悔必達之秋耶 竊惟
本縣 古有四學 惟我靈川申侯之所建也 募奴而
復其役 給田而資其用 以爲養士之方 而民到于今
稱之 其有功於士林 爲如何哉 嗚呼 人歸世遠 古基
茅塞 絃歌之聲息矣 才難之嘆極矣 幸有【缺】維暨東
北二學 董繼遺風 則後生之有志者 雖有依歸也 而

生財無地 供土乏資 常自慨然者久矣 何幸今日有
 牛刀割雞 遠踵芳武 文不在茲乎 凡有所懷 不發說
 於左右 則後而失其時者矣 今願竊有請也 閣下
 豈可惜數頃之田 不遂多士之望耶 培養我士氣 成
 就我人才 所謂溉其根將食其實者 豈不在於此乎
【缺】本官高用厚題 屯田二石落只畝乙 書院及東北
 二學堂出給爲去乎²⁰¹ 秋來打作 以爲諸生公用之地
 而年年永爲定式之地爲乎矣²⁰² 後來主倅 如有還推
 之舉 持此告課事

金一挺 全世綸 金南挺 金汝諧 金泰挺
 金汝雨 全天賦 閔載重 殷之任 金時煥
 金萬挺 白舜弼 金世衡 金時挺 金尙玉
 屯田結卜三結十二負四束 古文有 今文無
 書冊七書與左傳·春秋·通鑑·性理節要·心經附註·聖
 學十圖·院規一部·三綱行實二倫行實·鄉約一卷·小
 學·祠宇圖 只有銘錄遺失無傳
 大明憲宗皇帝成化十九年 我朝成²⁰³宗大王十五²⁰⁴
 年癸卯 士論齊發 自臺上移建于院垜 伊後配享不
 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 卽七賢享祀之祠也
 毅宗皇帝崇禎紀元年後六十九年 我朝肅宗大王
 二十二年丙子 請額上疏 禮曹啓報以武城·

201 爲去乎 : ‘헝거운’으로 읽는 이두로 ~하므로, ~하기에, ~하고서, ~하오니의 뜻으로 사용된다.

202 爲乎矣 : ‘헝오디’로 읽는 이두로 ~하오되, ~하되, ~하옵되의 뜻으로 사용된다.

203 원문에는 예(睿)라고 표기되었으나, 문맥상 성종이므로 ‘정(成)’으로 입력하였다.

204 원문에는 오(五)라고 표기되었으나, 정확한 연도는 14년이므로 ‘사(四)’로 입력하였다.

泰山·南川三額號薦望 而首望武城蒙允

七賢事蹟

文昌侯崔先生 諱致遠 字海夫 號孤雲 慶州人也 唐
宣宗皇帝大中九年丁丑生 年十二 隨海舶入唐 尋
師力學 僖宗皇帝乾符元年甲午登第 光啟元年
乙巳東還新羅 憲康大王朝拜翰林學士 始倡文
物於東國 爲理學之宗儒 有桂苑筆耕集二十卷 唐
眞宗皇帝十三年·高麗顯宗大王十一年庚申
諡文昌侯

靈川申先生 諱潛 字元亮 高靈人 弘治辛亥三月
日生 年纔七歲 受業伯兄 纔經指授 卽自領解 不煩
劬苦²⁰⁵ 詞藻日進 聲名大振 正德癸酉 公年二十三
登進士 中廟朝治教更張 士學日新 公卽痛刮浮
華 務自砥礪 取讀聖賢之書 徧²⁰⁶交當世之士 往來論
辨 卓然自得 聞望益重 己卯登第 卽補藝文館檢閱
故事每賜對時 史官常後入先出 公進言曰 史官於
人主言動之微 無不察而書之 後入先出 恐有失於
紀實也 聞成廟朝 有一檢人 乘此得售其說 卒階
後禍 請自今先入後出以爲常 上可之 卽命爲例
未幾時事大變 公遂落職就閒 史官先入後出之制

205 1884년 원문에 若자로 되어 있으나 『옥계선생문집(玉溪先生文集)』의 신잡 행장과 1930년 『무성서원원지』
에는 畝자로 되어 있어 畝자로 고쳐 해석하였다.

206 원문에는 '편(編)'으로 되어 있으나 『옥계선생문집』 행장에 근거하여 '편(徧)'으로 수정하였다.

亦廢 公自此知不復有爲於時 辛巳橫被罪籍 遷于
長興府 丁酉移楊州 戊戌遂命任便居住 翌年丁憂
廬于峨嵋山下 癸卯以主簿出補泰仁 創建五學宮
己酉移守杆城 興學如治泰 壬子超拜尙州牧 州當
慶尙一道之衝 輪蹄輻輳 機務浩繁 又年歲大侵 流
民顛仆 死亡相枕籍 公於是盡心調活 規模節目 一
依在泰時 以是民無損瘠 觀察使丁公應斗 上荒政
之最于朝 上命增一秩 甲寅十二月三日卒 春秋
六十四 觀察使以訃聞于朝 上教曰 潛清廉勤幹
非他人比 今聞其死 良用惻然 遂命賻贈有加 卒
之日 士哭于庭 民號于野 如喪所親 玉溪盧先生曰
公之懿德俊行 可以師範一世 綱紀儒林 文章學術
足以黼黻皇猷 潤色太平 氣宇宏博 識量高雅 望之
儼然可畏 卽之油然可親 乙卯三月禮葬峨嵋山

不憂軒丁先生克仁 字可宅 靈光人 太宗大王
元年辛巳八月六日 生于豆毛浦里第 長歸貫鄉 天
資粹美 學問精明 宣德己酉中司馬 景泰癸酉丁
科第十三人 疏闢異端 竄逐妖僧 封章陳弊 革罷蚕
室 設鄉飲酒禮 一遵呂氏鄉約 聚子弟 教誨不倦 以
正言年七十致仕歸鄉 號不憂軒 吟成一絕 題壁以
寓 知足自止之意 成廟朝諫前正言丁克仁 予聞
廉介自守 不求聞達 聚鄉子弟 教誨不倦 予甚嘉焉
欲招用之 然年老難於任事 故特加三品散官 又求
弊言於公 公時年八十 強詣闕謝恩 又陳興學校事
革罷佛法事 守令勤慢殿最事 功臣私賤妾子從
父爲良事 田畝起陳區別納稅事 上番正兵優其奉

足事 各道都蚤復立利民事 漕船作弊列邑事 貢法爲弊事 治盜寬法之弊事十條 上賜酒慰遣 又令本道 時致惠養 爾宜知悉 成化辛丑八月卒 年八十一

訥庵宋先生 諱世琳 字獻仲 驪山人 成化十五年己亥十二月十四日生 母夫人金氏方娠 夢有神人褒衣金帶以告曰 三日當生貴子 名之萬年館 及期果生公 岐嶷胎成 三字不類 俗只稱萬年 公少聰穎 不煩師資 學問日進 弱冠中司馬 華聞大播 初公父韓山 以經術爲中廟初九時甘盤 及靖國賜公父子原從功臣 壬戌擢壯元科 癸亥轉吏曹佐郎 卽未幾 怙恃相繼捐背 泣血六年 仍成綿痼 號訥庵 七命不拜 跋白鹿洞規 教授子弟間 因王母鄭氏命出爲綾城縣令 莅官如臥齋閣 威不苛寬不弛 民有兄弟 詐述文書 爭一頃田 公曰是書僞也 兄弟一體而分 尺布可縫而競寸土乎 二人相感 乞焚其書 罷訟而退 義動人也 上封事 斥異端訴民瘼 賜肉帛以獎忠感主也 己卯正月卒年四十一

默齋鄭先生 諱彥忠 字良久 慶州人 器局沈重 訥言敏行 自中進士 旋廢赴舉 礪志求道 尤精易學啓蒙卦畫 程傳本義·璿機玉衡·洪範太極 精思力求 的破氷釋 是以明吉凶消長之理 卞進退存亡之機 擬之堯夫 非劣以優 在公懿德 孝行爲最 捐居舍 以與季妹 終天只之志 躬親甘旨 手執劑藥 生事父也 衰經不去 日啜一粥 守墓三霜 足不出柴門者 沒報親也 外雖如愚 內實嚴毅 單瓢屢空 守土之常 含章賁趾

不求人知 利欲聲色 浮雲太空 負笈盈門 善良輩出
圭庵宣化 講道仙雲 靈川下車 先訪草廬 一齋李先生
敬事待以師友 上褒其賢 原陵是拜 俄解職 絕意
崇途 聚鄉子弟 教誨不倦

誠齋金先生 諱若默 字太容 道康人 弘治庚申二月
一日 生于谷城衙 幼且端重穎悟 稍長從師醉隱受
學 日開月增 卓然有進 到晚蓋知 男兒事業 不在彼
歟 鄭默齋彥忠 礪志講學 孝友慈良 養爲己有 聲色
嗜欲 自爲外物 嘉靖丙申 公考贈佐郎公·母夫人
宋氏相繼沒 公身單喪疊 尙克盡職 禮靡不舉 皆得
中節 伏墓側三年 中廟庚子登別試乙科第一 己
酉除清洪都事 庚戌爲韓 爲治清儉 勸儒學居
先 未一荊刑平政理 上聞而嘉之 再降褒獎 賜表
裏 公無喜曰 無效受恩 非臣子之幸 常取前人燭淚
落時民淚落之句 書諸座右 每掃室靜坐 讀性理書
後秩滿歸 四境老弱 填街追哭曰 吾父去矣 丁巳拜
楊州牧 特以禮法 不容尺寸私 豪右皆斂氣 由韓及
楊 俱知治本有在 止除害根 不煩教條 待人必信 民
安樂之 爲楊數年 廢不視事者 只兩箇日 晨昏勞悴
遂成沈痼 及其不救 遷別舍禁婦女 終事皆合禮無
差失 未嘗一語及於家 戊午七月日卒于官

鳴川金先生 諱灌 字沃而 道康人 萬曆乙亥五月二
十五日生 天性孝友 克承庭訓 稍長師事朴蘭溪宗
挺 先是鄉先生不憂軒丁公克仁 訥庵宋公宋世琳 立
學堂 詳定鄉約 公一遵之 揭爲學式 每月朔望 深衣

幅巾 參謁祠院 退坐書室 勤學誨人 斯須不掇 萬曆
乙卯中進士 當昏朝政亂 嘗痛哭曰 恨未斷三昌頭
時廣昌李爾瞻·文昌柳希奮·密昌朴承宗 并有勳封
迭執國命故也 丁卯胡亂從沙溪金先生倡義 盡誠
募粟 先生益翊獎歎 當昏朝敦倫之時 不樂仕進 與
宋壺巖致中·金洗馬堪 諸賢作松亭十賢之會 觴咏
自娛 以寓風泉之懷 圖傳後世 夢村金相國鍾秀跋
其圖 漢湖金先生跋遺稿 杜湖趙叟撰 乙亥正月日卒

請額疏

伏以書院之設 所以尊有德景前行 興起斯文之盛
舉 而若非請于朝廷顯承澳號 則無以褒揚先賢
而殊欠崇報之意 故有賢則必有祠 有祠則必有
額者 其來尙矣 臣等伏覩 殿下臨御以來 好賢而
樂善 愛士而重道 賢祠之建 無願不從 恩額之典
有請即允 凡前日之所未遑者 莫不次第舉行 而
獨本道泰仁縣 有先賢祠宇 創建已逾百有餘年 而
尙未蒙寵錫之號 則此實盛世之闕典 而臣等之
所羞也 臣等請爲殿下 略陳其梗槩 惟聖明試
垂省覽焉 臣等謹按羅朝文昌侯崔致遠 以斯文宗
匠 遭時昏亂 出守泰山郡 卽今泰仁縣也 當時文獻
雖不足徵 而遺風餘韻 百世不泯 鄉人合謀 共構一
堂 以爲報祀之地 而其後又以曾爲邑宰者 本朝
先正臣申潛 合享於其祠 以鄉賢先正臣正言丁克
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使金若默·進士金灌
配以享之 夫致遠之文章學業赫然 照人耳目 旣躋

從祀之列 則臣等何必贅說於其間哉 申潛以己卯
名賢 早薦明經 中年受符 是邑其爲政 一以興學校
育人才爲務 坊村里社 廣設局堂 以爲講肄之所 捐
出己俸 以備餼廩之資 文風丕變 賢士輩出 其效作
成之效 不下文翁之化蜀 邑人追慕 遂與致遠而共
享焉 至若丁克仁 乃世宗朝人也 初以上庠入太
學時 有妖僧恣行佛法 誑惑一世 克仁率諸生 守
闕抗章 闕之廓如 自上深加獎歎焉 文宗朝舉
逸民不就 睿宗朝拜正言 以年滿七十 致仕還鄉
願學之士 遠近坌集 諄諄教誨 老而不倦 設鄉飲酒
禮 一倣呂氏之規 一鄉化之 成宗大王聞之 下教
獎諭 令本道時致惠養焉 宋世琳乃中廟師傅演
孫之子也 天分甚高 學業夙成 年纔弱冠 策名甲科
無意仕宦 七徵不起 事親至孝 誠禮備盡 毀撤佛宇
創立學舍 跋白鹿洞規 揭爲學式 訓迪蒙士 隨其才
而篤成焉 當時俊髦之士 多出於其門 鄭彥忠氣質
渾厚 訥言敏行 自中司馬 廢絕舉業 沈潛義理 尤精
易學 翫心高明 妙透象數 深得不傳之秘 於千載之
下 世以東方之康節稱之 先正臣宋麟壽 按節湖南
首訪講道 李恒·金麟厚相從講劇 待以師友 朝廷
特除厚陵參奉 終身不仕 金若默篤學力行 尊信前
賢 幼從內舅宋世琳受業 長與金麟厚·鄭彥忠等 互
相切磋 多所闡發 執親之喪 血泣三年 逮登科第 歷
職臺省 晚補楊州牧 興學勸農 教化是先 公退之暇
每掃室靜坐 讀性理諸書 夜分乃罷 平生志操 以清
儉恭勤 爲本世以金玉 君子稱之 金灌資稟近道 誠
孝出天 自少用力於義理上 深有所得 在昏朝時 嘗

赴舉入洛 亢兇爾瞻聞其名 邀請甚勤 至於躬造其
 僦舍 而終避不見 卷書歸家 不復就舉 左右圖書 探
 蹟蘊奧 每月朔望 聚會生徒於鄉塾 誘掖獎進 終身
 不怠 儼然爲士林之表 則其操履之堅確 德義之深
 厚 此可見矣 惟茲五臣者 或抱賢才而未盡展布 或
 在遐遠而未及上聞 志效雖未可見於一時 風聲
 猶可樹立於百世 則古人所謂鄉先生沒而可祭於
 社者 其不在斯歟 嗚呼 立祠而享之者 爲其賢也
 賜額而旌之者 重其事也 多士慕德 旣成俎豆之所
 則其在國家尊崇風勵之道 其可終闕宣額之
 典乎 試以東方諸賢言之 旣爲饌食於聖廟 則凡
 諸立祠之所 皆蒙賜額之恩 盖所以重其從祀之
 義也 顧念諸臣之德行學業 旣足以無愧於古人 爲
 範於來學 況致遠旣在從祀之列 則惟茲祠宇 豈可
 獨無頒號之舉乎 昔在先王朝 道內章甫 曾以此
 事陳達天陛 而適緣其時朝家多事 未克施行 豈
 不爲斯文之大欠事乎 茲以臣等不避煩猥之誅 合
 辭封章 裹足千里 復此籲呼於九重之下 伏願
 殿下 軫多士顒望之情 舉累朝久曠之典 特命
 有司 亟宣華扁 以賁院宇以永祀 則千萬幸甚 臣
 等不勝祈懇屏營之至 謹昧死以聞

疏頭 生員 柳之春 製疏 進士 宋明淵 寫疏 生員
 金鼎三 李厚培 幼學 金垣 金益初 殷鼎和
 殷鼎鉉 鄭之仁 鄭松年 鄭之雄 金尙敬
 金泰重 李星淵 金尙謙 李星弼 宋相益
 李星奎 辛萬煜 宋載亮 金尙俊 金亮采
 金相采 鄭世觀 宋山斗 宋山甫 丁萬期

金商傳 鄭世泰	金信胄 李星箕 宋致亮
宋相夔 宋相稷	鄭世益 權益載 權有載
宋弘輔 趙汝欽	李龜瑞 金雲翼 金溟翼
金致白 金太初	李大齡 洪應圮 趙相宣
金萬采 金世剛	金鵬翼 金致和 金尙衡
金慎采 金商鉉	金致祥 金商說 宋道淵
羅瑞奎 羅瑞星	宋賢輔 宋道輔 李必挺
李必起 丁 說	鄭 璈 權敏聖 權 (鏞?)
吳允益 吳允中	李鳳瑞 景華學 金應三
張溟翰 金應白	景和雨 景和星 黃 欽
韓后琦 張南翰	吳聖海 崔 袞 韓后成
崔 岐 崔胄昌	安大德 崔益華 崔 禘
崔 祿 崔 祐	高斗光 高斗明 高斗杓
西門台 趙山河	李萬榮 白光瑚 尹遇一
白光瑀 李 繕	李時說 趙汝益 李必郁
黃載重 金泰五	李后亮 裴萬厓 柳益長
洪仲衍 朴泰眞	金復謙 吳命祺 柳光玉
梁應八 李龜錫	金應義 李龜祥 黃世欽
柳夢麟 宋時瓘	李載興 朴大恒 柳宗惠
姜萬純 林宗穀	趙器全 文萬緯 李寬濟
宋殷成 柳 濂	柳友桂 李命郁 柳必壽
任致弘 柳夏英	柳夏振 南必箕 趙禎鳳
金百兼 金重華	沈壽台 奇挺會 奇挺玉
金百鍊 邊 攸	邊 佻 邊致用 奇挺緯
潘世茂 金百欽	邊 僖 邊 偉 沈碩基
李益元 邊 儼	權玉衡 尹志堯 蘇 玩
邊致尙 崔受慶	蘇 玘 權碩衡 蘇 琬

陳命新 林萬泰	李 溶 金應奎 蘇景鼎
陳維新 黃道濟	金紀鳳 崔興祖 俞顯基
蘇 瓚 崔翊祖	李德著 蘇震苾 俞慶基
李基錫 蘇弘遠	崔弘祖 崔致相 李 激
金瑞鳳 金夢臣	李 {火+寬} 金 瑾 柳秀輝
柳道輝 宋晚成	李 濤 李嗣先 蔡 根
蔡 章 殷鼎梅	金道亨 進士李徵憲 李錫鳳
李白翊 金五一	邊 修 李 {后/田}

請額事蹟

乙亥十一月十三日 會于本院 通告道內 十二月初一日 疏會于本校 丙子正月初五日封疏 二月初九日蒙允 十一月二十三日延額 禮曹啓聞 觀此全羅道生員柳之春等疏辭 則羅朝文昌侯崔致遠 以斯文宗匠 遭時昏亂 出補泰山郡 卽今泰仁縣也 遺風餘韻 百世不泯 鄉人合謀 共構一堂 以爲報祀之地 又曾爲邑宰者 本朝先正臣申潛 合享於其祠 以鄉賢正言丁克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使金若默·進士金灌 配以享之 諸臣之德行學業 無愧於古人 爲範於來學 旣成俎豆之所 而宣額之典 未免施行 士林惜之 特命有司 亟宣華扁 以賁院宇爲白臥乎所²⁰⁷ 崔致遠之道學卓冠 吾東旣已餽食於聖廟 申潛之興學育才 蔚爲儒化 至今遺愛於邑

207 爲白臥乎所(하루누운바)로 읽는 이두로 ~하옵는 바, ~하옵시는 바를 뜻한다.

人 以至鄉賢丁克仁以下五人 皆有學識 表表可稱
 則多士之建祠俎豆 可見尊慕之誠是白乎於 立祠
 既久 又無疊設之處 似當依願賜額是白矣²⁰⁸ 事係
 褒獎重典 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丙子二月九日同副承旨臣沈枰次知啓 特
 爲賜額爲良如教²⁰⁹ 額號以武城·泰山·南川啓報
 而首望蒙允 復戶三結 院生三十名 保奴三十名
 劃下院中

延額禮

本官前期 設使者次及香祝額號奉安幕次於
 廟門外之西南向 使者以香祝額號盛龍亭 隨行
 將至書院大門外 儒生出序立於道左 香祝額號
 至 鞠躬祇迎 過則平身 使者立大門外 執事奉香
 祝額號 安於幕次床上 謁者引使者 就幕次 大祝盥
 洗填祝 贊引引大祝及執事先入 詣盥洗位訖 各就
 位 大祝就神位 東南西向立 執事官就神位 西
 南東向立 諸生入就庭中北向 設安祝文之床於
 神位之左 設香爐香檯床 設安額號之卓於前楹
 階上 執事奉祭物 陳設于神位前 大祝出奉祭文
 執事二人奉香及額號先入 諸生鞠躬祇迎 過
 則平身 奉香盛于案上檯 奉祝置于神位之東
 床上 奉額號置于前楹階上卓 謁者引使者 立東

208 是白矣(이삭북디/이습되)로 읽는 이두로 ~이사오되, ~이삼되, ~이읍되를 뜻한다.

209 爲良如教(홍아산이산)로 읽는 이두로 ~하라고 하신, ~하라고 하심을 뜻한다.

門 立於階間北向 謁者引使者 詣盥洗位訖 謁者引使者 陞自東階詣神位東北 南向立 儒生四拜 贊者唱鞠躬拜興平身如儀 大祝詣板位前開櫝 謁者引使者 詣香案前立 執事 一人奉香爐 一人奉香楹 跪進使者左右 使者立三上香 大祝獻幣 使者受之 還授大祝 奠于神位前 司罇酌酒 執事官以爵進使者前 使者以爵授執事官 奠于神位前 連奠三爵 次詣配位 上香獻幣奠爵 并如儀訖 使者復位 儒生跪 大祝取祭文 立於神位之左西向讀 贊引引祠任 陞自西階 俯伏於神位前 使者宣額號訖 贊引引祠任 降復位 儒生四拜 贊者唱鞠躬拜興平身如儀 謁者進使者前 告禮畢 大祝及執事官 奉祭文及幣 就燎所焚訖 謁者引使者及諸執事官 出就講堂 儒生以次出 祠任跪進禮幣 使者立受 祠任小退再拜 使者揖 次詣執事官前跪 進禮幣 執事官立受 祠任小執再拜 執事官答再拜坐定 仍爲行禮後 使者起 祠任拜送於大門外 丙子十一月二十三日

祭文

維歲次丙子十一月甲寅朔二十三日丙子 國王遣臣禮曹佐郎柳格 祭于文昌侯崔致遠 先正臣申潛·正言丁克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使金若默·進士金灌之靈 粵維文昌 挺生羅季 歷數中朝 蔚然爲國瑞 文章學術 輝映千祀 饌食將聖 斯文未墜 我東儒教 實自公始 厭世溷濁 韜光就閒 鸞棲枳棘 于彼泰山 流風餘韻 赫赫耳目 邑人追思 報祀靡

式²¹⁰ 有若申潛 己卯名紳 出宰茲邑 少試經綸 設教興
 學 誘掖後人 文風丕變 遺澤在民 亦越五臣 令名俱
 彰 矜式一方 南土之望 或升于朝 或遜在野 凡厥行
 蹟 式相上下 地存遺蹟 士挹餘徽 一堂齊享 有廟祁
 祁 庸錫華扁 俾薦芬苾 曠世哀榮 靈其欽格
 使者禮曹佐郎柳 格 大祝淳昌郡守李湊
 奉香井邑縣監申喜澄 奉爐泰仁縣監李堂
 院長領議政南九萬 京有司應教趙相愚
 院任幼學金萬采 殷鼎和 執禮生員金大衡
 禮官幣物彩段一匹 白苧布一匹 壯紙五束
 大祝壯紙三束 奉香壯紙二束 白紙一束
 奉爐壯紙三束 禮曹書吏錢文二十二兩 彩段
 一疋 白木一匹 壯紙七束 白紙三束

各邑例賻記

巡察使金萬吉 米二石 壯紙二束 厚白紙二束
 本官李堂 院宇內白紋席地衣一件 眞米六斗
 租一石 白紙十束 曲子二同 甘漿二斗
 井邑官申喜澄 錢文二兩 白米五斗 壯紙一束
 白紙二束 石魚二束 民魚一尾 乾柿二貼
 金溝官趙楷 米十斗 白紙三束 曲子一同
 扶安官李萬選 米一石 曲子一同 眞米二斗
 生魚一束 鷄二首 松板二立

210 『고운집(孤雲集)』에는 忒자이다.

井邑鄉校 錢文五兩 興德鄉校白紙四束錢二兩
南原鄉校 錢文五兩 光州鄉校白木二疋
本邑鄉校 白米二石 羅州鄉校壯紙五束
全州鄉校 錢文四兩 金溝鄉校錢文五兩
淳昌鄉校 白紙五束 順天鄉校白米二匹
考巖書院 錢文十兩 南阜書院白米十斗錢四兩
義巖書院 錢文二兩 東學堂白米七斗
北學堂 白米五斗 西學堂白木五斗
南學堂 畚三斗落納 興陽丁氏門中白木七疋
請額事本校疏會時所用 米四十二斗七升
疏行上京時贐 錢九十一兩 用米十七斗
延額時 飯米三十七斗 酒米四十四斗 眞米六十
五斗錢四十三兩八錢 租三石十二斗 牛三隻
丙子春院宇重修時所用 米一百五十四斗七升 租
三石十一斗四升錢十一兩一錢
九月十五日 院宇更修時用 米五十斗五升 租六斗
七升錢一兩三錢
都有司幼學金禹三 別有司權效聖

祝文記 維年月日 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 伏以北學莫先 與道俱東 倡我後蒙
萬古英風 茲值仲丁 精禋是宜 謹以牲幣庶品 式陳
明薦 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
齋金先生·鳴川金先生配 尙饗
靈川申先生 伏以十訓教士 三事爲治 澤在斯民 久
而敬之 茲值仲丁 精禋是宜 謹以牲幣庶品 式陳明

薦 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
金先生·鳴川金先生配 尙饗

院生關文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禮曹關內 節
啓下教 啓辭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書院下
齋儒生額數多少酌定事 榻前定奪 已賜額書
院二十名 未賜額書院十五名 文廟從享儒賢
書院三十名 定式施行事 分付諸道何如 傳曰允
事啓下爲有置²¹¹ 啓下辭緣相考 道內各邑書院
良中²¹² 知委施行關是置有亦²¹³ 關內辭緣相考 儒生
額數定式施行爲乎矣²¹⁴ 書院良中 知委施行事

笏記

獻官及執事 前期三日致齋 行事日四更一點 祝以
下 開櫝開盖 贊引引初獻官 點視陳設 訖還出 諸生
及諸執事 俱就門外位 執禮贊引 入自東門 先就拜
位再拜 訖各就位 贊引引諸生 入就拜位 贊引引獻
官 就門外位 贊引引祝及諸執事就拜位 祝以下皆
再拜 詣盥洗位 訖各就位 贊引引獻官入就位 獻官

211 爲有置는 ‘ㅎ읏두’로 읽는 이두로 ‘~하였다. ~하였어도’라는 의미이다.

212 良中는 ‘아히’로 읽는 이두로 ‘~에, ~에서, 때(時)를 보이는 토’ 등의 의미이다.

213 是置有亦是 ‘이두이시니여’로 읽는 이두로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어요’라는 의미이다.

214 爲乎矣는 ‘ㅎ으되’로 읽는 이두로 ‘하오되, ~하되’라는 의미이다.

及諸生皆再拜行 初獻禮贊引進初獻官之左 白有
 司謹具請行事 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 訖引詣
 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罇所西向立 引詣文
 昌公崔先生神位前跪 三上香 俯伏興奠幣 俯伏興
 奠爵 俯伏興少退跪讀祝文 引詣靈川申先生神
 位前跪 三上香 俯伏興奠幣 俯伏興奠爵 俯伏興少
 退跪讀祝文 引詣配位罇所 東向立引詣 不憂軒
 丁先生神位前跪 三上香俯伏興奠幣 俯伏興奠爵
 俯伏興 引詣訥庵宋先生神位前跪 三上香 俯伏
 興奠幣 俯伏興奠爵 俯伏興 引詣默齋鄭先生神
 位前跪 三上香 俯伏興奠幣 俯伏興奠爵 俯伏興 引
 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 三上香 俯伏興奠幣 俯
 伏興奠爵 俯伏興 引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 三
 上香 俯伏興奠幣 俯伏興奠爵 俯伏興 引降復位 行
 亞獻禮 終獻禮上同 飲福受胙 贊引引初獻官 升詣
 飲福位 西向立奉爵 俯伏興平身 引降復位 獻官及
 諸生皆再拜 祝撤邊豆 獻官及諸生皆再拜 訖祝闔
 櫝望座 贊引引獻官 詣望座位 可祝禮畢 獻官
 諸生次出 執禮贊引再拜出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正廟朝七年癸卯十月日興陽·樂安兩邑通文 右文
 爲通諭事 貴邑非孤雲崔先生遺馥之鄉耶 泰山
 之高 曲水之長 莫非先生之風 則僉君子景仰尊
 慕 想必有倍於他矣 竊嘗聞先生遺像在於智異
 山之雙溪寺 是盖先生所逍遙之地 而僧輩揭以

爲古蹟者也 然而先生道德從享文廟 則遺像之混處於羅漢列者 寧不爲斯文之恥乎 是以湖嶺章甫 頃發公議 而闕里祠重修廳諸儒 又通于河東鄉校 仍飭于雙溪寺僧 卽爲移奉於先生之雲孫家 爲幸於士林 不其大歟 第念千古遺像 宛然在今 人思瞻拜 無不敬起 與其私於一家之尊奉 孰若公於萬人之矜式也哉 且其雲孫零替太甚 一間影堂 有難構成 將未免上雨旁風 墨渝而彩漶 則當初士論之倡發移奉 不幾於有始無終之歸乎 生等竊惟貴邑武城祠 卽先生安靈之所 而多士之欽仰 像亦不爲無助矣 以先生之遺像 掛先生之位後 時時瞻拜 永永尊慕 則在其雲孫 自無難處之慮 而亦於士林長爲揭虔之地矣 豈不美哉 茲與近地諸儒 合席相議 資送先生雲孫恒大 欲聽僉君子高論之如何 望須諒察而進退之 不勝幸甚 右敬通于泰仁鄉校 通頭幼學丁德輔 製通楊伯楷

本邑答通 右文爲通諭事 竊惟世之景仰孤雲先生者 恨不得摳衣親炙於紫遷·伽倻之遊 而千載之下 徒誦其柱晴嶂雲滢月潭烟之句 盖是先生畫像贊語也 後生末學 見聞寡陋 只傳贊文 未知畫像之所在矣 今聞得之於梵宇而奉之本孫家云 一以驚訝 一以欣幸 何者 禪家之崇奉釋迦·達摩之像 而先生影幀 胡爲相傳於千古浩恟之後也 此是吳道子之畫子路歟 顧生家之繪顏子歟 文成公購得孔夫子畫像於中州 而東國人始拜其儼然珠衡之像 皇明時模來朱夫子畫像於使行 而左海之士

初睹其灑落荷珠之像 先生之像 出於麗羅晦藏之餘 而一丹青幅遺儀宛然 則士之瞻拜展誠 悅若親謁 函丈之間 是所以欣幸也 爲吾徒者 當於先生所鍾之邑 所遊之地 構一間影堂 而湖嶺之儒 猝難協議 遂忱從權隨便 而奉安於妥靈之祠者 僉君子先獲我心矣 茲以今月十八日 鄙邑章甫齊會 武城書院以定明年仲春仲丁 移安影幀之儀而陪行 有司付名二員 僉君子不以其期之大緩 其儀之草草爲尤歟 右敬通于興陽·樂安鄉校 通頭金光運

影幀奉安時 呈狀

城主閣下 伏以本邑之古縣 卽泰山古治 而文昌侯崔先生更隱之地也 山有伽倻·詩山 卽先生遊賞之所 臺云月延·流觴 卽先生觴咏之處 而後人立祠於月延之下 而春秋享祀之者 蓋亦古矣 其後靈川申先生 東岡趙相公來莅此縣也 爲設鄉學於院垞 而朔必祗謁 重修流觴臺於古址 而日必來憩 何莫非景慕先賢之徽躅 而道德村中 尙闕君實之昌繪 錦城文化 猶阻乖崖之彷彿 則遺氓之墮淚 想像果何如哉 昨年冬自樂安·興陽通章來到而有曰 文昌侯崔先生影幀 奉安於樂安本孫之家 而本孫凋殘 竊欲移安於本縣武城書院云 噫嘻盛哉 先生以北方莫先之學 爲東國從享之首 而伊當日買絲之繡 果傳神錦還之年 而五季之風雨 不得晦焉 三韓之兵燹 不得到焉 不銷不泐 完爾無恙於雙溪之法師者 幾百載矣 而自寺而還安於家 自家而移

安於先生安靈之所者 有此來諭 地之相去也 半千餘里 而分而復合 歲之相後也 九百餘載 而神影相隨 則豈非有數存於其間也耶 後學小生 景仰千秋 聲猷已曠 典刑莫憑 而忽地天借 獲覩千百載真面 而潭月烟消 霽空雲捲 則亦豈非千載一時千古盛舉歟 矧乎神明太守 冠佩儼然 而一幅省識 恍若再莅 則一邑之大小髻白 孰不翹首而望趾足而待乎哉 今元月望 自樂安本孫家 先生影幀移安日 以二月初六日發程云 日字只隔 勢難前却 而顧此殘院 力綿舉羸 影板幀幌 將何以前期辦措 遠近章甫 亦何以臨時供億 本院院任 不可不極選 一鄉之望士 故爲先別擇付名 第念祇迎節次事面 類非儒林之私自獨擔 故茲敢齊聲 仰籲於閣下 慕賢愛士之下 伏乞特垂諒察 優加顧恤 旋即轉報營門 以爲所到祇迎之盛節 又卽下付工匠 以爲營繕修理之大舉 丕興縉儀 罔俾專美 幸甚 民等無任祈懇 狀頭幼學金道修製 書金慶遇

影幀奉安日記

甲辰二月初六日 本邑陪行有司幼學金光一·金載厚 自樂安鄉校發行宿順天府 先生後孫樂安崔恒大 興陽崔仁甲 進士崔顯大 樂安校任申永壽·金以鉉率儒生祇迎 順天府使李惠祚瞻拜 校任金玩率儒生祇迎 初七日 自順天至北倉中火暮到鴨綠津宿院舍 初八日 自鴨綠院至谷城邑中火 校任李惟謹·柳完載率儒生祇迎 同日自谷城宿玉果邑衙

中 李升徽瞻拜 校任金致賢率儒生祇迎 院任沈埰
 鎭·申致祿·金達民率院生祇迎 初九日 自玉果至淳
 昌中火 校任韓八教·洪洛根率儒生祇迎 同日自淳
 昌宿尋院寺 初十日 自尋院寺至本院 本邑金樂胤·
 宋啓天率院儒 自菱橋陪行影幀 暫奉于流觴臺 金
 慶遇祇迎 仍爲陪行 同日奉安 祭享獻官幼學金光
 秋 預差朴良植 典祀崔日東 執禮金致榮 贊引鄭國
 僑 贊唱洪致慶 大祝宋撲 奉香朴大植 奉爐宋訓 奠
 爵金賢鐸 滌器安啓昌 望瘞金基一

影幀奉安祝文 維年月日 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 伏以文昌先生 道
 遠千載 神傳尺幅 自彼樂邑移次 主壁板以揭 位壇
 而補罅 茲擇穀朝 虔告厥由 謹以粢盛庶品 式陳明
 薦 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
 金先生·鳴川金先生配 尙饗
 縣監徐簡修 齋長宋廷麟 掌議金履吉 色掌趙碩麟

院宇丹牖重修記²¹⁵

癸卯十月日樂安士人崔公恒大 袖興樂兩邑校儒
 僉章而來弊邑 恒大卽文昌公之裔孫 而覽其通
 辭 文昌先生畫像移奉事也 若稽夫先生影幀

215 1930년 원지에는 賢宇丹牖重修事蹟로 되어 있다.

自羅而麗而至今 藏在頭流雙溪寺 禪非慕儒者 而先生遺像 胡爲謹奉於世局浩恫之餘耶 抑以雙流清溪杖屨逍遙之地 而模來古貌爲寺之奇蹟歟 不可詳爾 第嶺南章甫 慨其先生七分之儀 誤留佛家 而先通于河東校 轉通于恒大家 使之移奉 深得其禮也 湖左兩邑之儒 又以爲本孫凋殘 家祠傾圮 竊恐尺幅畫面 竟有風雨之憂 而將欲奉之於妥靈之祠 亦中其禮也 擎章披讀 讀未了而僉曰 於我邑先生吏隱之地也 俎豆之鄉也 盍以畫像奉諸祠宇 粵明年仲春日 方以移安 而余忝別有司之任 遂與邑之士 謀所以設位於先生主壁之北 咸曰斲板揭座 當如龕形畫欄錦帳可具也 又曰祠之地衣已弊 丹牖亦渝 並可改也 本院殘罷 財力無以辦 我侯徐公簡修 乃先以十鎰銅助焉 乃舉役而自院乞力於四學 又除別廳錢 總六十餘緡 貿彩買繡 煥其影像之位 而地茵之破裂者易之 丹青之黝昧者新之 至於工匠之使色土之用 亦侯之力也 本院之省費 豈小小哉 蓋以是月初六日壬戌始事 仲丁前一日丙寅奉影畫像 後七日癸酉工訖焉 邑之人獲拜遺像而舉皆懽欣蹈抃 俾余以記 噫 贊先生之像者 擬之以柱空捲雲 澄月消烟 浩浩杳杳 不可尙已 千載之下 孰能模捉 而一幅生綃 毛髮森然 冠佩偉焉 則畫工之傳神 勝於後學之想像耶 觴臺弭節 活畫不冥之靈 想應有千古續遊之感 而奉之舊祠神影 相依離合 亦有數歟 士之瞻拜者 悅若摳衣陪從於伽山紫臺之上 胡令後人景慕之至此也 詩山不磨 曲水無盡 先生之風 山高水長

崇禎後三甲辰仲春金陵金仁行書

移安祝文 維年月日 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 伏以上雨滲漏 椽桷朽落 茲當修改 虔告厥由 謹以粢盛庶品 式陳明薦 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配 尙饗

還安祝文 上同

伏以補漏改弊 既新且完 奉還神位 庶幾安安

重修記²¹⁶ 回祿以上懸板·上樑文 入於灰燼

純廟朝二十五年乙酉四月日 講堂有回祿之禍 本孫幼學金玟·宋致德·金峻哲·丁文德·鄭載赫·金匡述合謀修葺 經始數年 稟告本官徐侯灝淳 徐侯好賢誠慕 捐廩心貺 粵四年戊子三月 改新訖功 越四年辛卯 文昌侯崔先生影幀改模 事蹟載碑文及懸板

216 1930년 원지에는 講堂重創事實로 되어 있다.

桂苑筆耕集開刊記

純廟朝三十四年甲午 本官沈候能淑 與院儒朴海
彥·李俊漢·金祖鉉·金黈·金奎勳 筆耕集開刊事 稟于
巡察使徐公有渠 徐公捐廩開刊 完營押印 藏于書
院 事蹟載於懸板

憲廟朝十五年己酉 豎徐候灝淳不忘碑銘 好賢誠
慕 捐廩心貺 幀面再新 院貌重創 有司金玟·金泓

稟狀

哲廟朝六年乙卯 院後偷塚事 院任幼學金燾·宋程
淳·進士金燦厚·權執圭·宋持灝呈稟狀

伏以本院後麓城隍山 卽古泰山郡城隍堂天祭之
址 今爲武城書院之主山 累百年初無一坏之塚矣
不意有偷葬之人 至於三十餘塚之多 風化所關 是
何忍也 孰不可忍也 不塞不流 不止不行 掘其塚 院
其院 一以爲尊賢之道 二以杜蔑法之習 無任祈懇
本官韓山李侯承敬 親審督掘

當寧五年戊辰 各院存撤之際 本院復戶 保奴蠲削

當寧六年己巳 巡察使徐公相鼎 創建徐侯碑閣 劃
給錢百緡拮据

當寧九年壬申三月日 幼學金必欽·金廷勳·邊大容·
金永璐院垵除役呈稟狀²¹⁷

伏以尊賢尙道 朝家崇報之盛典也 本院卽七賢
享祀之院 而肅廟朝宣額時劃下 復戶三結 保奴
三十名 院生三十名 混入蠲削 而況且今茲戶布後
院垵接人汗掌庫直 亦入於均布之役 春秋之享祀
接支末由 朔望之焚香 供具難措 伏願城主閣下
仰答朝家崇道之典 院垵二十戶戶布烟役 卽爲
頃下之地 無任懇祝 本官趙侯中植 蠲頃十一戶布

217 1930년 원지에는 復戶保奴事實로 되어 있다.

及烟役 永久遵行

復戶保奴還復記

當寧十五年²¹⁸戊寅 聞長城筆巖書院 復戶保奴復舊
事 定舉員幼學黃基煥 發文受答通 始爲呈稟

筆巖書院答通 右文爲回通事 夫院存而復戶之自
在 知是朝家崇報之典 而曩在撤院之時 混入一
體者 係是吏胥輩之畏劫於朝令 而未能詳審之
致也 本院則推尋時 自政府有嚴題 而罪其都吏輩
之弄奸 官而報營 至有完文 永久無弊事之原委
如斯已矣 幸望貴院 明白推尋 以補春秋絜盛之
道如何 道內書院不過三數處 其所尊奉 尤當如何
況復戶所重自別矣 不可晷刻仍循者矣 惟願僉君
子 益加勇斷 期必推尋 亦豈非士林之大生光者乎
通頭 幼學 宋駟·金壽千·朴崙陽

十二月二十三日 幼學宋程淳·邊吉容·黃基煥稟狀

伏以夫子嘗曰 爾愛其羊 我愛其禮 告朔雖廢 餼羊
不去 推可驗體禮之大關 而況乎書院既爲仍存 則
復戶保奴 是乃體禮之大關者也 文昌侯崔先生
諱致遠 以斯文宗匠 從祀文廟 遺風餘韻 百世不泯
靈川申先生諱潛 以己卯名賢 早薦明經 受符爲政

218 1930년 원지에는 高宗로 되어 있다.

興學育英 不憂軒丁先生諱克仁 初以上庠入太學
抗章斥佛 致仕還鄉 教誨不倦 設鄉飲酒禮 訥庵宋
先生諱世琳 年纔弱冠 策名甲科 無意仕宦 七徵不
起 毀撤佛宇 創立學舍 跋白鹿洞規 揭爲學式 默齋
鄭先生諱彥忠 氣質渾厚 訥言敏行 沉潛義理 尤精
易學 玩心高明 妙透象數 誠齋金先生諱若默 篤學
力行 尊信前賢 晚補楊州 興學勸農 清儉恭勤 世稱
金玉君子 鳴川金先生諱灌 資稟近道 誠孝出天 用
力義理 深有所得 操履堅確 德義深厚 爲士林之表
七賢配享立祠維舊矣

肅廟丙子十一月日 特蒙宣額之恩 復戶三結保
奴三十名 院生三十名劃下院中 春秋之享祀 朔望
之焚香 奉行謹審 去戊辰書院存撤之際 國中仍
存四十七院中 本道內泰仁之武城長城之筆巖光
州之褒忠三院 特存仍享 而保復之蠲削 院生之亦
減 三院一時矣 院宇既是仍存 則保復必無蠲削之
理 而其時士林公議 惶恐未遑矣 近者筆巖·褒忠
兩院 復戶還復 保奴還保 尊賢景慕之地 欽仰果何
如哉 道內三院 俱是仍存 則保復之還復 亦是一體
而兩院既有還復之事 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
本院文昌侯祠院中 先額首創 何等尊崇之地 尙
未還復其保復者 實是士林之公議 齋嘆者久矣 自
筆巖齋中通文與完文草來到 故茲敢帖連齊聲 仰
籲復戶保奴 依他院例 還復之地 無任祈懇
縉紳井邑縣監金益健 題往稟于院長事 幼學
李秉德 鄭海斗 金永洪 丁世基 金必欽
權鍾喜 奇一衍 閔致佑 金永彥 金永準

高永柱 金永璐 宋晚秀 禹在鎬 南 鑽
金樂欽 金昌欽 申學模 金永朝 鄭漢龜

己卯二月初四日 幼學李秉德·權秉圭·金永璐稟狀

國有庠序 鄉有校院 卽我東方尊聖賢開來學之義
而復戶之劃下 保奴之劃付 寔出於崇道尙禮之盛
典也 矧且書院之蒙額 繼之而復戶保奴 自是列
聖朝培養之盛教也 本院卽七賢配享之院 而七賢
行蹟已悉於前狀 不必歷舉 而
肅廟朝特蒙宣額之恩 復戶三結保奴三十名院
生三十名劃付院中 春秋之享祀 朔望之焚香 年近
累百 奉愼謹行矣 去戊辰各院存撤之際 國中仍
享四十七院中 本道內泰仁之武城·長城之筆巖·光
州之褒忠 三院特蒙仍享 而復戶保奴之蠲削 院生
之亦減 三院同然矣 院宇既是仍存則保復必無蠲
削之理 而其時士林公議 惶恐未遑矣 年前筆巖
·褒忠兩院 復戶還復 保奴還保 尊慕欽仰 果何如哉
道內之三院 俱是仍存享 則保復之還復 亦是一體而
兩院既有還復之禮 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 本
院卽文昌侯祠院中 首創先額之院 何等尊崇
之地 保復之尙未還復者 寔是士林之齎嘆久矣 自
筆巖書院通文與完文草來到 故茲敢帖連齊聲仰
籲 伏願特垂崇道尙禮之典 復戶保奴一依兩院
例還復 以副士林之顒望 無任祈懇
院長 閱觀鎬題 儒單容或無怪 自官無擅便之道事
幼學 宋南秀 洪淳達 金光欽 高泰鎮 金永烈
金永準 宋程淳 朴台東 金永弼 邊大容

申興模 權鍾洪 金永鯤 金相浩 李承湖
安堯錫 柳寅燁 崔炳灝 鄭鍾龜 金廷述
金堯昇 丁相鉉 宋曦玉 李光烈 裴基萬

己卯二月十六日幼學金龍祖·金光欽·邊大容稟狀

魯祀太牢 衛聖崇德之義 而有賢則有院 有院則有復 我東方列聖朝崇德之懿典也 本院卽七賢安靈之所 而七賢事蹟已悉於前狀 不必歷舉 而肅廟朝丙子特蒙額恩 復戶三結 保奴三十名 院生三十名劃付 院中春秋俎豆之禮 朔望焚香之節 累百年來 奉行謹慎矣 去戊辰各院存撤之際 國中仍存四十七院中 本道內泰仁之武城 長城之筆巖 光州之褒忠 三院特蒙仍享 而保復之蠲削 院生之亦減 三院一時矣 院宇既是仍存則保復必無蠲削之理 而其時士林之公議 惶恐未遑矣 年前筆巖·褒忠兩院 復戶還復保奴還保 景慕欽仰 倘何如哉 道內三院 同是仍存則保復之還復 亦是一體 而兩院既有還復之禮 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 本院卽文昌侯祠院中 首創蒙額之院 而何等尊慕之地 保復之尙未還復者 寔是士林之顚嘆者久矣 自筆巖書院通文與關文草來到 故茲敢帖連仰瀆 伏願特垂崇德之典 一依兩院例還復之意云云 巡察使沈公履澤題 士論非不當然 而未遑之典也 從當議處 幼學宋永采 李東奎 權鍾洪 朴潤壽 李啓鎬 金樂欽 安永文 李珉求 丁基翕 孫奎先 奇東旭 金宗琳 金亨植 李啓應 安學律 南 濟 金廷勳 盧極壽

金永昌 尹希成 羅燾元 柳景善 朴在植

己卯八月十日政府呈狀事 宋程淳·金永烈上京時

白樂俊京營間周旋得題 有功於院中

進士邊遇基·李以鉉·金堯翊稟狀

國之有院 賜額而繼以復戶保奴之劃下 實是尊
賢崇道之盛典也 本院卽文昌侯崔先生安靈主享
之院 而肅廟丙子十月日 特蒙宣額之恩 復戶三
結保奴三十名 院生三十名劃下 院中春秋享祀朔
望焚香 年將累百 謹慎奉行矣 戊辰撤院之際 本道
內仍享之院 泰仁之武城 長城之筆巖 光州之褒忠
而復戶保奴之蠲削 三院一時矣 院宇既是仍存 則
保復必無減削之理 而其時士林之還復公議未遑
矣 年前筆巖·褒忠兩院 復戶還復保奴還保 尊賢景
慕欽仰 果何如哉 道內三院俱是仍存 則保復之還
復 亦是一體 而兩院既有還復之禮 一院奚獨無
還復之理 本院文昌侯祠院中 首創先額之院 何
等尊崇之地 保復尙未還復 實是士林之齎嗟久矣
前後文狀帖聯齊聲仰瀆 伏願特垂尊賢崇道之典
復戶保奴依前例還復之意 關文特下該道營邑 以
爲更新院貌之地 謹冒昧以陳

領議政李公最應題 既有院則必有保復 自是典式
也 而與他院異規者 豈不有欠於尊賢之道乎 一依
他院例施行 而邑吏輩如有從中奸弄 則甚非事體
攸當事

幼學 金龍祖 李東莢 權鐘豐 柳恒豐

金永弼 高永柱 朴魯洙 金相煥 權壽日

金建中 丁泰鉉 邊鎮奎 崔翊坤 崔恒淵
崔喆洙 宋鍾壽 趙秉浩 黃宗默 宋持興
閔慶鎬 金永朝 黃基煥 金樂欽 裴基萬
金龍采 邊吉容 李昌寧 禹在鎬 白昌鎭
金永璐 朴尙燁 安炳錫 丁永瓘 金永勳

己卯九月初六日 京司題音本官到付狀

院事惟在院長之處分何如 而本院復戶與保奴還
復事 既稟于院長 又呈于巡營 仰瀆于政府 而題教
帖聯 仰稟院長閱觀鎬 題即當報營措處

己卯十月初一日 京司題音營門到付狀

本院復戶與保奴還復事 伏承營邑之題教 而緣
由仰瀆于領相閣下 題教云云
觀察使沈公履澤 題既有士論 且有京司題飭 復舊
之節 從長善處

己卯十月二十八日院儒稟狀

本院復戶及院生保奴復舊事 已悉於前後狀辭 不
必更瀾 而政府及營門之題飭鄭重 同歸於正 則惟
係主司之裁處 惟我院長以邑之司成 方在本院院
長 則其所以象賢禮制 宜加盡道 凡所復舊之節 卽
一更始之政 則右此劃下之盛典 皆從其朔 亟施措
處 依舊更新 則仰答朝家崇賢之本意 而大有功
於師門 蔚然興於儒風者 實爲武城絃歌之永誦 其
在感服銘佩 無任祈懇
院長 閱觀鎬題 復結依營題施行是在果 至於院生

保奴 繫之於民事艱艱 廣探物議 從當區劃

泰仁縣監書目

本縣武城書院復結 已自戊辰添付槩狀屬於出稅之案 則有不可自邑擅便 更伏俟處分之如何
營題 既有他院已行之例 且有政府題勅 不容不依舊施行

庚辰正月十九日院任稟狀

本院復戶與保奴事 特蒙復舊之題教 而以待處分矣 春享祭在邇 故茲敢仰籲於慕賢尊道之下 伏願復戶三結 保奴三十名 卽地推給 以爲享祀需用安行之意 茲敢仰稟
院長題 保奴三十名亦一體復舊

庚辰二月十五日 院儒稟狀

本院復戶還復事 已悉於前後狀內 不必枚舉矣 夫政府之題意 如是鄭重 巡營之教勅 何等截嚴 院長之許施 兩度完成 而至於出稅之境 同該吏云削於收租案 終不出尺 政營邑累勅之下 事甚駭然 伏願嚴關該邑 復三結 依舊還復 以補春秋享祀之禮
營題 已有前報之題 何不施行

庚辰四月十三日 院任稟狀

本院復結還復事 已悉於前後狀內 今不必更陳 而另加題飭於都吏處 一依筆巖·褒忠兩院例復舊 院長題 至於復結 係之於上司 則自官萬無擅便之道

庚辰六月初七日 道儒稟狀

本院復戶還復事 已悉於前後狀 去年八月 仰瀆于閣下 題教卽到付營邑 而復戶尙未復舊 嚴明發關於營邑 卽爲還復云云

政府題 已悉於前題是在果 有其院無其復 非事體事理也 蔽一言 明是該吏之舞奸偷弄者也 自本營別般嚴飭於該邑 依式推給後 形止馳報

辛巳七月十七日院儒稟狀

本院復戶復舊事 已悉前狀 政府及營門題飭屢次鄭重 則惟係於院長處分何如云云
院長李定植題 年前已有查報之營題 而到今啓聞 蒙劃之前無他道 惟竣下回

辛巳十二月十六日 院儒稟狀 本院復結還復事 七月舉槩仰籲 依題教 伏待特下如海之澤 旣復積年未遑之事 永久遵行之意 完文成給之地云云
院長題 此乃朝家之劃付 未知還寢之何故 而必緣該色輩未察之致也 以此憑信 永久無至沒實

壬午三月豎李相公最應碑銘 尊賢尙德 豐功盛烈 保復重創 絜牲愈潔 並豎李侯定植碑銘 保復還舊 苾芬重馨 誠深慕仰 頌溢刻銘 有司丁世基·宋程淳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

周易具諺解一秩	書傳具諺解一秩
詩傳具諺解一秩	論語具諺解一秩
孟子具諺解一秩	中庸具諺解
大學具諺解	小學具諺解一秩
春秋左傳十冊	禮記十冊
周禮十冊	性理大全一秩
箕範衍義四卷	孔子家語三卷
東萊博議二卷	孟子序說一卷
孝經一冊	古文鏡三卷
通鑑要解二卷	大喪禮備一卷
史要聚選五冊	數學啓蒙一卷
大禹氏篆帖	撰賦六卷
王右軍筆帖	韓文二卷
河西金先生筆帖	古文前後集八冊
晦軒安先生實記三冊	濂洛二冊
玉篇二卷	杜律二冊
史記評林一秩	唐詩五冊
鴻史一秩	

武城書院七賢妥靈之院 而道內章甫揖讓進退之所也 余以後學猥忝院誌之任 溯古歷今 不敢贅說其間哉 而泰山芝山處士安在護 文懿公諱文凱之後孫 承旨公諱大規之六世孫也 平日素行 在於孝友等六行 上而守身儉約 齊家清穆 聚洞子弟 教誨不倦 學式揭付堂壁 一則白鹿洞規 一則鄉飲酒禮 朔望習禮 春秋講磨 及其年暮 聞南學重創 復覩茲院習禮 慨然有慕賢興學之心 家藏書冊累百卷

留藏于院中 以爲講習之資 莊脩之寶 猗歟欽哉 余
不勝興感之心 以不文忘孤陋云爾 甲申閏月日
河西金先生後孫堯昇謹記

武城書院院誌上

後孫承旨公諱大規之六世孫也平日素行在於孝
友等六行上而守身儉約齊家清穆聚洞子弟教誨
不倦學式揭付堂壁一則白鹿洞規一則鄉飲酒禮
朔望習禮春秋講磨及其年暮聞此南學重剏復觀
茲院習禮慨然有慕賢興學之心家藏書冊累百卷
留藏于院中以爲講習之資莊脩之寶猗歟欽哉余
不勝興感之心以不文忘孤陋云爾甲申閏五月日
河西金先生後孫堯昇謹記

大禹氏篆帖

撰賦六卷

王右軍筆帖

韓文二卷

河西金先生筆帖

古文前後集八冊

晦軒安先生實記三冊

濂洛二冊

玉篇二卷

杜律二冊

史記評林一秩

唐詩五冊

鴻史一秩

武城書院七賢妥靈之院而道內章甫揖讓進退之所也余以後學猥忝院誌之任滌古歷今不敢贅說其間哉而泰仁芝山處士安在護文懿公諱文凱之

詩傳具諺解一秩

論語具諺解一秩

孟子具諺解一秩

中庸具諺解

大學具諺解

小學具諺解一秩

春秋左傳十冊

禮記十冊

周禮十冊

性理大全一秩

箕範衍義四卷

孔子家語三卷

東萊博議二卷

孟子序說一卷

孝經一冊

古文鏡三卷

通鑑要解二卷

大喪禮備一卷

史要聚選五冊

數學啓蒙一卷

辛巳十二月十六日院儒稟狀本院復結還復事七月舉槩仰籲依題教伏待特下如海之澤既復積年未遑之事永久遵行之意完文成給之地云云

院長題此乃 朝家之劃付未知還寢之何故而必緣該色輩未察之致也以此憑信永久無至沒實

壬子二月豎李相公最應碑銘尊賢尚德豐功盛烈保復重剏染牲愈潔並豎李侯定植碑銘保復還舊茲芬重馨誠深慕仰頌溢刻銘有司丁世基 宋程淳
芝山處士安在護藏書記

周易具諺解一秩

書傳具諺解一秩

閣下題教卽到付營邑而復戶尚未復舊嚴明發關
於營邑卽爲還復云云

政府題已悉前題是在果有其院無其復非事體事
理也蔽一言明是該吏之舞奸偷弄者也自本營別
般嚴飭於該邑依式推給後形止馳報

辛巳七月十七日院儒稟狀

本院復戶復舊事已悉前狀政府及營門題飭屢次
鄭重則惟係於院長處分何如云云

院長李定植題年前已有查報之營題而到今

啓聞蒙劃之前無他道惟竢下回

之許施兩度完成而至於出稅之境同該吏云削於收租案終不出尺政營邑累勅之下事甚駭然伏願嚴關該邑復三結依舊還復以補春秋享祀之禮營題已有前報之題何不施行

庚辰四月十三日院任稟狀

本院復結還復事已悉於前後狀今不必更陳而另加題飭於都吏處一依筆嚴褒忠兩院例復舊長題至於復結係之於上司則自官萬無擅便之道庚辰六月初七日道儒稟狀

本院復戶還復事已悉於前後狀去年八月仰瀆于

舊施行

庚辰正月十九日院任稟狀

本院復戶與保奴事特蒙復舊之題教而以待處分
矣春享祭在邇故茲敢仰籲於慕賢尊道之下伏願
復戶三結保奴三十名卽地推給以爲享祀需用安
行之意茲敢仰稟

院長題保奴三十名亦一體復舊

庚辰二月十五日院儒稟狀

本院復戶還復事已悉於前後狀內不必枚舉矣夫
政府之題意如是鄭重巡營之教飭何等截嚴院長

一更始之政則右此劃下之盛典皆從其朔亟施措
處依舊更新則仰答 朝家崇賢之本意而大有功
於師門蔚然興於儒風者實爲武城絃歌之永誦其
在感服銘佩無任祈懇

院長閔觀鎬題復結依營題施行是在果至於院生
保奴繫之於民事艱艱廣探物議從當區劃

秦仁縣監書目

本縣武城書院復結已自戊辰添付槩狀屬於出稅
之案則有不可自邑擅便更伏俟處分之如何
營題既有他院已行之例且有政府題勅不容不依

己卯十月初一日京司題音營門到付狀

本院復戶與保奴還復事伏承 營邑之題教而緣
由仰瀆于 領相閣下題教云云

觀察使沈公履澤題既有士論且有京司題飭復舊
之節從長善處

己卯十月二十八日院儒稟狀

本院復戶及院生保奴復舊事已悉於前後狀辭不
必更瀾而政府及營門之題飭鄭重同歸於正則惟
係主司之裁處惟我院長以邑之司成方在本院院
長則其所以象賢禮制宜加盡道凡所復舊之節卽

金永弼 高永柱 朴魯洙 金相煥 權壽日
金建中 丁泰鉉 邊鎮奎 崔翊坤 崔栢淵
崔喆洙 宋鍾壽 趙秉浩 黃宗默 宋持興
閔慶鎬 金永朝 黃基煥 金樂欽 裴基萬
金龍采 邊吉容 李昌寧 禹在鎬 白昌鎮
金永璐 朴尚燁 安炳錫 丁永瓘 金永勳
己卯九月初六日京司題音本官到付狀

院事惟在院長之處分何如而本院復戶與保奴還
復事既稟于院長又呈于巡營仰瀆于政府而題教
帖聯仰稟 院長閔觀鎬題卽當報營措處

還復之理本院文昌侯祠院中首勅先 額之院何等尊崇之地保復尚未還復實是士林之齎嗟久矣前後文狀帖聯齊聲仰瀆伏願特垂尊賢崇道之典復戶保奴依前例還復之意關文特下該道營邑以爲夏新院貌之地謹冒昧以陳

領議政李公最應題既有院則必有保復自是典式也而與他院異規者豈不有欠於尊賢之道乎一依他院例施行而邑吏輩如有從中奸弄則甚非事體攸當事

幼學金龍祖

李東萊

權鐘豐

柳恆豐

賢崇道之盛典也本院卽文昌侯崔先生妥靈主享
之院而肅廟丙子十月日特蒙宣額之恩復戶三
結保奴三十名院生三十名劃下院中春秋享祀朔
望焚香年將累百謹慎奉行矣戊辰撤院之際本道
內仍享之院秦仁之武城長城之筆巖光州之褒忠
而復戶保奴之蠲削三院一時矣院宇旣是仍存則
保復必無減削之理而其時士林之還復公議未遑
矣年前筆巖褒忠兩院復戶還復保奴還保尊賢景
慕欽仰果何如哉道內三院俱是仍存則保復之還
復亦是一體而兩院旣是有還復之禮一院奚獨無

巡察使沈公履澤題士論非不當然而未遑之典也
從當議處幼學宋永采 李東奎 權鍾洪

朴潤壽 李啓鎬 金樂欽 安永文 李珉求

丁基翕 孫奎先 奇東旭 金宗琳 金亨植

李啓應 安學律 南濟 金廷勲 盧極壽

金永昌 尹希成 羅燾元 柳景善 朴在植

己卯八月十日政府呈狀事宋程淳金永烈上京時

白樂俊京營間周旋得題有功于院中

進士邊遇基 李以鉞 金堯翊稟狀

國之有院 賜額而繼以復戶保奴之劃下實是尊

筆巖光州之褒忠三院特蒙仍享而保復之蠲削院
生之亦減三院一時矣院宇既是仍存則保復必無
蠲削之理而其時士林之公議惶恐未遑矣年前筆
巖褒忠兩院復戶還復保奴還保景慕欽仰倘何如
於道內三院同是仍存則保復之還復亦是一體而
兩院既有還復之禮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本院
卽 文昌侯祠院中首荆蒙 額之院而何等尊慕
之地保復之尚未還復者寔是士林之顙歎者久矣
自筆巖書院通文與關文草來到故茲敢帖連仰瀆
伏願特垂崇德之典一依兩院例還復之意云云

安堯錫 柳寅燁 崔炳灝 鄭鍾龜 金廷述

金堯昇 丁相鉉 宋曦玉 李光烈 裴基萬

己卯二月十六日幼學金龍祖金光欽邊大容稟狀
魯祀太宰衛聖崇德之義而有賢則有院有院則有
復我東方列 聖朝崇德之懿典也本院卽七賢妥
靈之所而七賢事蹟已悉於前狀不必歷舉而

肅廟朝丙子特蒙 額恩復戶三結保奴三十名院
生三十名劃付院中春秋俎豆之禮朔望焚香之節
累百年來奉行謹慎矣去戊辰年各院存撤之際
國中仍存四十七院中本道內秦仁之武城長城之

兩院既是有還復之禮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本院卽文昌侯祠院中首勅先額之院何等尊慕之地保復之尚未還復者寔是士林之齎歎久矣自筆巖書院通文與關文章來到故茲敢帖連齊聲仰籲伏願特垂崇道尚禮之典復戶保奴一依兩院例還復以副士林之顙望無任祈懇

院長閔觀鎬題儒單容或無怪自官無擅便之道事
幼學宋南秀 洪淳達 金光欽 高泰鎮 金永烈
金永準 宋程淳 朴台東 金永弼 邊大容
申興模 權鍾洪 金永鯤 金相浩 李承湖

行蹟已悉於前狀不必歷舉而

肅廟朝特蒙宣額之恩復戶三結保奴三十名院生三十名劃付院中春秋之享祀朔望之焚香年近累百奉慎謹行矣去戊辰各院存撤之際國中仍享四十七院中本道內泰仁之武城長城之筆巖光州之褒忠三院特蒙仍享而復戶保奴之蠲削院生之亦減三院同然矣院宇既是仍存則保復必無蠲削之理而其時士林之公議惶恐未遑矣年前筆巖褒忠兩院復戶還復保奴還保尊慕欽仰果何如哉道內之三院俱是仍享則保復之還復亦是一體而

縉紳并邑縣監金益健題往稟于院長事 幼學

李秉德 鄭海斗 金永洪 丁世基 金必欽

權鍾喜 奇一行 閔致佑 金永彥 金永準

高永柱 金永璐 宋晚秀 禹在鎬 南 鎭

金樂欽 金昌欽 申學模 金永朝 鄭漢龜

己卯二月初四日幼學李秉德權秉圭金永璐稟狀
國有庠序鄉有校院卽我東方尊聖賢開來學之義
而復戶之劃下保奴之劃付寔出於崇道尚禮之盛
典也矧且書院之蒙 額繼之以復戶保奴自是列
聖朝培養之盛教也本院卽七賢配享之院而七賢

州之褒忠三院特存仍享而保復之蠲削院生之亦
減三院一時矣院宇既是仍存則保復必無蠲削之
理而其時士林之公議惶恐未遑矣近者筆巖褒忠
兩院復戶還復保奴還保尊賢景慕之地欽仰果何
如哉道內三院俱是仍存則保復之還復亦是一體
而兩院既有還復之事一院奚獨無還復之理乎
本院 文昌侯祠院中先額首勅何等尊崇之地尚
未還復其保復者實是士林之公議齋歎者久矣自
筆巖齋中通文與完文章來到故茲敢帖連齊聲仰
籲復戶保奴依他院例還復之地無任祈懇

鄭先生諱彥忠氣質渾厚訥言敏行沉潛義理尤精
易學玩心高明妙透象數誠齋金先生諱若默篤學
力行尊信前賢晚補楊州興學勸農清儉恭勤世稱
金玉君子鳴川金先生諱灌資稟近道誠孝出天用
力理義深有所得操履堅確德義深厚爲士林之表
七賢配享立祠維舊矣

肅廟丙子十一月日特蒙宣 額之恩復戶三結保
奴三十名院生三十名劃下院中春秋之享祀朔望
之焚香奉行謹審去戊辰書院存撤之際 國中仍
存四十七院中本道內泰仁之武城長城之筆巖光

十二月二十三日幼學宋程淳邊吉容黃基煥稟狀
伏以夫子嘗曰爾愛其羊我愛其禮告朔雖廢餼羊
不去推可驗體禮之大關而況乎書院旣爲仍存則
復戶保奴是乃體禮之大關者也 文昌侯崔先生
諱致遠以斯文宗匠從祀文廟遺風餘韻百世不泯
靈川申先生諱潛以己卯名賢早薦明經受符爲政
興學育英不憂軒丁先生諱克仁初以上庠入太學
抗章斥佛致仕還鄉教誨不倦設鄉飲酒禮訥菴宋
先生諱世琳年纔弱冠策名甲科無意仕宦七徵不
起毀撤佛宇剏立學舍跋白鹿洞規揭爲學式默齋

筆巖書院答通右文爲回通事夫院存而復戶之自
在知是 朝家崇報之典而曩在撤院之時混八一
體者係是吏胥輩之畏劫於 朝令而未能詳審之
致也本院則推尋時自政府有巖題而罪其都吏輩
之弄奸官而報 營至有完文永久無弊事之原委
如斯已矣幸望 貴院明白推尋以補春秋棗盛之
道如何道內書院不過三數處其所尊奉尤當如何
况復戶所重自別矣不可晷刻仍循者矣惟願僉君
子益加勇斷期必推尋亦豈非士林之大生光者乎
通頭幼學宋駙金壽千朴崙陽

享祀之院而 肅廟朝宣額時劃下復戶三結保奴三十名院生三十名混入蠲削而況且今茲戶布後院垡接人汗掌庫直亦入於均布之役春秋之享祀接支末由朔望之焚香供具難措伏願 城主閣下仰答 朝家崇道之典院垡二十戶戶布烟役卽爲頃下之地無任懇祝本官趙侯中植蠲頃十一戶布及烟役永久遵行

復戶保奴還復記

當寧十五年戊寅聞長城筆巖書院復戶保奴復舊事定舉員幼學黃基煥發文受答通始爲呈稟

不意有偷葬之人至於三十餘塚之多風化所關是可忍也孰不可忍也不塞不流不止不行掘其塚院其院一以爲尊賢之道二以杜蔑法之習無任祈懇本官韓山李侯承敬親審督掘

當寧五年戊辰各院存撤之際本院復戶保奴蠲削當寧六年己巳巡察使徐公相鼎勅建徐侯碑閣劃給錢百緡拮据

當寧九年壬申三月日幼學金必欽金廷勳邊大容金永璐院垓除役呈稟狀

伏以尊賢尚道 朝家崇報之盛典也本院卽七賢

純廟朝三十四年甲午本官沈侯能淑與院儒朴海
彥李俊漢金祖鉉金黈金奎勲筆耕集開刊事稟于
巡察使徐公有集徐公捐廩開刊完營押印藏于書
院事蹟載於懸板

憲廟朝十五年己酉豎徐侯灝淳不忘碑銘好賢誠
慕捐廩心貺幘面再新院貌重剏有司金玟金泓

哲廟朝六年乙卯院後偷塚事院任幼學金燾宋程
淳進士金炯厚權執圭宋持灝呈稟狀

伏以本院後麓城隍山卽古泰山郡城隍堂天祭之
址今爲武城書院之主山累百年初無一坏之塚矣

生鳴川金先生配尚 饗

還安祝文上同

伏以補漏改弊既新且完奉還 神位庶幾妥妥

重修記 回祿以上懸板上樑文入於灰燼

純廟朝二十五年乙酉四月日講堂有回祿之禍本
孫幼學金玟宋致德金峻哲丁文德鄭載赫金匡述
合謀修葺經始數年稟告本官徐侯灝淳徐侯好賢
誠慕捐廩心貺粵四年戊子三月改新訖功越四年
辛卯文昌侯崔先生影幀改模事蹟載碑文及懸板

桂苑筆耕集開刊記

焉則畫工之傳神勝於後學之想像耶觴臺弭節活
畫不冥之靈想應有千古續遊之感而奉之舊祠神
影相依離合亦有數歟士之瞻拜者恍若摳衣陪從
於伽山紫臺之上胡令後人景慕之至此也詩山不
磨曲水無盡 先生之風山高水長
崇禎後三甲辰仲春金陵金仁行書

移安祝文 維年月日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伏以上雨滲漏椽桶朽
落茲當修改虔告厥由謹以粢盛庶品式陳明薦以
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

弊丹雘亦渝並可改也本院殘罷財力無以辦我
侯徐公簡修乃先以十鎰銅助焉乃舉役而自院乞
力於四學又除別廳錢總六十餘緡貿彩買繡煥其
影像之位而地茵之破裂者易之丹青之黝昧者新
之至於工匠之使色土之用亦 侯之力也本院之
省費豈小小哉蓋以是月初六日壬戌始事仲丁前
一日丙寅奉影像後七日癸酉工訖焉邑之人獲拜
遺像而舉皆懽欣蹈抃俾余以記噫贊 先生之像
者擬之以柱空捲雲溼月消烟浩浩杳杳不可尚已
千載之下孰能模捉而一幅生綃毛髮森然冠佩偉

清溪杖屨逍遙之地而模來古貌爲寺之奇蹟歟不
可詳爾第嶺南章甫慨其先生七分之儀誤留佛
家而先通于河東校轉通于恆大家使之移奉深得
其體也湖左兩邑之儒又以爲本孫凋殘家祠傾圮
竊恐尺幅畫面竟有風雨之憂而將欲奉之於妥靈
之祠亦中其禮也擎章披讀讀未了而僉曰於我邑
先生吏隱之地也俎豆之鄉也盍以畫像奉諸祠宇
粵明年仲春日方以移安而余忝別有司之任遂與
邑之士謀所以設位於先生主壁之北咸曰斲板
揭座當如龕形畫欄錦帳可具也又曰祠之地衣已

而補罅茲擇穀朝虔告厥由謹以粢盛庶品式陳明薦以丕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配尚 饗

縣監徐簡修齋長宋廷麟掌議金履吉色掌趙碩麟院宇丹雘重修記

癸卯十月日樂安士人崔公栢大袖興樂兩邑校儒僉章而來弊邑栢大卽 文昌公之裔孫而覽其通辭 文昌先生畫像移奉事也若稽夫 先生影幀自羅而麗而至今藏在頭流雙溪寺禪非慕儒者而先生遺像胡爲謹奉於世局浩悵之餘耶抑以雙流

昌中火校任韓八教洪洛根率儒生祇迎同日自淳
昌宿尋院寺初十日自尋院寺至本院本邑金樂胤
宋啓天率院儒自菱橋陪行影幘暫奉于沅觴臺金
慶遇祇迎仍爲陪行同日奉安祭享獻官幼學金光
秋預差朴良植典祀崔日東執禮金致榮贊引鄭國
僑贊唱洪致慶大祝宋撲奉香朴大植奉爐宋訓奠
爵金賢鐸滌器安啓昌望瘞金基一

影幘奉安祝文 維年月日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 靈川申先生伏以 文昌先生道
遠千載神傳尺幅自彼樂邑移次主壁板以揭位埴

影幀奉安日記

甲辰二月初六日本邑陪行有司幼學金光一金載
厚自樂安鄉校發行宿順天府 先生後孫樂安崔
恆大興陽崔仁甲進士崔顯大樂安校任申永壽金
以鉉率儒生祇迎順天府使李惠祚瞻拜校任金玩
率儒生祇迎初七日自順天至北倉中火暮渡鴨綠
津宿院舍初八日自鴨綠院至谷城邑中火校任李
惟謹柳完載率儒生祇迎同日自谷城宿玉果邑衙
中李昇徽瞻拜校任金致賢率儒生祇迎院任沈瑛
鎮申致祿金達民率院生祇迎初九日自玉果至淳

乎哉今元月望自樂安本孫家先生影幀移安日以
二月初六日發程云日字只隔勢難前却而顧此殘
院力綿舉羸影板幀幌將何以前期辨措遠近章甫
亦何以臨時供億本院院任不可不極選一鄉之望
士故爲先別擇付名第念祇迎節次事面類非儒林
之私自獨擔故茲敢齊聲仰籲於閤下慕賢愛士之
下伏乞特垂諒察優加顧恤旋即轉報 營門以爲
所到祇迎之盛節又卽下付工匠以爲營繕修理之
大舉丕興緝儀罔俾專美幸甚民等無任祈懇

狀頭幼學金道修製書金慶遇

絲之繡果傳神錦還之年而五季之風雨不得晦焉
三韓之兵燹不得到焉不銷不泐完爾無恙於雙溪
之法師者幾百載矣而自寺而還安於家自家而移
安於先生妥靈之所者有此來諭地之相去也半
千餘里而分而復合歲之相後也九百餘載而神景
相隨則豈非有數存於其間也耶後學小生景仰千
秋聲猷已曠典刑莫憑而忽地天借獲覩千百載眞
面而潭月烟消霽空雲捲則亦豈非千載一時千古
盛舉歟矧乎神明太守冠佩儼然而一幅省識恍若
再蒞則一邑之大小髻白孰不翹首而望趾足而待

賞之所臺云月延流觴卽 先生觴詠之處而後人
立祠於月延之下而春秋享祀之者蓋亦古矣其後
靈川申先生東岡趙相公來莅此縣也爲設鄉學於
院堊而朔必祇謁重修流觴臺於古址而日必來憩
何莫非景慕先賢之微躅而道德村中尚闕君實之
昌繪錦城文化猶阻乖崖之彷彿則遺氓之墮淚想
像果何如哉昨年冬自樂安興陽通章來到而有曰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於樂安本孫之家而本孫
凋殘竊欲移安於本縣武城書院云噫嘻盛哉 先
生以北方莫先之學爲東國從享之首而伊當日買

親謁函丈之間是所以欣幸也爲吾徒者當於先生所鍾之邑所遊之地構一間影堂而湖嶺之儒粹難協議遂忱從權隨便而奉安於妥靈之祠者僉君子先獲我心矣茲以今月十八日鄙邑章甫齊會武城書院以定明年仲春仲丁移安影幘之儀而陪行有司付名二員僉君子不以其期之大緩其儀之草草爲尤歟右敬通于興陽樂安鄉校通頭金光運

影幘奉安時呈狀

城主閣下伏以本邑之古縣卽泰山古治而文昌侯崔先生吏隱之地也山有伽倻詩山卽先生游

下徒誦其柱晴嶂雲溼月潭烟之句蓋是 先生畫
像贊語也後生末學見聞寡陋只傳贊文未知畫像
之所在矣今聞得之於梵宇而奉之本孫家云一以
驚訝一以欣幸何者禪家之崇奉釋迦達摩之像而
先生影幀胡爲相傳於千古浩恟之後也此是吳道
子之畫子路歟顧生家之繪顏子歟 文成公購得
孔夫子畫像於中州而東國人始拜其儼然珠衡之
像 皇明時模來朱夫子畫像於使行而左海之士
初睹其灑落荷珠之像 先生之像出於麗羅晦藏
之餘而一丹青幅遺儀宛然則士之瞻拜展誠恍若

士論之倡發移奉不幾於有始無終之歸乎生等竊
惟 貴邑武城祠卽 先生妥靈之所而多士之欽
仰像亦不爲無助矣以 先生之遺像掛 先生之
位後時時瞻拜永永尊慕則在其雲孫自無難處之
慮而亦於士林長爲揭虔之地矣豈不美哉茲與近
地諸儒合席相議資送 先生雲孫恆大欲聽僉君
子高論之如何望須諒察而進退之不勝幸甚右敬
通于泰仁鄉校通頭幼學丁德輔製通楊伯楷
本邑答通右文爲通諭事竊惟世之景仰 孤雲先
生者恨不得摳衣親炙於紫遷伽倻之遊而千載之

慕想必有倍於他矣竊嘗聞先生遺像在於智異山之雙溪寺是蓋先生所逍遙之地而僧輩揭以爲古蹟者也然而先生道德從享文廟則遺像之混處於羅漢列者寧不爲斯文之恥乎是以湖嶺章甫頃發公議而闕里祠重修廳諸儒又通于河東鄉校仍飭于雙溪寺僧卽爲移奉於先生之雲孫家爲幸於士林不其大歟第念千古遺像宛然在今人思瞻拜無不敬起與其私於一家之尊奉孰若公於萬人之矜式也哉且其雲孫零替太甚一間影堂有難構成將未免上雨旁風墨渝而彩漶則當初

上香俯伏興奠幣俯伏興奠爵俯伏興引降復位行
亞獻禮終獻禮上同飲福受胙贊引引初獻官升詣
飲福位西向立奉爵俯伏興平身引降復位獻官及
諸生皆再拜祝撤籩豆獻官及諸生皆再拜訖祝闔
櫝望瘞贊引引獻官詣望瘞位可瘞焚祝禮畢獻官
諸生次次出執禮贊引再拜出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正廟朝七年癸卯十月日興陽樂安兩邑通文右文
爲通諭事實邑非孤雲崔先生遺馥之鄉耶泰山
之高曲水之長莫非先生之風則僉君子景仰尊

昌公崔先生神位前跪三上香俯伏興奠幣俯伏興
奠爵俯伏興少退跪讀祝文引詣 靈川申先生神
位前跪三上香俯伏興奠幣俯伏興奠爵俯伏興少
退跪讀祝文引詣拜位罇所東向立引詣 不憂軒
丁先生神位前跪三上香俯伏興奠幣俯伏興奠爵
俯伏興引詣 訥菴宋先生神位前跪三上香俯伏
興奠幣俯伏興奠爵俯伏興引詣 默齋鄭先生神
位前跪三上香俯伏興奠幣俯伏興奠爵俯伏興引
詣 誠齋金先生神位前跪三上香俯伏興奠幣俯
伏興奠爵俯伏興引詣 鳴川金先生神位前跪三

笏記

獻官及執事前期三日致齋行事日四更一點祝以
下開櫝開蓋贊引引初獻官點視陳設訖還出諸生
及諸執事俱就門外位執禮贊引入自東門先就拜
位再拜訖各就位贊引引諸生入就拜位贊引引獻
官就門外位贊引引祝及諸執事就拜位祝以下皆
再拜詣盥洗位訖各就位贊引引獻官入就位獻官
及諸生皆再拜行初獻禮贊引進初獻官之左白有
司謹具請行事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訖引詣
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鍾所西向立引詣文

金先生鳴川金先生配尚 饗

院生關文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禮曹關內節
啓下教 啓辭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書院下
齊儒生額數多少酌定事 榻前定奪已 賜額書
院二十名未 賜額書院十五名 文廟從享儒賢
書院三十名定式施行事分付諸道何如 傳曰允
事 啓下爲有置 啓下辭緣相考道內各邑書院
良中知委施行事關是置有亦關內辭緣相考儒生
額數定式施行爲乎矣書院良中知委施行事

七升錢一兩三錢

都有司幼學金禹三 別有司權效聖

祝文記

維年月日某敢昭告于

文昌公崔先生伏以北學莫先與道俱東倡我後蒙
萬古英風茲值仲丁精禋是宜謹以牲幣庶品式陳
明薦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
齋金先生鳴川金先生配尚 饗

靈川申先生伏以十訓教士三事爲治澤在斯民久
而敬之茲值仲丁精禋是宜謹以牲幣庶品式陳明
薦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

義巖書院錢文二兩 東學堂白米七斗

北學堂白米五斗 西學堂白米五斗

南學堂畚三斗落納 興陽丁氏門中白木七疋

請額事本校疏會時所用米四十二斗七升

疏行上京時贖錢九十一兩用米十七斗

延額時飯米三十七斗酒米四十四斗眞米六十

五斗錢四十三兩八錢租三石十二斗牛三隻

丙子春院宇重修時所用米一百五十四斗七升租

三石十一斗四升錢十一兩一錢

九月十五日院宇重修時用米五十斗五升租六斗

白紙二束 石魚二束 民魚一尾 乾柿二貼

金溝官趙楷米十斗 白紙三束 曲子一同

扶安官李萬選米一石 曲子一同 眞米二斗

生魚一束 雞二首 松板二立

井邑鄉校錢文五兩 興德鄉校白紙四束 錢二兩

南原鄉校錢文五兩 光州鄉校白木二疋

本邑鄉校白米二石 羅州鄉校壯紙五束

全州鄉校錢文四兩 金溝鄉校錢文五兩

淳昌鄉校白紙五束 順天鄉校白木二匹

考巖書院錢文十兩 南臯書院白米十斗 錢四兩

院任幼學金萬采 殷鼎和 執禮生員金大衡
禮官幣物彩段一匹 白苧布一匹 壯紙五束
大祝壯紙三束 奉香壯紙二束 白紙一束
奉爐壯紙三束 禮曹書吏錢文二十二兩彩段
一疋白木一匹壯紙七束白紙三束

各邑例賻記

巡察使金萬吉米二石 壯紙二束 厚白紙二束
本官李堂院宇內白紋席地衣一件 眞米六斗
租一石 白紙十束 曲子二同 甘漿二斗
井邑官申喜澄錢文二兩 白米五斗 壯紙一束

墜我東儒教實自公始厭世溷濁韜光就閒驚棲枳
棘于彼泰山流風餘韻赫赫耳目邑人追思報祀靡
式有若臣潛已卯名紳出宰茲邑少試經綸設校興
學誘掖後人文風丕變遺澤在民亦越五臣令名俱
彰矜式一方南土之望或升于朝或遜在野凡厥行
蹟式相上下地存遺蹟士挹餘徽一堂齊享有廟祁
祁庸錫華扁俾薦芬苾曠世哀榮靈其欽格

使者禮曹佐郎柳 格 大祝淳昌郡守李 潁

奉香井邑縣監申喜澄 奉爐秦仁縣監李 堂

院長領議政南九萬 京有司應教趙相愚

講堂儒生以次出祠任跪進禮幣使者立受祠任小
退再拜使者揖次詣執事官前跪進禮幣執事官立
受祠任小執再拜執事官答再拜坐定仍爲行禮後
使者起祠任拜送於大門外丙子十一月二十三日

祭文

維歲次丙子十一月甲寅朔二十三日丙子

國

王遣臣禮曹佐郎柳格祭于文昌侯崔致遠先正臣
申潛正言丁克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使金
若默進士金灌之靈粵維文昌挺生羅季歷敷中朝
蔚然爲國瑞文章學術輝映千祀饌食將聖斯文未

引使者詣香案前立執事一人奉香爐一人奉香楹
跪進使者左右使者立三上香大祝獻幣使者受之
還授大祝奠于神位前司罇酌酒執事官以爵進
使者前使者以爵授執事官奠于神位前連奠三
爵次詣配位上香獻幣奠爵並如儀訖使者復位儒
生跪大祝取祭文立於神位之左西向讀贊引引
祠任陞自西階俯伏於神位前使者宣額號訖
贊引引祠任降復位儒生四拜贊者唱鞠躬拜興平
身如儀謁者進使者前告禮畢大祝及執事官奉祭
文及幣就燎所焚訖謁者引使者及諸執事官出就

位大祝就 神位東南西南向立執事官就 神位西
南東向立諸生入就庭中北向設安祝文之床於
神位之左設香爐香檯床設安 額號之卓於前楹
階上執事奉祭物陳設于 神位前大祝出奉祭文
執事二人奉 香及 額號先入諸生鞠躬祇迎過
則平身奉 香盛于案上檯奉祝置于 神位之東
床上奉 額號置于前楹階上卓謁者引使者立東
門立於堦間北向謁者引使者詣盥洗位訖謁者引
使者陞自東階詣 神位東北南向立儒生四拜贊
者唱鞠躬拜興平身如儀大祝詣板位前開櫝謁者

爲賜 額爲良如教 額號以武城泰山南川啓報
而首望蒙 允復戶三結院生三十名保奴三十名
劃下院中

延額禮

本官前期設使者次及 香祝 額號奉安幕次於
廟門外之西南向使者以 香祝額號盛龍亭隨行
將至書院大門外儒生出序立於道左 香祝額號
至鞠躬祇迎過則平身使者立大門外執事奉 香
祝額號安於幕次床上謁者引使者就幕次大祝盥
洗填祝贊引引大祝及執事先入詣盥洗位訖各就

使金若默進士金灌配以享之諸臣之德行學業無
愧於古人爲範於來學旣成俎豆之所而宣 額之

典未免施行士林惜之特命有司亟宣華扁以貢院
宇爲白臥乎所崔致遠之道學卓冠吾東旣已餽食
於聖廟申潛之興學育才蔚有儒化至今遺愛於邑
人以至鄉賢丁克仁以下五人皆有學識表表可稱
則多士之建祠俎豆可見尊慕之誠是白乎旌立祠
旣久又無壘設之處似當依願 賜額是白矣事係
褒獎重典自下不敢擅便 上裁何如

丙子二月九日同副承旨臣沈枰次知 啓特

李自翊 金五一 邊脩 李 扁

請額事蹟

乙亥十一月十三日會于本院通告道內十二月初
一日疏會于本校丙子正月初五日封疏二月初九
日蒙 允十一月二十二日延 額禮曹啓 聞觀
此全羅道生員柳之春等疏辭則羅朝 文昌侯崔致
遠以斯文宗匠遭時昏亂出補泰山郡卽今秦仁縣
也遺風餘韻百世不泯鄉人合謀共構一堂以爲報
祀之地又曾爲邑宰者本朝先正臣申潛合享於其
祠以鄉賢正言丁克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

蔡章	柳道輝	金瑞鳳	李基錫	蘇猷	陳維新	陳命新	邊致尚	李益元	潘世茂
殷鼎梅	宋晚成	金夢臣	蘇弘遠	崔翊祖	黃道濟	林萬泰	崔受慶	邊儼	金百欽
金道亨	李湮	李煥	崔弘祖	李德著	金紀鳳	李溶	蘇玘	權玉衡	邊僖
進士李徵憲	李嗣先	金瑾	崔致相	蘇震苾	崔興祖	金應奎	權碩衡	尹志堯	邊偉
李錫鳳	蔡根	柳秀輝	李激	俞慶基	俞顯基	蘇景鼎	蘇琬	蘇玩	沈碩基

白光瑀	李 繕	李時說	趙汝益	李必郁
黃載重	金泰五	李后亮	裴萬屋	柳益長
洪仲衍	朴泰眞	金復謙	吳命祺	柳光玉
梁應八	李龜錫	金應義	李龜祥	黃世欽
柳夢麟	宋時瓘	李載興	朴大恆	柳宗惠
姜萬純	林宗穀	趙器全	文萬緯	李寬濟
宋殷城	柳 濂	柳友桂	李命郁	柳必壽
任致弘	柳夏英	柳夏振	南必箕	趙禎鳳
金百兼	金重華	沈壽台	奇挺會	奇挺玉
金百鍊	邊 攸	邊 侑	邊致用	奇挺緯

西門台	崔祿	崔岐	韓后琦	張溟翰	吳允益	李必起	羅瑞奎	金愼采	金萬采
趙山河	崔祐	崔曹昌	張南翰	金應白	吳允中	丁說	羅瑞星	金商鉉	金世剛
李萬榮	高斗光	安大德	吳聖海	景和雨	李鳳瑞	鄭璈	宋賢輔	金致祥	金鵬翼
白光瑚	高斗明	崔益華	崔絃	景和星	景華學	權敏聖	宋道輔	金商說	金致和
尹遇一	高斗杓	崔褚	韓后成	黃欽	金應三	權鐸	李必挺	宋道淵	金尚衡

金致白	宋弘輔	宋相夔	金商傳	金相采	李星奎	金泰重	殷鼎鉉	金鼎三	疏頭生員柳之春
金太初	趙汝欽	宋相稷	鄭世泰	鄭世觀	辛萬煜	李星淵	鄭之仁	李厚培	製疏進士宋明淵
李大齡	李龜瑞	鄭世益	金信胄	宋山斗	宋載亮	金尚謙	鄭松年	金益初	寫疏生員
洪應玘	金雲翼	權益載	李星箕	宋山甫	金尚俊	李星弼	鄭之雄	殷鼎和	
趙相宣	金溟翼	權有載	宋致亮	丁萬期	金亮采	宋相益	金尚敬		

諸立祠之所皆蒙 賜額之恩蓋所以重其從祀之
義也顧念諸臣之德行學業既足以無愧於古人爲
範於來學况致遠旣在從祀之列則惟茲祠宇豈可
獨無頒號之舉乎昔在 先王朝道內章甫曾以此
事陳達 天陛而適緣其時朝家多事未克施行豈
不爲斯文之大欠事乎茲以臣等不避煩猥之誅合
辭封章裹足千里復此籲乎於 九重之下伏願
殿下軫多士之顒望之情舉累 朝久曠之典特命
有司亟宣華扁以賁院宇以永祀事則千萬幸甚臣
等不勝祈懇屏營之至謹昧死以 聞

僦舍而終避不見卷書歸家不復就舉左右圖書探
蹟蘊奧每月朔望聚會生徒於鄉塾誘掖獎進終身
不怠儼然爲士林之表則其探履之堅確德義之深
厚此可見矣惟茲五臣者或抱賢才而未盡展布或
在遐遠而未及上聞志效雖未可見於一時風聲
猶可樹立於百世則古人所謂鄉先生沒而可祭於
社者其不在斯歟嗚呼立祠而享之者爲其賢也
賜額而旌之者重其事也多士慕德旣成俎豆之所
則其在國家尊崇風勵之道其可終闕宣額之
典乎試以東方諸賢言之旣爲餽食於聖廟則凡

下世以東方之康節稱之先正臣宋麟壽按節湖南
首訪講道李恆金麟厚相從講劇待以師友 朝廷
特制厚陵叅奉終身不仕金若默篤學力行尊信前
賢幼從內舅宋世琳受業長與金麟厚鄭彥忠等互
相切磋多所闡發執親之喪血泣三年逮登科第歷
職臺省晚補楊州牧興學勸農教化是先公退之暇
每掃室靜坐讀性理諸書夜分乃罷平生志操以清
儉恭勤爲本世以金玉君子稱之金灌資稟近道誠
孝出天自少用力於義理上深有所得在昏朝時嘗
赴舉入洛亢兇爾瞻聞其名邀請甚勤至於躬造其

逸民不就 睿宗朝拜正言以年滿七十致仕還鄉
願學之士遠近全集諄諄教誨老而不倦設鄉飲酒
禮一倣呂氏之規一鄉化之 成宗大王聞之下教
獎諭令本道時致惠養焉宋世琳乃 中廟師傅演
孫之子也天分甚高學業夙成年纔弱冠策名甲科
無意仕宦七徵不起事親至孝誠禮備盡毀撤佛宇
剏立學舍跋白鹿洞規揭爲學式訓迪蒙士隨其才
而篤成焉當時俊髦之士多出於其門鄭彥忠氣質
渾厚訥言敏行自中司馬廢絕舉業沉潛義理尤精
易學翫心高明妙透象數深得不得傳之秘於千載之

仁佐郎宋世琳進士鄭彥忠牧使金若默進士金灌
配以享之夫致遠之文章學業赫然照人耳目既躋
從祀之列則臣等何必贅說於其間哉申潛以己卯
名賢早薦明經中年受符是邑其爲政一以興學校
育人才爲務坊村里社廣設局堂以爲講肄之所捐
出已俸以備餼凜之資文風丕變賢士輩出其效作
成之效不下文翁之化蜀邑人追慕遂與致遠而共
享焉至若丁克仁乃世宗朝人也初以上庠入太
學時有妖僧恣行佛法誑惑一世克仁率諸生守

闕抗章闢之廓如自 上深加獎歎焉 文宗朝舉

樂善愛士而重道賢祠之建無願不從 恩額之典
有請卽 允凡前日之所未遑者莫不次第舉行而
獨本道泰仁縣有先賢祠宇刱建已逾百有餘年而
尚未蒙 寵錫之號則此實盛世之闕典而臣等之
所羞也臣等請爲 殿下略陳其梗槩惟 聖明試
垂省覽焉臣等謹按羅朝文昌侯崔致遠以斯文宗
匠遭時昏亂出守泰山郡卽今泰仁縣也當時文獻
雖不足徵而遺風餘韻百世不泯鄉人合謀共構一
堂以爲報祀之地而其後又以曾爲邑宰者本 朝
先正臣申潛合享於其祠以鄉賢先正臣正言丁克

迭執國命故也丁卯胡亂從沙溪金先生倡義盡誠
募粟先生益翊獎歎當昏朝敦倫之時不樂仕進與
宋壺巖致中金洗馬堪諸賢作松亭十賢之會觴詠
自娛以寓風泉之懷圖傳後世夢村金相國鍾秀跋
其圖溪湖金先生跋遺稿杜湖趙畋撰乙亥正月卒

請額疏

伏以書院之設所以尊有德景前行興起斯文之盛
舉而若非請于 朝廷顯承澳號則無以褒揚先賢
而殊欠崇報之意故有賢則必有祠有祠則必有
額者其來尚矣臣等伏覩 殿下臨御以來好賢而

安樂之爲楊數年廢不視事者只兩箇日晨昏勞悴
遂成沉痾及其不救遷別舍禁婦女終事皆合禮無
差失未嘗一語及於家戊午七月十五日卒于官

鳴川金先生諱灌字沃而道康人 萬曆乙亥五月二

十五日生天性孝友克承庭訓稍長師事朴蘭溪宗
挺先是鄉先生不憂軒丁公克仁訥庵宋公世琳立
學堂詳定鄉約公一遵之揭爲學式每月朔望深衣
幅巾參謁祠院退坐書室勤學誨人斯須不掇 萬曆
乙卯中進士當昏朝政亂嘗痛哭曰恨未斷三昌頭
時廣昌李爾瞻文昌柳希奮密昌朴承宗并有勲封

嗜欲自爲外物 嘉靖丙申公考 贈佐郎公母夫人
宋氏相繼沒公身單喪屢尚克盡職禮靡不舉皆得
中節伏墓側三年 中廟庚子登別試乙科第一己
酉除清洪都事庚戌爲韓山郡爲治清儉勸儒學居
先未一朞刑平政理 上聞而嘉之再降褒獎賜表
褒公無喜曰無效受恩非臣子之幸常取前人燭淚
落時民淚落之句書諸座右每掃室靜坐讀性理書
後秩滿歸四境老弱填街追哭曰吾父去矣丁巳拜
楊州牧特以禮法不容尺寸私豪右皆斂氣由韓及
楊俱知治本有在止除害根不煩教條待人必信民

不去日啜一粥守墓三霜足不出柴門者沒報親也
外雖如愚內實嚴毅單瓢屢空守士之常含章賁趾
不求人知利欲聲色浮雲太空負笈盈門善良輩出
圭庵宣化講道仙雲靈川下車先訪草廬一齋李先
生敬事待以師友上褒其賢原陵是拜俄解職絕意
崇途聚鄉子弟教誨不倦

誠齋金先生諱若默字太空道康人弘治庚申二月
一日生于谷城衙幼且端重穎悟稍長從師醉隱受
學日開月增卓然有進到晚蓋知男兒事業不在彼
歟鄭默齋彥忠礪志講學孝友慈良養爲已有聲色

文書爭一頃田公曰是書僞也兄弟一體而分尺布
可縫而競寸土乎二人相感乞焚其書罷訟而退義
勤人也上封事斥異端訴民瘼 賜肉帛以獎忠感
主也己卯正月卒年四十一

默齋鄭先生諱彥忠字良久慶州人器局沉重訥言
敏行自中進士旋廢赴舉礪志求道尤精易學啓蒙
卦畫程傳本義璿璣玉衡洪範太極精思力求的破
冰釋是以明吉凶消長之理卜進退存亡之機擬之
堯夫非劣以優在公懿德孝行爲最捐居舍以與季
妹終天只之志躬親甘旨手執劑藥生事父也衰經

訥庵宋先生諱世琳字獻仲礪山人成化十五年己亥十二月十四日生母夫人金氏方娠夢有神人褒衣金帶以告曰三日當生貴子名之萬年館及期果生公岐嶷胎成三字不類俗只稱萬年公少聰穎不煩師資學問日進弱冠中司馬華聞大播初公父韓山以經術爲中廟初九時甘盤及靖國賜公父子原從功臣壬戌擢壯元科癸亥轉吏曹佐郎未幾怙恃相繼捐背泣血六年仍成綿痼號訥庵七命不拜跋白鹿洞規教授子弟間因王母鄭氏命出爲綾城縣令莅官如臥齋閣威不苛寬不弛民有兄弟詐述

正言年七十致仕歸鄉號不憂軒吟成一絕題壁以
寓知足自止之意 成廟朝諭前正言丁克仁予聞
廉介自守不求闡達聚鄉子弟教誨不倦予甚嘉焉
欲招用之然年老難於任事故特加三品散官又求
弊言於公公時年八十強詣闕謝恩又陳興學校事
革罷佛法事守令勤慢殿最事功臣公私賤妾子從
父爲良事田畝起陳區別納稅事上番正兵優其奉
足事各道都蚤復立利民事漕船作弊列邑事貢法
爲弊事治盜寬法之弊事十條上賜酒慰遣又令本
道時致惠養爾宜知悉成化辛丑八月卒年八十一

非他人比今聞其死良用惻然遂命賻贈有加卒之日士哭于庭民號于野如喪所親王溪盧先生曰公之懿德俊行可以師範一世綱紀儒林文章學術足以黼黻皇猷潤色太平氣宇宏博識量高雅望之儼然可畏卽之油然可親乙卯三月禮葬峨嵋山

不憂軒丁先生諱克仁字可宅靈光人 太宗大王

元年辛巳八月六日生于豆毛浦里第長歸貫鄉天資粹美學問精明 宣德己酉中司馬景泰癸酉丁科第十三人疏闢異端竄逐妖僧封章陳弊革罷蚕室設鄉飲酒禮一遵呂氏鄉約聚子弟教誨不倦以

未幾時事大變公遂落職就閒史官先入後出之制亦廢公自此知不復有爲於時辛巳橫被罪籍遷于長興府丁酉移楊州戊戌遂命任便居住翌年丁憂廬于峨嵋山下癸卯以主簿出補泰仁勅建五學宮己酉移守杆城興學如治泰壬子超拜尚州牧州當慶尚一道之衝輪蹄輻輳機務浩繁又年歲大侵流民顛仆死公相枕藉公於是盡心賑活規模節目一依在泰時以是民無捐瘠觀察使丁公應斗上荒政之最于朝 上命增一秩甲寅十二月二日卒春秋六十四觀察使以計聞于朝 上教曰潛清廉勤幹

靈川申先生諱潛字元亮高靈人 弘治辛亥三月
日生年纔七歲受業伯兄纔經指授卽自領解不煩
劬若詞藻日進聲名大振 正德癸酉公年二十三
登進士 中廟朝治教更張士學日新公卽痛刮浮
華務自砥礪取讀聖賢之書編交當世之士往來論
辨卓然自得聞望益重己卯登第卽補藝文館檢閱
故事每賜對時史官常後入先出公進言曰史官於
人主言動之微無不察而書之後入先出恐有失於
紀實也聞 成廟朝有一儉人乘此得售其說卒階
後禍請自今先入後出以爲常 上可之卽命爲例

二十二年丙子請 額上疏禮曹 啓報以 武城
泰山南川三 額號薦望而首望武城蒙 允

七賢事蹟

文昌侯崔先生諱致遠字海夫號孤雲慶州人也唐
宣宗皇帝大中九年丁丑生年十二隨海舶入唐尋
師力學 僖宗皇帝乾符元年甲午登第光啓元年
乙巳東還新羅 憲康大王朝拜翰林學士始倡文
物於東國爲理學之宗儒有桂苑筆耕二十卷唐
眞宗皇帝十二年高麗 顯宗大王十一年庚申
謚文昌侯

金萬挺 白舜弼 金世衡 金時挺 金尙玉

屯田結卜三結十二負四束古文有今文無

書冊七書與左傳春秋通鑑性理節要心經附註聖
學十圖院規一部三綱行實二倫行實鄉約一卷小
學祠宇圖只有銘錄遺失無傳

大明憲宗皇帝成化十九年我 朝睿宗大王十五
年癸卯士論齋發自臺上移建于院岱伊後配享不
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卽七賢享祀之祠也

毅宗皇帝崇禎紀元後六十九年我 朝肅宗大王

牛刀割雞遠踵芳武文不在茲乎凡有所懷不發說
於左右則後而失其時者矣今願竊有請也 閤下
豈可惜數頃之田不遂多士之望耶培養我士氣成
就我人才所謂溉其根將食其實者豈不在於此乎
缺本官高用厚題屯田二石落只畚乙書院及東北
二學堂出給爲去乎秋來打作以爲諸生公用之地
而年年永爲定式之地爲乎矣後來主倅如有還推
之舉持此告課事

金一挺	全世綸	金汝諧	金泰挺
金汝雨	全天賦	閔載重	殷之任
			金時煥

屯田事幼學金世經稟狀五馬南來政先興學右文
之意藹然於言辭之表缺人人既行於下車之初苟
有補於學教者雖其所言之至淺而不以爲淺所請
之至難而不以爲難斯豈非有懷必達之秋耶竊惟
本縣古有四學惟我靈川申侯之所建也募奴而
復其役給田而資其用以爲養士之方而民至于今
稱之其有功於士林爲何如哉嗚呼人歸世遠古基
茅塞絃歌之聲息矣才難之歎極矣幸有缺維暨東
北二學董繼遺風則後生之有志者雖有依歸也而
生財無地供士乏資常自慨然者久矣何幸今日有

院誌

武城書院古泰山祠宇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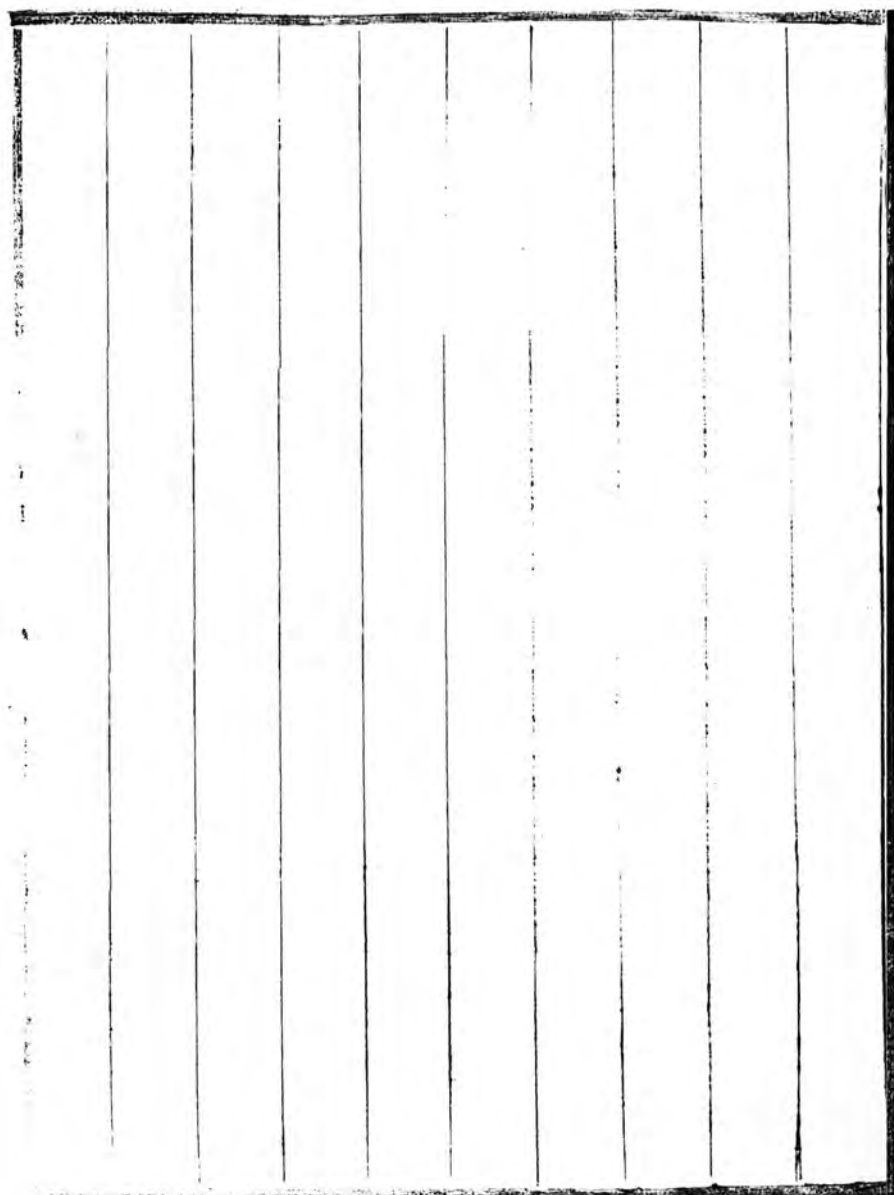
肅廟朝丙子蒙 額之號也蓋泰仁縣卽新羅泰山
郡而

文昌侯崔先生視篆之邑山有伽倻詩山臺有月迤
流觴 先生杖履觴詠之所而絃歌遺風百世不泯
鄉人立祠于月延之下矣逮我

中廟朝甲辰靈川申先生宰莅茲鄉十訓教事澤在
斯民合享其祠

泰山祠事蹟

萬曆四十四年
丙辰二月日



矣過之者莫不指點而傷惜之余之於甲寅冬來守
茲土行過其下見有荒臺而問諸縣人始得兩賢遺
蹟心所景慕傷惜之者不啻從倍於邑人然而歲荒
賑飢未遑修舉至翌年有秋而民憂以紓猶不可以
役凋瘵之氓改築臺爲廼於粵明年謀諸臺傍人士
之好古者俾掌之帖石防潰栽木補缺又欲引溪復
古流觴之水而其勢末由也已亦欲伐石爲記事之
碑而力不逮矣嗚呼又不知幾百禩之後人有能繼
修之者而川谷變遷岷山沉水之碑復出人間歟是
未可知也歲戊午季春豐城趙恆鎮記

遺愛不衰五袴之歌召母之謠蔚然再美於茲縣
之東二舍許有古邑基址前有峽溪之流溪之上有
臺名曰流觴壘之以石匝以老樹父老相傳以爲孤
雲知縣時杖屨處而做逸少故事者也歷千載而始
有東岡公起曠世之感仍古廢而築之視篆之暇有
晴命輿與村秀才觴詠於斯解紱歸後使趙副學持
謙記述孤雲遊遨之蹟載之石而手書之俾豎之臺
上伊後未數百年而臺又廢焉水道亦隨而改臺上
千章古木多爲風所折拔碑亦爲大水所滄踣不知
其處寒山一片問之遺老而不語先賢遺韻無可徵

又得子直增修而表揚焉茲豈非有待於其人歟不知是後繼子直而修者又誰也

崇禎紀元後十五年通政大夫行弘文館副提學趙持謙撰

通訓大夫行弘文館應教兼西學教授趙相愚書
流觴臺重修記

肅廟壬戌之秋季祖東岡公莅是邦翌年冬以持憲還于朝視政周歲之間治化大行氓俗丕變人用豐碑記述功德碑之閣又有銘曰清德居官醇風化俗孤雲靈川前後並蹟幾至數百年之久而仁聲未沫

百萬師矣以其高才盛名捲而東還推出緒餘亦足以維持一邦顧乃沉淪銅墨若梅子眞終焉浮游方外自託於羨門之屬何也噫公之生世不辰八中華則亂離瘼矣歸故國則危亡兆矣道不可行身且難容以此飄然遐舉蟬蛻夢濁誦紅流一絕未嘗不三復歎憐其志焉想其婆娑徜徉於是地也感慨繼之者豈但俛仰間陳跡而已哉公之清風逸韻溢於宇宙之間而知公志者蓋亦渺矣夫地之重與輕顯與晦未嘗不由於人古人有言蘭亭茂林不遇逸少則不傳余亦云是臺水石得文昌而始彰而千有餘年

流觴臺碑文

泰仁縣卽新羅之泰山郡文昌侯崔公舊所莅也郡
南七里許巖盤陲巖下流水環迴文昌每觴詠於斯
倣逸少故事至今父老相傳爲故事臺歲久荒廢余
友趙使君子直視篆之暇逍遙乎臺上悠然有曠世
之感累石增築豎小碑以識之屬余爲記頃年余爲
吏楓岳下地稱神仙窟宅思一修飾而未能暇及子直
其多乎哉余惟文昌生星一周涉海萬里未弱冠擢
大唐魏科踐霜臺入金門天下已爭知之及其從事
轅門磨墨楯頭使販鹽老賊魄褫膽落眞所謂賢於

兵柄復解利權攘袂大詔上表自訴言辭不遜上命
鄭畋草詔切責之今考集中有謝加侍中表巽辭引
咎而已無一語激忿勃謾又有謝賜宣慰表云仰睹
綸音深嘉師徒輯睦黎庶忘寧其假借慰獎也若是
之慙摯史所謂草詔切責者無乃非當時實錄也歟
又按中和紀年止於四年而公進表年月系以中和
六年蓋公以中和四年十月浮海翌年春始抵國又
翌年編進是集而前一年之改元光啓容或未聞知
也歲在闕逢敦牂中元達城徐有槩書于湖南布政
司之觀風軒中

通古書之思乎余如獲拱壁懼其愈遠而愈佚也亟
加誣校用聚珍字攏印分藏諸秦仁縣之武城書院
陝川郡之伽倻寺嗟乎名醞之坊必題杜康良劍之
鐔必標歐冶爲其不忘本始也我東詩文集之祇今
傳者不得不以是集爲開山鼻祖是亦東方藝苑之
本始也庸詎可一任其銷沉殘滅而不之圖哉東還
後著作散逸無傳唯有梵宮祠墓之間披林藪剔苔
蘚尚可得十數篇彙附原集剗剗壽傳余竊有志而
未遑云按史稱中和二年正月王鐸代高駢爲諸道
行營都統五月加高駢侍中罷鹽鐵轉運使駢旣失

豈不誠豪傑之士哉若其居幕數載知高駢之不足
有爲呂用之諸葛殷等之誕妄必敗超然引去去三
年而淮南亂作則又有似乎知幾明哲之君子其人
與文要之可傳不可泯者也據進表是集之外復有
今體賦一卷今體詩一卷雜詩賦一卷中山覆篋集
五卷唐藝文志稱桂苑筆耕二十卷文集三十卷而
他皆不傳唯是集屢經鋟印板刻舊佚搨本亦絕罕
癸巳秋余按察湖南巡到武城謁公書院徘徊乎石
龜流觴臺之間俛仰遺躅有餘慨焉會淵泉洪公以
是集寄曰此近千年不絕如綫之文獻耳子其無流

公名致遠字海夫孤雲其號也湖南之沃溝人幼穎
慧絕倫年十二從商舶入中原十八舉進士第久之
調深水縣尉任滿而罷時值黃巢之亂諸道行營都
統高駢開府淮南辟公爲都統巡官凡表狀文告皆
出公手其討黃巢檄天下傳誦奏除殿中侍御史賜
緋魚袋後四年充國信使東歸事憲康王定康王爲
翰林學士兵部侍郎出爲武城太守眞聖時挈家入
江陽郡伽倻山以終焉葬在湖西之鴻山或謂公羽
化者妄也夫以海隅偏壤之產而弱齡北學取科宦
如拾芥終以文章鳴一世同時賓貢之流莫之或先

俸榻以活字得數十百本用廣其傳曰不可使是書
絕于東國也嗚呼不忘今始教民厚也表章賢人勸
民善也徐公之用心也如此其所以爲政於湖南者
亦可知已役既完徐公屬余曰子實傳是書今不可
以靳一言余辭不能得若崔公之蹟行本末與是書
之可備攷證者徐公之序詳之矣余無所復贅云甲
午九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豐山洪
奭周序

桂苑筆耕集二十卷新羅孤雲崔公在唐淮南幕府
時公私應酬之作而東還之後手編表進于朝者也

明水疏布之質而兼有乎酒醴黼黻之美者豈不彌
可珍哉公在中國取科第八軍府亦旣已聲施當時
矣而一朝去之如脫屣及歸東方躋翰苑貳兵部以
至阿飡阿飡者新羅大官其顯用方未已也而顧又
自放於山林寂寞之濱以終老其身而不悔蓋度其
時之皆不可有爲也士君子立身蹈道莫有大乎出
處之際出處而不失其時非賢者不能也賢者之作
固不可使其無傳况其文傑然如彼而又爲東國文
章之本始者哉湖南觀察使徐公準平卽余所稱博
雅能文而好古者也聞余蓄是書亟取而校之捐其

國書目有載中山覆簣集者徧求之終不可得唯桂
苑筆耕二十卷爲吾家先世舊藏自童幼時知珍而
玩之然間以語人雖博雅能文而好古者亦皆言未
曾見然則是書也幾乎絕矣使是書不行于東方是
玄酒不設于太室而疏布不羃于犧樽也豈所以教
民不忘本哉世或謂公文皆駢儷四六殊不類古作
者公之入中國在唐懿僖之際中國之文方專事駢
儷風會所趨固有不得而免者然觀公所爲辭逞逞
多華而不浮如檄黃巢一篇氣勁意直絕不以雕鏤
爲工至其詩平易近雅尤非晚唐人所可及是蓋以

桂苑筆耕集序

記有之曰酒醴之美而玄酒明水之尚貴五味之本也黼黻文繡之美而疏布之尚反女功之始也古之君子必重其本始如此吾東方之有文章而能著書傳後者自孤雲崔公始吾東方之士北學于中國而以文聲天下者亦自崔公始崔公之書傳于後者唯桂苑筆耕與中山覆簣集二部是二書者亦吾東方文章之本始也吾東方以文爲尚至我朝益煥以融家燕許而戶曹劉以詩若文成集者無慮充棟宇矣而顧鮮有知崔公之書者余嘗見近代人所撰東

徒爾懸懸齋儒金永烈宋曦玉裴基萬以予有院任
之名來叩而諏曰又復因循誌之泯將有日矣後之
人雖欲振光採芬其孰從而求也予拜言而同和而
唱之旣決而起因囑文林然而謝曰自非其人予何
敢也固而詰之故有如述焉而至於先生之道德院
誌之事實備晰於 巡相閣下金公序文豈敢贅疣
於萬一也但以諸君子贊賢事事之義不勝其懇敢
乃如是云爾

歲在崇禎紀元后壬申閏夏通政大夫行興德縣
監申岐朝謹跋

所稱詩山而公昔吏隱之時存神遺澤觴詠自適之地也由是焉始而祠祠而院院而復蒙 恩額豈非先生道德之光久而益著者且配享先生皆文學中章章有光表準於一世之碩也然則院之所重誌之所載當何如哉及於拜院之日敬覽院誌則冷墨殘編不過謄傳而已夫誌者知也有院之誌將使後世者知其誌而尊其院也不有其誌焉得其知所以誌而傳傳而遠遠而不欲泯者是也雖銘金勒石尚患其泯其在證古詔後之道豈可以是以傳之噫道遠言湮文獻之莫徵率多由是而然敢不愼歟齎歎而歸

院之有誌如國之有史家之有譜豈有院而無誌誌而不刊亦豈可壽於傳也本院甚貧事且鉅重誌不印字縱多士君子憂失之歎而黽勉未遑今始登梓於乎吾東師道之再明湖南士氣之復興於斯可觀予以韎韐屐跡既不與於儒林而况窺測於道德文章之源乎雖然鳳凰芝草賢愚皆以爲美瑞青天白日奴隸亦知其清明至若孤雲先生北學中原流譽四方東還故國顯用當時乃勇退而潔歸爲道德之宗匠則鼎尚有耳慕而仰之是年春作吏於南省一小縣猥忝是院之任院在今全州治之南秦仁縣古

近章甫以禮將事而于以講先生之道于以讀先生之書進退瞻拜如在函丈之間尊慕如一日則先生必莞爾於冥冥矣院舊無誌使數百年院中事蹟傳騰歲久易致殘缺懼夫遂於湮沒院儒宋程淳金亨植禹在鎬張碩培斷然以爲己任收拾斷爛之餘存古附新廣考博載彙爲一書謀鋟梓而壽其傳工將告訖以記事之文徵於余余方以縉紳執事托名於院凡以院事來不敢以不能辭忘僭如右云爾

闕逢涪灘閏五月下澣通訓大夫行井邑縣監

奇亮行跋

甲申季夏上澣知縣鄭履源序

誌者院之史也實具紀事編年之義諸享位實蹟暨
院之興廢開是卷而瞭然然后可謂誌事就矣院享
孤雲崔先生而配以六君子先生奮乎羅季妙齡北
學發明仁賢之化尚有餘地而及夫東還蓋以學於
彼者牖我東人使數千里禮樂文物帙帙然與中華
並稱先生之於東人雖家戶而戶祝之可也必於秦
山之武城則蓋有以也先生嘗宰是縣卽古所謂桐
鄉者而遺風善俗猶有存者焉先生之靈豈無眷戀
乎茲者耶遺愛之在人心歲時伏臘尚走村翁况遠

鷄披虎威狐假之弊滔滔皆是諸君子豈爲之哉凡
我瞻禮於先生之堂從事於先生之役者皆先生徒
也庶幾乎百世之下廉頑立懦使先生之風稜韻致
永永無替則斯誌也亦將與之悠久綿遠不刊而自
刊矣不以爲不然否誌中條件頭頭項項無一非關
涉於先生者宜其敬謹之不暇而具在本誌中不必
疊床爾若其先生之文章也學術也發揮當世牖啓
後人可以圖後天之壽者前人之述備矣豈淺見末
學之所可蠡酌測海贊揚其萬一者哉先生姓崔諱
致遠孤雲其號而文昌其諫也

寶寓目清寧之圖則宛然與先生身親交遞如蕭曹
迭相若將畫一於先生之約束由此觀之觀感之間
警發而興起焉者皆先生賜也適來則爲遺愛之地
適去則爲妥靈之所先生之於茲土也豈偶然者哉
是院也先生爲主而配享六先生之中鳴川金公其
一也昔我文清公先祖之巡察是道也歷路委訪傾
蓋如舊而余之南麾適值茲土此亦非偶然矣曠世
相感自然湊合而孚應之妙隱隱幹旋乎其間則烏
得不緬遠而起敬乎蓋院誌登梓係是衛道尊賢之
盛事曷敢有携貳之端而挽近以來士趨不正隼翼

院誌序

壬午秋余守是縣蓋先生遺愛而又先生真食所
在也竊自幸千載之下雖高山仰止景行行止如儒
氏之於孔夫子誦其語想其人尊慕而不可謏者不
過是鉛槧之間糟粕之內而已曷嘗有陽處父之九
原可作而士固有曠百世而相感莫之爲而爲莫之
致而至者往往存乎其間此等處亦孰使之然歟其
冥冥不可測度者歟每夜氣清明恍焉惚焉如入先
生之室而覲其彷彿聽其警欬殆令人鄙吝不萌乎
心矣顧瞻絃歌之室則宛然言偃之侍夫子問答疊

歲闕逢涪灘端陽節嘉善大夫行全羅道觀察使兼
巡察使安東金聲根序

生之文尚可以仰之若泰山重之如弘璧而況是院也因先生吏隱之邦杖屨觴詠之地立祠而享之如古者鄉先生之歿而祭其社絃歌遺化如子游之武城至於 恩額之以是誕宣是院之重无何如哉是院之興替知非有損益於先生而吾道之氣數升降大有關於是院之存不存如何此院誌之所以述而刊之使人知所尊尚於先生之文章道德而衛翼先生之院也使後之視今者如今之視古扶植斯文依歸於是院則非是院之幸乃一國之幸萬世之幸余以是深有望於嗣後讀其詩誦其文之諸君子云爾

苑筆耕集兩序文爲開卷第一義先生名號事實文章道德畢陳無餘流觴臺碑文及重修記亦甚悉藐余後學不敢架疊爲言而以下則附院誌先生主院靈川申公合享不憂軒丁公訥庵宋公默齋鄭公誠齋金公鳴川金公配享事也七賢躋享祝文也院額籲請疏及蒙 允事蹟也宣 額時致 侑文及延 額時儀節也影幀奉安時往復通章及呈文日記也桂苑筆耕集刊蹟也院址禁埋院隸蠲役邑稟與儒狀也政府及營邑題判也以至前後文狀製寫事務句幹之儒濟濟載其名嗚呼讀先生之詩誦先

武城書院院誌序

余自髫髻聞有文昌侯孤雲崔先生爲我東文獻之
始及觀桂苑筆耕集二十冊其文章之擅於華夷出
處之審於治亂固可想像其萬一而猶以世遠言湮
末由訪遺躅挹餘芬竊嘗嚶嚶然歎曰古之人古之
人而已歲癸未春按湖南省省內之泰山縣有先生
尸祝之院院儒邊吉容黃基煥袖示一卷諏余言院
不可無誌誌不可無鐫梓而壽其傳盍詔一言以弁
之余作而曰顧非其人惡敢當雖然以夙昔尊慕曠
世之感辭之固則非悃悞乃盥手而按卷之本末桂

笏記

影幀奉安日記

影幀奉安時呈狀

院宇丹雘重修記

影幀奉安祝文

還安祝文

移安祝文

桂苑筆耕開刊記

重修記

芝山處士藏書記

復戶保奴還復記

武城書院院誌上目錄

武城書院院誌目錄

院誌上

序

桂苑筆耕序

流觴臺重修記

院誌

七賢事蹟

請額事蹟

祭文

祝文記

跋

流觴臺碑文

泰山祠事蹟

請額疏

延額禮

各邑例賻記

院生關文

影幀奉安事蹟





본 저서에 게재된 내용이 (재)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공식 견해는 아닙니다. 본 저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성서원원지』 상(1884)

초판인쇄 | 2021년 12월 17일

초판발행 | 2021년 12월 17일

옮긴이 | 박정만·권이선

교정감수자 | 김현영(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발행인 |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 화 | Tel. 063-280-7212 (Fax, 063-286-9206)

홈페이지 | <http://jbstudies.re.kr>

제 작 | 퓨전디자인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53

전 화 | Tel, 063-244-4433 (Fax, 063-244-2428)

등 록 | 제2008-000004호

이메일 | fu4433@naver.com

비매품

ISBN 978-89-6612-349-0 94090

978-89-6612-348-3 (세트)



비매품
94090



9 788966 123490

ISBN 978-89-6612-349-0

ISBN 978-89-6612-348-3 (세트)